금주의 법구-〈법구경〉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5월 11일)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화엄종주 월운 대강백, 적멸세계로 나아가다

월운당 해룡 대강백 영결 · 다비식 봉행

6월 21일 봉선사 청풍루 일원서
5천 사부대중 운집…추모 열기
종정예하 "연화장세계로 장엄을"
윤석열 대통령 조전 보내 추모
8월 3일 봉선사에서 49재 봉행



지난 6월 16일 원적에 든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의 영결 · 다비식이 6월 21일 봉선사 청풍루 일원에서 봉선문도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사진은 월운 대강백의 위패와 법구가 연화대로 이운되고 있는 모습.

남양주 · 글=신성민 기자, 사진=윤호섭 기자

"월운 대강백께서는 삼계왕래에 자재한 기용으로 극락왕생하시고 속환사바하시어 이 땅을 연화장세계로 장엄하소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이 사바세계의 육신을 벗고 무위적멸의 세계로 나아갔다.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 장의위원회는 6월 21일 봉선사 청풍루 일원에서 월운 대강백 영결 · 다비식을 봉선문도회의장으로 엄수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밀운 부림 대종사, 수석부의장 상월 보선 대종사,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해 당대 대강백의 원적을 추모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상월 보선 대종사가 대독한 영결법어를 통해 이 시대의 대강백이자 역경보살이었던 월운 대강백의 원력을 기렸다.

성파 대종사는 "월운 대강백은 통도사 강사를 시작으로 불경서당, 불교전문통신강원, 능엄학림을 설립해 후진양성에 힘쓰셨고, 동국역경원장 소임을 맡아 고려대장경을 한글대장경으로 완간하시어 불교중흥의 토대를 마련하셨으며, 이 땅에 법사리(法舍利)의 가피가 충만하게 하셨다"면서 "능엄학림을 개원해 전통 강맥을 계승하고 이사무애한 명안종사를 배출해 여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구현되도록 하신 이 시대의 원력보살이었다"고 상찬했다.

이어 "대강백께서는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삼장(三藏)을 떠나지 않고 정진했던 후학들의 모범이시며, 학인의 자세를 잃지 않으신 수행자이셨다"며 "스님께서는 삼계왕래에 자재한 기용으로 극락왕생하시고 속환사바하시어 이 땅을 연화장세계로 장엄하소서"라고 발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강백이자 역경사(易經師)였던 월운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렸다.

진우 스님은 "사부대중의 큰달이며 스승님의 문자사리인 한글대장경은 여전히 일천강을 비추면서 사바세계를 밝히고 있다"면서 "서역 구마라집 대사와 중원 현장법사의 역경원력이 해동에서 다시 화현하시니 두 나라의 역경보살께서 이구동성으로 '청출어람' 이라 환희하셨을 것"이라고 상찬했다.

이어 "노사께서는 책상 앞에서 항상 원고지를 메꾸거나 아니면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셨고 능엄학림과 불경서당에서 후학들의 안목을 열어주기 위해 낮밤을 잊고 정진한 일평생이었다"며 "이제 후학들은 운악산 줄기줄기가 비로자나의 법신이요 북한강 굽이굽이가 팔만대장경의 광장설이며, 봉선사 동종이 울릴 때마다 감로법음을 내리시는 줄 알며, 청풍루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선정삼매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추도사를 통해 월운 대강백의 업적을 기리고 구름에 달 가듯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길 기원했다.

자광 대종사는 "갑작스런 입적 소식을 접하고 이 자리에 서니 한 시대의 포교와 승가교육을 이끄셨던 월운 스님의 시원하고도 드넓은 그늘이 이제 막 시작되는 여름의 열기 아래 더욱 그리워진다"면서 "이제 스님께선 흔적없는 열반의 자리에 드셨지만 스님께서 이루신 포교와 승가교육으로 남겨진 여운은 이곳 사부대중의 마음속에 여전히 상속돼 또 다른 해탈로 이끄는 도사가 될 것"이라고 발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전을 보내 월운 대강백의 원적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대독한 조전에서 "매일같이 부처님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던 월운 대종사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셨다"면서 "대종사의 말씀을 받들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정진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조사에서 "이제 대강백을 직접 뵐 수 없으나 일평생 남기신 가르침은 현현해 오래 남을 것이다. 후학들은 대강백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묵묵히 일념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법주사 주지)은 조사를 통해 "이제 남은 후학들은 강백께서 평생 목표였던 교육, 포교, 역경사업의 유지를 이어받아 한국불교 발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계 인사들의 조사도 이어졌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조사를 통해 "월운 대강백께서는 한문경전의 한글번역, 불교의 전파와 보급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으며, 그 지혜와 헌신은 지금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고 애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 곁에 늘 바람으로 그늘로 존재할 것"이라고 추모했으며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한글대장경이 보배창고가 되길 바란다는 스님의 유지를 잘 받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영결식은 문장 밀운 대종사와 문도대표 철안 스님의 인사로 마무리됐다. 밀운 대종사는 "아침에 문상을 갔더니 사형께서 먼 곳에서 온 조문객들을 잘 맞이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일광 보따리를 내놓으셨다. 일광의 보따리를 쓰려면 물과 같은 마음으로 써야 평생 쓸 수 있다. 그 마음이 아니면 금세 써버린다"면서 "월운 스님의 부탁이다.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곳에 들여놓은 일광의 보따리를 가져가 평생을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철안 스님은 "저희 제자들은 시조 월초 스님을 위시해 운허 · 운경 · 월운 선대 큰스님들의 유훈과 가르침을 서릿발같이 지키겠다"면서 "문도 선 · 후배 간 화합을 근본으로 봉선교구가 서울-경기 2000만의 정신문화를 이끌고 누구나 의지하며 친정집처럼 오고 가고픈 곳으로 만들겠다"고 서원했다.

영결식 이후에는 다비식이 엄수됐다. 월운 대강백의 법구는 인로왕번, 명정, 삼신불번, 오방불번, 십이불번, 만장을 위시한 장의행렬과 함께 다경당과 청풍루, 일주문, 연밭 등을 거쳐 경내에 연화대에 안치됐다.

"불, 법, 승! 스님 불 들어갑니다!" 연화대에 불을 당기는 거화의식이 진행됐고, 이내 월운 대강백의 법구는 연화장 세계로 나아갔다. 문도스님들과 참석 대중들은 당대 대강백이 보이는 마지막 법문을 바라보며 눈물로 배웅했다.

이와 함께 월운 대강백의 초재는 6월 22일 오전 10시 봉선사에서 봉행됐으며, 2재부터 5재는 오전 10시 봉선사에서, 6재는 파주 보광사에서 봉행된다. 월운 대강백의 49재는 오는 8월 3일 오전 10시 봉선사에서 열린다.

월운 대강백 추모특집 6~7면

제20회 대원상 공모
접수 기간 : 2023년 9월 1일(금) ~ 10월 4일(수)

제7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3년 6월 28일(수) ~ 7월 25일(화)

제7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3년 7월 3일(월) ~ 7월 31일(월)

제8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3년 7월 24일(월) ~ 8월 25일(금)

대한불교진흥원 2023년 하반기
4대 공모사업 및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학생 모집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
2023년 9월 6일(수) 개강
접수 기간 : 2023년 8월 1일 ~ 9월 5일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 추진과목 포함 강의 진행

(온라인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3년 9월 13일(수) 개강
접수 기간 : 2023년 8월 1일~ 9월 12일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강의 영상 제공함.

상세 공모 내용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문의 : 02-719-1855

“종조 도의국사 가르침 이어 불교중흥”

조계종, 서울 조계사서 도의국사 다례재 봉행

자광 대종사 · 진우 스님 등 각계 기관장 200여 명 동참 인묵 스님 인례로 종사 영반 “韓불교 천년 세우는 데 정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가 봉행된 서울 조계사 대웅전. 참석 대중이 조사 진영 앞에서 향훈을 기리고 있다.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시원, 통일신라시대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석이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6월 1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를 봉행하고, 도의국사가 이 땅에 전한 소중한 선풍을 선양했다. 다례에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각 포교 · 신도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도의국사가 남긴 법익을 추모했다. 성파 대종사는 “해동 조사선의 초조이신 도의국사께서는 이 땅에 전등의 당간지주를 세우시고 도업이 번창하고 법계가 윤택하도록 하셨다”며 “국사께서 전하신 법등은 육조와 임제의 현지를 참구하는 선문이 곳곳에 열리고 견성의 길이 열려 눈 밝은 선지식이 배출됐다”고 상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도의선사님의 가르침은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으로 조계종의 시원이 됐다”면서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 정신, 문화의 근간이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해지고 있다.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신적 풍요는 놓치고 있다”며 “지난 천년의 과거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의 천년을 준비하고 세우는 데 정진하겠다. 불교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에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인례로 도의국사의 향훈을 기리는 종사 영반이 거행됐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도의국사 진영에 헌다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헌향을 했다. 또 참석 대중이 헌화하며 종조의 뜻을 기렸다.

도의국사는 통일신라시대 스님으로 휘는 명적이며 호는 도의다. 소주 조계산 보림사에서 육조 혜능대사 영당에 참배하고 홍주 개원사에서 서당 지장선사를 친견, 달마선법을 전해 듣고 활연대오했다.

이후 신라 헌덕왕 13(821)년에 귀국해 설악산 진전사에서 40년간 주석하며 제자 억성 염거 스님에게 법을 전했다. 법맥은 보조체징 선사에게 이어지고, 보조체징 선사가 장흥 가지산에 보림사를 창건하며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 일파를 형성해 해동선문의 초조로 추앙받는다. 이에 조계종은 1941년 제정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산태고사법’에서 명시한 도의국사 기일인 음력 5월 2일에 맞춰 매년 다례를 봉행하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 · 동국대의료원 MOU

6월 23일, 업무협약 맺고 아미타요양병원 발전 협력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대표이사 호산)와 동국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채석래)이 업무협약을 맺고 조계종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발전과 승려복지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사진〉

조계종 승려복지는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 · 동국대의료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해 조계종 스님들의 승려복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력으로 동국대의료원은 의료 및 전문인력과 운영 · 홍보에 관한 자문 역할을 통해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상호간에 환자 전원 및 진료 편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조계종 스님과 아미타불교요양병원 직원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진료비 감면(비급여항복 본인부담액 20%), 종합검진 감면(30%) 등을 제공키로 했다.

승려복지 대표이사 호산 스님은 “조계종 최초의 직영 요양병원이 동국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승려복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요양병원의 발전을 넘어 동국대학교 의료원도 함께 발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석래 동국대학교 의료원장은 “스님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고민하던 차에 조계종단 차원에서 직영하는 요양병원과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동국대학교의료원과 의료원 산하의 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경주병원은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스님들이 노후에 수행하고 치료도 받으며 삶을 회향할 수 있는 여법한 수행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전통사찰 지목 설정 사적지로 변경” 제안

국회 정각회, 6월 19일 토론회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 교수는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 방안으로 전통사찰의 지목 설정을 사적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양 교수는 “문화재와 전통사찰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토지 특성이 있고, 둘 다 역사적 가치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인 ‘보존공물’”이라며 “같은 유형의 토지로 이용목적이 같다면 동일 지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지목 행정의 공정성뿐 아니라 합리적 제도운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은 “전통사찰은 스님과 신도들의 신행이 살아있는 도량이다. 그럼에도 현재 법령은 사찰을 100년 전 모습으로 박제하려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전통사찰 경내지에 한해 별도의 지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종단개혁 30년…중앙종무기관 개편 준비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22일 상평하계 워크숍서 강조 “변화 따른 대응력 강화” 주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22일 상평하계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종단개혁 이후 지난 30년 동안 세간은 많은 발전 속에서 폭풍 같은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넘어 제5차 정신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러한 시대 정신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시대 변화에 따른 종단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추진 예고했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자리잡은 삼원체계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기 2567(2023)년 중앙종무기관 · 산하기관 상평하계 및 제37대 핵심 주요 종책과 이행 점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조직 개편 추진 준비를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에게 주문했다.

“불기2568년 2024년은 종단개혁 30주년의 해”라고 상기한 진우 스님은 “우리 종단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현재의 3원 체제와 부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세간은 많은 발전 속에서 폭풍 같은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과연 조계종은 이러한 시대 정신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나아가 그동안 종단개혁의 성과물만 안주했던 것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우 스님은 특히 변화하는 시대에 종단의 대응능력이 미흡했음을 되짚으며 “갈수록 투명해지고 강화되고 있는 법적 행정적 대응과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무 문제, 온갖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대외 협력 문제 등을 우리 종단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현대인의 인간 소외, 정신적 빈곤을 해결하는 종단의 프로그램, 높아지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갈망에도 어떻게 호응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2024년 종단 개혁 30주년을 맞아 전면적인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스님은 “종단 역량 결집을 위하여 총무원 · 교육원 · 포교원 및 각 부서, 산하기관, 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현대와 미래 사회의 요구에 맞게 종단의 역량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새로운 조직은 어떤 형태로 신설할 것인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화쟁위 7기 출범…위원장 정문 스님

진우 스님, 6월 20일 20명 위촉 “의견충돌 방지 선도 역할” 당부



사회 곳곳 만연한 갈등과 대립의 현장에서 불교적 대안을 제시해온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제7기 화쟁위원을 위촉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스님과 재가자, 전문가 등 총 20명의 제7기 화쟁위원을 위촉했다.

진우 스님은 위촉식에서 위원장 정문 스님을 “그 누구보다 종단은 물론 사회, 정치, 문화적 소통과 화쟁에 밝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모신 만큼 화쟁위가 명실상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화쟁위원장 정문 스님은 “화쟁위원들과 함께 사회적 문제와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식 후에는 4층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제4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7기 화쟁위원회는 위원장 정문 스님을 비롯해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성제 스님,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세종 광제사 주지 원묵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장 진원 스님, 前 퇴계연 꽃어린이집 원장 청욱 스님, 곽병찬 전 한겨레신문 대기자, 김가연 광동고 교법사, 김선아 독립영화감독,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사 북칼럼니스트, 신호승 살림대화연구소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임은호 기자

www.buddhism.or.kr

아, 너두 명상할 수 있어

대한불교조계종 청소년 인성계발 프로그램

청소년 마음등불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청소년의 자존감 및 잠재력 증진을 위해 매년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일정을 참조하시어 청소년들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청소년 마음등불 일정

	일정	지역	프로그램 명	단체명	전화번호
1	7.1(토)	홍성	렛츠 고~! 명상 힐링캠프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010-2653-3917
2	7.6(목)	서울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봉인사	010-2570-5585
3	7.10(월)	부산	마음톡(TALK) 명상	미타선원	010-2557-1141
4	7.15(토)	무안	통(마음)! 통(느낌)! 행복 명상캠프	봉불사	010-4115-2303
5	7.15(토)	서울	마음이 행복하고 공부가 즐거워지는 청소년 10분 집중명상	탄허기념불교박물관	010-2692-8106
6	7.15(토)	영광	렛츠 고~! 명상 힐링캠프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010-2653-3917
7	7.18(화)	무안	통(마음)! 통(느낌)! 행복 명상캠프	봉불사	010-4115-2303
8	7.22(토)	서울	마음이 행복하고 공부가 즐거워지는 청소년 10분 집중명상	탄허기념불교박물관	010-2692-8106
9	7.22(토)	부산	마음톡(TALK) 명상	미타선원	010-2557-1141
10	7.22(토)~23(일)	포항	나를 찾는 선 - 마음이 행복한 나를 찾아봐	(사)동련	010-4500-0820
11	7.28(금)~30(일)	서울	존귀한 나와 우리를 위한 행복한 마음여행	관음선원	010-5327-8146
12	7.29(토)~30(일)	고성(경남)	EGG 깨뜨림, 잠자는 너의 잠재력을 깨워라!	자비명상	010-5300-8085
13	7.29(토)~30(일)	대전	EGG 깨뜨림, 잠자는 너의 잠재력을 깨워라!	자비명상	010-5300-8085
14	7.29(토)~30(일)	부산	나를 찾는 선 - 마음이 행복한 나를 찾아봐	(사)동련	010-4500-0820
15	8.5(토)	서울	렛츠 고~! 명상 힐링캠프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010-2653-3917
16	8.7(월)	무안	렛츠 고~! 명상 힐링캠프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010-2653-3917
17	8.8(화)	무안	렛츠 고~! 명상 힐링캠프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010-2653-3917
18	8.10(목)~11(금)	서울	신통방통 육방통	충정사	010-8779-4832
19	8.11(금)	서울	렛츠 고~! 명상 힐링캠프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010-2653-3917
20	8.19(토)~20(일)	서울	존귀한 나와 우리를 위한 행복한 마음여행	관음선원	010-5327-8146
21	8.20(일)	울산	청소년 마인드케어 명상힐링캠프	정토사	010-2509-0632
22	8.25(금), 9.15(금), 10.13(금), 11.10(금)	서울	비 온 뒤 맑음	정각사	010-6523-8889
23	8.26(토)~27(일)	서울	신통방통 육방통	충정사	010-8779-4832
24	8.27(일)	부천	청소년 마음숲 명상캠프 (부모·자녀 1day)	마인드힐링 명상상담센터	010-5555-7103
25	9.24(일)	부천	청소년 마음숲 명상캠프 (부모·자녀 1day)	마인드힐링 명상상담센터	010-5555-7103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세계 여성불자 한자리…"지혜 나누는 시간"

샤카디타 세계대회 6월 23일 개막
전세계 31개국서 3000여 명 동참
'깨어있는 지혜' 주제로 27일까지
본각 스님 "부처님 딸로 한가족"
진우 스님 "세계불교 축제" 기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전 세계 비구니 승가와 여성불자들의 축제,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6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열고 5일간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전 세계 여성수행자들의 대화합장인 이번 샤카디타 대회는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열린 것으로, 31개국에서 3000여 명이 동참했다.

개막식은 전국비구니차인회의 육법공양과 진관사 수륙재보존회의 신중작법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장내를 가득 메운 빨리어와 중국어, 티베트어, 베트남어, 한국어 등 각국의 염불은 샤카디타 대회가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임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시간이 됐다.

샤카디타 코리아 공동대표이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의 주제인 '깨어있기'를 강조했다. 본각 스님은 "그동안 위기의 시대에도 서로를 보살피고 배려하며 지금까지 여러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더욱 올바른 삶의 지침을 찾고 더 나아가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할 때"라면서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전쟁을 불러오며 갖가지 위기상황에 처하게 하지만 비움으로써 청정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샤론 A. 서(Sharon A.Suh) 샤카디타 세계여성불교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의 여성불자들이 모인 이번 대회는 우리의 통찰과 경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경이로운 순간"이라며 "샤카디타 대회를 통해 대체불가능한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대회 주제인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거듭 언급하며 "부처님 가르침과 명상을 바탕으로 세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의식 변화와 공유의 기회가 돼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대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가 한국 전통문화는 물론 각국의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세계에 알리는 세계불교문화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의 축제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격려도 이어졌다. 제18차 대회 증명인 명성 스님은 운문사 강주 진광 스님 대독한 격려사에서 "위기의 세상 속에 어떻게 깨어있는 수행자가 되고 어떤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을지 다함께 지혜를 모으자"면서 "인류의 스승 부처님의 진실한 아들, 딸이 되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현대사회 여성 불자의 역할과 함께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회는 6월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와 봉은사 일대에서 개최되며 학술, 문화, 공양, 체험의 장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현장 기사 차주 상보〉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 생애 면면을 조명하다

대행선연구원, '근 · 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 학술대회

근 · 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6월 17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근 · 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일엽 스님, 봉려관 스님을 비롯해 은영 스님, 인홍 스님, 대행 선사 등 근 · 현대 시기 한국 비구니계를 이끌었던 선지식들의 업적과 사상을 연구 · 조명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봉려관과 제주불교 지평의 확장'에서 근대 제주불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봉려관 스님의 사상을 조명했으며, '담연당 선경의 선사상-삶과 수행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여현 스님(동국대)은 유활문도회의 수장으로 수행에 매진한 담연당 선경 스님의 선사상을 살폈다.

김일엽문화재단 부이사장 경완 스님은 '김일엽 스님의 선사상 고찰'을 통해 근대 선각자인 일엽 스님의 수행자적 면모를 저작을 통해 되짚으며,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비구니 은영 스님의 생애와 보문종 창종의 의의'를 통해 비구니 종단인 보문종을 창종한 은영 스님의 삶과 사상을 살폈다.

'가지산 석남사 인홍 스님의 삶과 사상'을 발표한 동국대 강사 일중 스님은 현대 비구니 선지식 인홍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살폈으며, 윤종갑 동아대 초빙교수는 '대행선(大行禪)의 마음공부와 주인공 명상'을 통해 대행선 특징과 요체를 조명했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의 연구가 확대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혜수 스님은 "오늘 동국대 도량에서 훌륭한 법석을 열어 여섯 비구니 선사들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게 되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비구니의 일원으로서 문중을 떠나 한 승가의 사형 사제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학술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비구니 선사들의 연구가 발표되고 이어지기를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로 비구니 승가 연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연구하고 넓게 조망해 후속세대의 연구

근 · 현대 비구니 선지식 6인 조명
韓비구니 승가 연구 활성화 기대
제5회 묘공학술상 · 장학증서 수여

토대를 만들어주는 작업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토대를 기반으로 비구니 승가의 연구는 더욱 견고하고 활발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 역할을 대행선연구원에서 앞장서주시니 고맙고 든든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대행 선사 열반 10주년을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그 이후 한평생 수행자로 살다 간 비구니 스님들의 일생을 통해 수행자적 삶을 돌아보는 것도 아주 값진 일이라 생각돼 오늘의 기회를 만들었다"며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네 일상적인 삶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특집 5면〉 신성민 기자



대행선연구원은 6월 17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근현대 비구니 삶과 사상'을 주제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종합토론 모습.

대한불교진흥원, 하반기 4대 공모사업 실시

제20회 대원상 상금 증액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교의 현대화 · 대중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2003년 제정해 매년 시상하는 '제20회 대원상'을 비롯해 청년불교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제7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학술 · 콘텐츠 연구 개발을 돕는 '제8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풀뿌리 불교 중흥을 위한 '제7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이다. 특히 대원상은 상금을 대폭 상향하며, 해외서 유학하는 조계종 스님 2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특별 정진상'을 새롭게 선보인다.

제20회 대원상은 대상 상금만 지난해보다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별상 1500만원, 장려상 1000만원, 신설된 특별 정진상(2명) 각 1000만원으로 모든 상금이 확대됐다.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아래 사회활동, 강연 및 설법, 콘텐츠 제작, 저술 등 포교에 앞장선 출가자와 재가자, 단체를 시상한다.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진흥원에 접수해야 한다.

제7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은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장학금 및 활동비를 지원하며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300만원이 주어진다. 또 각 동아리별로 초등부 50만원, 중고등부 150만원, 대학생 및 대학원생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제7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은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하며 기관 · 단체별로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제8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는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교 학술부문은 저서 500만원에서 1200만원, 번역서 3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며, 만화 · 동화 · 다큐멘터리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 콘텐츠 부분도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원상을 제외한 공모사업은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윤호섭 기자

종교편향특위, 대구시청 항의 방문

6월 19일, 김종환 부시장 면담
"자문위 폐지 부당" 강력 항의

대구시립합창단의 종교편향 공연을 방지하고자 설치된 '종교화합자문위원회(자문위)'가 대구시의 결정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이하 특별위)가 대구시청을 찾아 자문위 존치를 강력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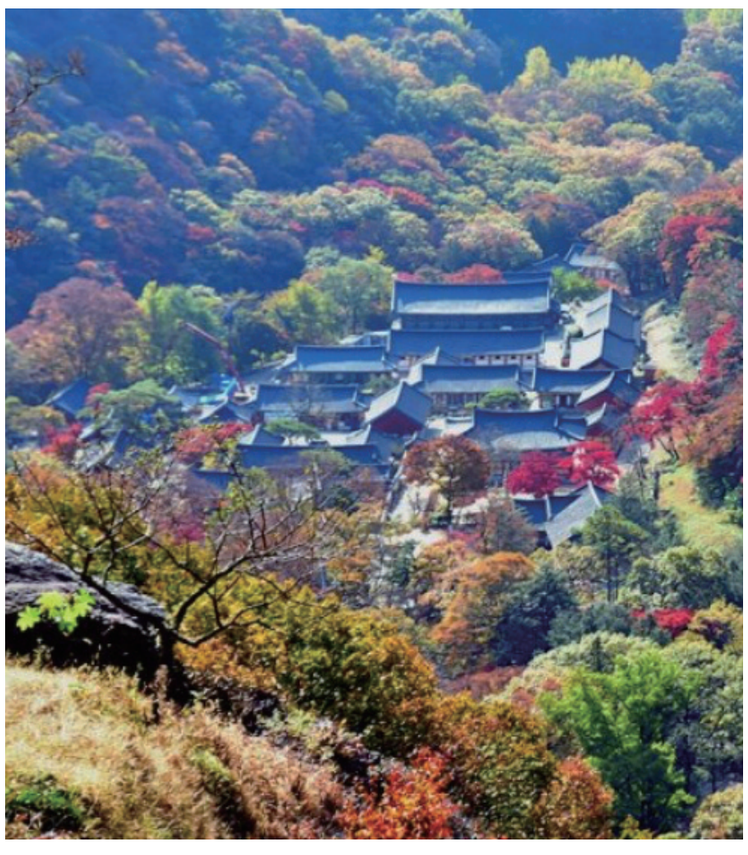
특별위는 6월 19일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에서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면담했다. 선광 스님은 먼저 홍준표 시장의 "사전검열은 위헌적"이라는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는 대구시가 종교편향 예방을 위해 만든 제도"라면서 "1년 반 만에 시장이 성급하게 자문위원회 폐지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자문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무조건 폐지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종한 부시장은 "향후 종교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해촉, 파면 등 징계 조치하려 한다"면서 "사전 검열적 제도보다는 내부적으로 교육이나 강력 제재를 강화하고 스스로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장치로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보란 문화예술정책과장이 "종교중립의무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조례상 종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징계자 해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설해 스님은 "사전검열이 문제 된다면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 폐지는 성급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종교편향특위는 면담 후 김종한 부시장에게 불교계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대구시는 6월 20일 자문위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30일에는 본 심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종교편향특위는 빠른 시일 내 홍준표 시장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면담에는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 종회의원 응관 스님, 설해 스님, 총무원 사회국장 현우 스님, 김나연 소리바라밀연구소장,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황보란 문화예술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만암 종헌대종사의
역사적 위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일시
불기 2567년(2023) 6월 29일(목) 오후 1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조계사 내) 국제회의장

주제
만암 종헌대종사의 생애와 역사적 위상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전화 061-392-7502
www.baekyangsa.com

개회
-. 인사말씀(무공스님, 백양사 주지)
-. 치사(진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제1부 주제 발표 : 만암의 생애와 사상
좌장 : 미산스님(상도선원 회주)
-. 제1주제 발표 : 금강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만암 대종사의 수증과 불교사상」
토론 : 만당스님(불갑사 주지)
-. 제2주제 발표 : 김상영(前 중앙승가대 교수)
「만암 종헌의 생애와 활동-1928년 이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 : 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제2부 주제 발표 : 만암의 불교정화와 교육활동
-. 제3주제 발표 : 김광식(前 동국대 특임교수)
「만암 불교정화의 재인식」
토론 : 이재수(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제4주제 발표 : 황인규(동국대 교수)
「만암의 교육활동과 의의」
토론 : 김덕진(광주교육대 교수)
-. 제5주제 발표 : 이재형(법보신문 편집국장)
「만암대종사의 행장과 관계된 몇 가지 검토」
토론 : 이성수(불교신문 기자)

동국대 공무원 동문, '불교 중흥' 힘 모은다

동공회·7080동문, 1회 야단법석
6월 23일 교내 정각원서 개최
첫 강연자로 이사장 돈관 스님
"동국 발전이 불교 발전" 강조
동국동문 리더 초청 강연 계획



동공회와 동국대 7080동창회는 6월 2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회 야단법석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포럼 직후 진행된 기념촬영에서 '동국중흥'을 외치는 참가자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국대 출신 공무원들과 7080동문들이 학교 발전과 불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국대 공무원 동문 모임인 동공회(공동회장 홍영표·이주환)와 동국대 7080동창회(회장 김종필)는 6월 2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회 야단법석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강연자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나서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돈관 스님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경구를 잘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부처님 7대 성지 1167km를 걷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진행했다. 당시 자승 스님은 '인도는 부처님이 탄생한 곳인데 부처님이 없다. 방일하면 한국불교도 동국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셨다"면서 "고문스님의 말씀대로 현실을 바로 보지 않고, 자기 발밑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둡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 전각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조고각하'의 경구를 우리는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한다"면서 "동국발전이 불교중흥이고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임을 강조한 자승 스님의 말씀처럼 학교 발전이 불교와 한국사회 발전임을 알고 동문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의 비전과 5대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동국건학장학과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소개하며 권선 동참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동문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종필 동국대 7080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7080동창회와 2013년 결성된 동공회는 사회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포진한 모임이다. 우리는 초대 동창회장인 한용운 스님 이래 105년의 동문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진정한 동국의 별들"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 35만 동국동문의 소통과 대통합을 위해 이 같은 야단법석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야단법석은 동국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깊게 연대하고 부활할 것을 선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윤재웅 총장, 문선배 총동창회장, 전하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등 동문 리더를 초청해 강연을 여는 등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동문으로서 동공회 창립을 이끌었던 윤재웅 총장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 7가지 법을 설하시며 이를 잘 지키면 승가는 쇠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를 '칠불쇠법'이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 화합이다"며 "화합은 승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추구해야 할 미덕이다. 우리 동국대 구성원 모두 화합하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동공회 공동회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동문 간의 연대와 결속을 다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우리 동국동문들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했으며 이주환 의원은 "오늘 포럼이 동국중흥과 불교중흥을 이끄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야단법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태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김종필 내일신문 이사, 이호중 대한LPG협회장,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43회 만해백일장 대상 안양예고 성은채

시 '여름의 문양' 수상…대통령 표창 받아



제43회 만해백일장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사진=대한불교청년회

안양예고 성은채 양이 시 '여름의 문양'으로 제43회 전국만해백일장 만해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는 6월 17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일원에서 '제43회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하고,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통령 표창인 만해대상은 안양예고 성은채 양이 시 '여름의 문양'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성은채 양은 영상통화를 통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형렬 심사위원장은 "대상 수상작이 순수했던 고교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40년 동안 글을 써오며 스스로 때가 묻은 게 아닌가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심사평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 신설된 동국대 이사장상(장원)은 전유주(서울 문현초)의 '진정한 꽃(시·시조부문)', 최지유(압구정초)의 '창문 밖으로 볼 수 있는 것(산문부문)'이 받았다. 이외에도 강원지사, 경기도교육감, 문체부장관, 교육부장관, 동국대 총장, 서울시장상 등이 장원 수상자들에게 수여됐다.

장정화 대불청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국만해백일장은 항일 역사의 중심에서 계셨던 만해 한용운 대선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 권위의 백일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건축·불상 등 불교문화재 보물 지정 잇달아

문화재청 21, 22일 지정예고
18세기 불전 백련사 대웅보전
조선시대 불화, 불상도 지정돼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전경.

고려시대 불교혁신 운동인 백련결사가 시작된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을 비롯해 조선시대 불화 불상 등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전남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강진 백련사는 고려말 원묘국사 요세(1163~1245)의 결사처로, 주불전인 대웅보전은 1760년 화재 이후 1762년에 중수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의 단층 건물이다.

대웅보전은 공포의 형식과 초각 등 세부기법이 화려하고, 기둥 상부의 용머리 조각, 천장 상부의 용머리 장식 등은 해학적이고 섬세하게 표현됐다. 실내를 채운 여러 마리의 용과 봉황 장식 등은 18세기 이후 불전 건축이 장식화 되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또한 대웅보전 중수 기록인 〈만덕산 백련사대법당중수기〉와 사찰 기록인 〈만덕사지〉 등을 통해서 대웅보전의 중수 배경과 불사에 참여한 장인의 계보와 교류가 확인돼 불교사와 건축사를 고찰할 수 있어 학술적인 가치도 매우 높다.

문화재청은 "백련사 대웅보전은 화려한 18세기의 건축적 특징과 관련 기록이 풍부하고,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축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6월 21일 순천 동화사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아미타여래구존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수조각승 계찬을 비롯해 인계, 영언 등 7명의 조각승들이 1657년(효종 8) 완성해 동화사 대웅전에 봉안한 삼불상이다. 세 불상의 복장 유물을 통해 조각승 간의 협업과 분업, 불상 제작에 필요한 물목과 공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불상을 조성한 계찬은 17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조각승으로 응혜와 승일 등 당시 대표적 조각승의 작업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상들은 계찬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사례이다.

울산박물관에 소장된 '아미타여래구존도'는 1565년(명종 20)이라는 제작연대가 정확한 조선 전기 불화로, 화기에 조성연대, 화제, 시주질 등이 기록돼 있다. 조선 전기에 그려진 아미타여래구존도는 6점이 현존하는데, 국내에 있는 작품 중 유일하게 제작연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채색 불화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고려 후기~조선 전기 불화의 형식과 양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며 "조선 전기 불화는 대부분 국외에 있고, 국내에 현존하는 작품은 그 사례가 드물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장에 정묵 스님

6월 21일 임용장 수여식


(사진 왼쪽부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이 임용장 수여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에 정묵 스님이 임명됐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6월 21일 동국대 본관 4층 법인 접견실에서 불교학술원장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교학술원장으로 임명된 정묵 스님의 임기는 6월 22일부터 2025년 6월 21일까지다.

신임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1976년 수덕사에서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정묵 스님은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12~15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선본사 주지, 호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지구촌공생회 이사, 수덕사 근역성보관 박물관장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사노위, 이태원 특별법 제정 촉구 행진

6월 20일, 서울광장~여의도 국회
단식 농성 지원…추모기도 봉행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사노위)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에 나섰다.〈사진〉

사노위는 6월 20일 서울광장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8.8km 거리를 2시간 가량 행진하며 이태원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에게 힘을 보탰다.

행진에 앞서 사노위 현성 스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을 개탄했다. 현성 스님은 "믿을수 없는 사회적 참사에 우리 사회가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대통령은 반응이 없다"면서 "매일 서울시청 분향소에서 국회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응답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중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별법을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우리 사회의 안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회가 특별법 제정으로 답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행진 후 국회 앞에 도착한 스님과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단식 농성 시작 기자회견'을 열었다.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로 오후 1시59분에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지금껏 힘들고 어려웠던 하루하루를 그나마 이악물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법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사노위 스님들은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하는 국회 농성장에서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사노위 여등 스님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한없이 아파하고 하루하루 죽음의 나날을 보내는 유가족들이 단식까지 하는 모습이 참담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 같은 참사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유가족들의 바람이 어려운 것이냐"고 되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일침을 가하며 "지금이라도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8일부터는 서울 광장 분향소부터 국회까지 8.8km를 걷는 '10.29 이태원 참사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을 진행 중이다. 사노위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연대와 기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 불광사, 신임 주지 동명 스님 고불식

6월 17일, 경내 보광당서
"불광 명성 회복하겠다"



서울 불광사 신임 주지에 동명 스님이 취임했다.

불광사는 6월 17일 경내 보광당에서 신임 주지 동명 스님의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고불식에서 동명 스님은 먼저 부처님 전에 임명장을 봉정했다. 이어 인사말을 통해 "불광사를 창건한 광덕큰스님의 뜻을 이어 대중과 화합하며 수행과 전법에 혼신을 다하겠다"면서 "불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는 도량, 슬프고 힘겨울 때마다 다시 찾는 바라밀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과 신도들, 종무원 그리고 모든 불광형제들과 함께 불광의 명성을 회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은 6월 16일 오전, 목동 법안정사에서 동명 스님에게 불광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스님은 "문도스님은 물론 신도들과 화합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오로지 불광사 발전을 위해 수행과 전법교화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하고 불광사 발전을 위해 부처님전에 직접 축원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신임 주지 동명 스님은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았으며 중앙승가대 졸업 후 구족계를 받았다. 중앙대에서 문학박사,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4급, 3급 승가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으며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다. 임은호 기자


조계사는 6월 21일 '단오재 화기애애'를 개최하고 소금단지 봉안을 통해 화재예방을 염원했다.

서울 조계사, 화재예방 '단오재 화기애애'

6월 22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서
소금단지 봉안, 어르신 세족식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2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단오재 화기애애'를 개최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소금단지 봉안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세족식을 진행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청정수 결계를 하고 물 수(水)를 쓴 후 소금단지를 봉인했다. 이후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소금단지를 묻었다.

지현 스님은 "소금단지 봉안은 조계사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액을 막고 더불어 동참하신 신도들의 가정에도 액운이 떨쳐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6월 17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엽 스님, 봉려관 스님을 비롯해 은영 스님, 인홍 스님, 대행 선사 등 근·현대 시기 한국 비구니계를 이끌었던 선지식들의 업적과 사상을 연구·조명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논문들을 정리했다.

정리=신성민 기자



6월 17일 동국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7회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사부대중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대행선, 붓다 수행법 충실히 계승"

윤종갑 동아대 초빙 교수
'대행선의 마음공부와 주인공 명상'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이 붓다가 계발한 독창적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계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갑 동아대 초빙교수는 대행선이 사마타(止)보다는 붓다만의 독창적 수행법인 위빠사나(觀)에 가깝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붓다는 사마타 수행만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독자적인 수행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위빠사나'다. 대행선은 위빠사나 수행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윤 교수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은 화두를 들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고, 삼라만상의 작용과 현상이 공안이며, 만물만생이 살고 있는 우주 법계 자체가 깨달음의 도량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주인공 관법은 일상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지켜보고 체험하는 위빠사나 수행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인지과학과 대행선의 접점도 모색했다. 그는 인지과학의 핵심이 "마음에 의해 몸이 인지화되고 몸에 의해 마음이 작동하는 것"임을 상기하며 대행 선사의 '한마음 주인공'과 맞닿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몸과 마음, 나와 세계에 대한 대행 선사의 과학적 설명은 인지과학의 쟁점과 동일한 것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를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는 몸과 마음, 환경의 합생에 의한 작용과 창조에 대해 전기발전소, 컴퓨터, 레이더망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면서 "대행 선사의 과학적 설명은 인지과학의 쟁점과 동일한 것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를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봉려관, 근대 제주불교 중흥 이끈 선각자"

봉려관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
'봉려관과 제주불교 지평의 확장'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봉려관과 제주불교 지평의 확장'을 통해 근대 제주불교 중흥을 이끈 선각자인 봉려관(1865~1938)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했다.

혜달 스님에 따르면 봉려관 스님은 1899년 처음 관음신앙을 가졌고, 1901년 관음신력을 확신해 1907년 스님이 된다. 봉려관 스님의 관음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기도 했지만, 1909년 제주 관음사를 창건하며 제주불교 중흥을 이끌었다. 봉려관 스님은 수행중심사찰인 한라산 관음사와 산천단 포교도량인 소림사, 성내포교당 등 제주와 오사카에 사찰 16~17곳을 중·창건했다. 봉려관 스님이 이끈 불사로 인해 1925년 제주불교계는 중흥을 맡게 되다.

이 중 봉려관 스님이 창건한 법정사는 제주 항일운동의 기지가 됐고, 그 중심에는 봉려관이 있었다. 봉려관 스님은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자인 강창규, 김연일, 방등화를 1913년 법정사로 이주시켰고, 군자금도 지원했다. 안광호는 이에 대해 "종 불사금을 걷어 종은 조그마하게 만들고 남은 돈은 모두 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혜달 스님은 "봉려관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을 제외하고 전부 다하신 분이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을 견인했다"면서 "봉려관의 항일자금 조달은 문헌은 없지만 구술은 존재한다. 비밀결사와 같은 항일운동을 감안하면 드러낼 수 없는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려관은 자신이 처한 개인적 시대적 상황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봤다"면서 "그 어떤 근대 여성보다 진취적 행보를 보인 봉려관을 한국여성의 모범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경 스님, '일상의 禪' 구현한 선지식

여현 스님(동국대)
'담연당 선경의 선사상'



여현 스님(동국대)은 '담연당 선경의 선사상'를 통해 선경 스님(1905~1996)의 삶과 수행을 살폈다.

여현 스님은 선경 스님의 생애를 유활문도회에서 발간한 문집 〈밑 없는 배(無底船)〉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선경 스님은 1905년 5월 2일 충북 청원군 남원면 산송리의 소작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에서 출생해 일찍이 모친을 여의고 본인도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생을 마치려 할 때 허공에서 '부처님과 지중한 인연'이라는 소리를 듣고 출가를 결심했다. 이후 선경 스님은 1922년 마곡사 영은암 명덕 스님에게 나아가 출가하고 이듬해 삭발했다. 은사인 명덕 스님은 선수행을 위해 많은 선원을 다녔고, 이에 따라 14년동안 인우 노스님을 선경 스님이 한결같이 시봉했다.

이후 선경 스님은 30살이 되어서야 선방을 다니며 참선수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수행의 열정은 만공 선사와의 인연으로 비롯됐다. 남들이 다 받는 화두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심은 선경 스님을 수행에 매진하도록 했다. 선방에서 줄기차게 정진을 하다보니 언제부터인가 밥맛을 잃었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다. 선경 스님은 당시를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급박한 마음이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현 스님은 "선경 스님의 삶 자체가 일상에서의 선수행이었다"고 상찬했다. 스님은 "공양주 소임을 하면서도 반드시 큰방에 앉아 수행했고, 심지어 꿈에서도 수행의 모습이었다"면서 "노년에 쇠퇴한 노구로도 늘 화두를 옆에 써서 놔두고 끊임없이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후학들에게도 일상에서 화두를 놓치 말고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생명·공, 일연 스님 선사상 핵심 요소

김일엽문화재단 부이사장 경완 스님
'일엽 선사의 선사상 고찰'



김일엽문화재단 부이사장 경완 스님은 '일엽 선사의 선사상 고찰'을 발표했다.

이날 경완 스님은 일엽 스님(1896~1971)의 만년 저작인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를 분석하고 그 안에 내재된 스님의 선사상을 고찰했다.

경완 스님에 따르면 본래 출가 전 기독교를 믿었던 일엽 스님은 신앙에 대한 불신으로 무종교 상태로 지내다가 B씨를 만나 불교와의 인연을 맺게 된다. 그 시기에 일엽 스님은 월간지 〈불교〉 문예란을 담당했다.

이후 일엽 스님의 출가에 대한 생각은 만공 선사를 만나면서 굳어진다.

출가 이후 일엽 스님은 만공 선사의 지시에 따라 25년동안 절필하고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했다. 다시 펜을 들고 난 이후에는 불교로 얻은 깨달음을 저서를 통해 회향했다.

만년 저작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 일엽 스님은 대중에게 불교 수행을 권선한다. 그 권선에는 일엽 스님의 선사상의 키워드가 담겼다. 경완 스님이 꼽은 생명과 공이다. 이들 단어는 저작에서 308회 사용될 정도로 빈도가 높다.

경완 스님은 "저작의 서문을 생명선언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본연의 생명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생명의 작용이 생각이며, 생각이 삼라만상을 만드는데 그 본체가 생명이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보면 작용과 생각, 삼라만상은 연기법으로, 본연의 생명은 불성, 공을 달리 표현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엽 선사가 설명하는 공은 제일의(第一義)이며, 진리"라며 "일엽 스님은 익히 알려진 불교 경전을 들어서 개념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은 바를 자신의 언어로 설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의 길' 모색 통해 비구니 종단 세우다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연구원
'은영스님 생애와 보문종 창종 의의'



대한불교보문종은 세계 유일 비구니 종단으로 1972년 창종됐다. 보문종의 시작을 이끈 은영 스님을 조명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비구니 은영 스님의 생애와 보문종 창종의 의의'를 통해 보문종 창종을 이끈 은영 스님의 생애를 조명했다.

전 연구원에 따르면 은영 스님은 1910년 1월 15일 충남 대덕군 북면 미호리에서 태어났으며 9세에 동학사에서 긍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은영 스님은 비구니 위상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비구니회의 전신인 우담바라회 초대 회장을 맡아 한국 비구니승가 발전을 이끈 것이다.

은영 스님이 보문종을 창종한 것도 한국 비구니승가의 발전을 위해 제3의 길을 모색함에 있었다. 전 연구원은 "현 보문사 비구니스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은영 스님은 정화 당시 조계사 등 영향력 있는 비구스님들이 있는 곳에서 자주 대중공양을 올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 비구스님들이 비구니스님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무시가 있었고, 은영 스님은 결국 비구도 대처도 아닌 제3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을 내렸다"면서 "제3의 길은 보문종이라는 세계 유일의 비구니 종단을 세우는 데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연구원은 현재 보문종 종도 스님들이 선대 의지를 계승해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현재 보문사와 보문종의 활동은 최근 급격히 감소했다"라며 "그동안 동진출가자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돼 높은 결속력을 보인 보문종이지만, 이제는 시대 변화에 순응해 혁신과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충고했다.

"계율·정진한 비구니 수행자 모델"

일중 스님(동국대 강사)
'가지산 석남사 인홍 스님의 삶과 사상'



"인홍 스님은 봉암사 결사 정신을 계승해 석남사 수행도량을 건립하고 철저한 수행가풍을 만들어 비구니의 출가 정신과 수행정신을 확립했다. 스님은 계율과 정진에 철저한 비구니 수행자상의 모델이 됐다."

일중 스님(동국대 강사)은 '가지산 석남사 인홍 스님의 삶과 사상'을 통해 가지산 석남사의 수행 가풍을 세운 인홍 스님(1908~1997)의 생애와 업적을 살폈다.

일중 스님에 따르면 인홍 스님은 1908년 경북 영일군에서 태어났고 1997년 석남사에서 세납 90세로 열반에 들었다. 1941년 33세에 출가해, 수행자로서의 살아온 것은 57년이다. 출가 이후 인홍 스님은 당대 선지식인 한암 스님과 성철 스님 아래서 수학하며 출가수행자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이에 대해 일중 스님은 "인홍 스님은 출가 후 처음 8년간은 한암스님 회상에서 보내고, 성철 스님을 만난 후 8년 간은 제방 선원을 돌며 참선 수행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1957년 가시산 석남사로 들어간 인홍 스님은 40년을 주석하며 비구니 회상을 열고 석남사 수행가풍을 확립해갔다. 인홍 스님은 석남사를 이끌어 감에 있어 △참선수행을 실참하는 수행도량 △부처님 정법수행을 계정혜에 두는 점 △선지식을 모셔 계율과 경전 강독을 표방했다.

이를 통해 인홍 스님이 보인 핵심 사상은 △선밀쌍수 △복혜쌍수 △계행과위의 중시로 정리된다는 게 일중 스님의 주장이다.

선밀쌍수는 참선수행을 바탕으로 사찰 일상 기도법으로 능엄주 독송과 대참회를 함께 실천하는 방식이다. 이는 봉암사 수행 결사에서도 성철 스님이 실천했던 방법으로 그대로 인홍 스님의 사상이 돼 석남사에 적용됐다.

‘한글 대장경’ 불사 이끈 이 시대 ‘역경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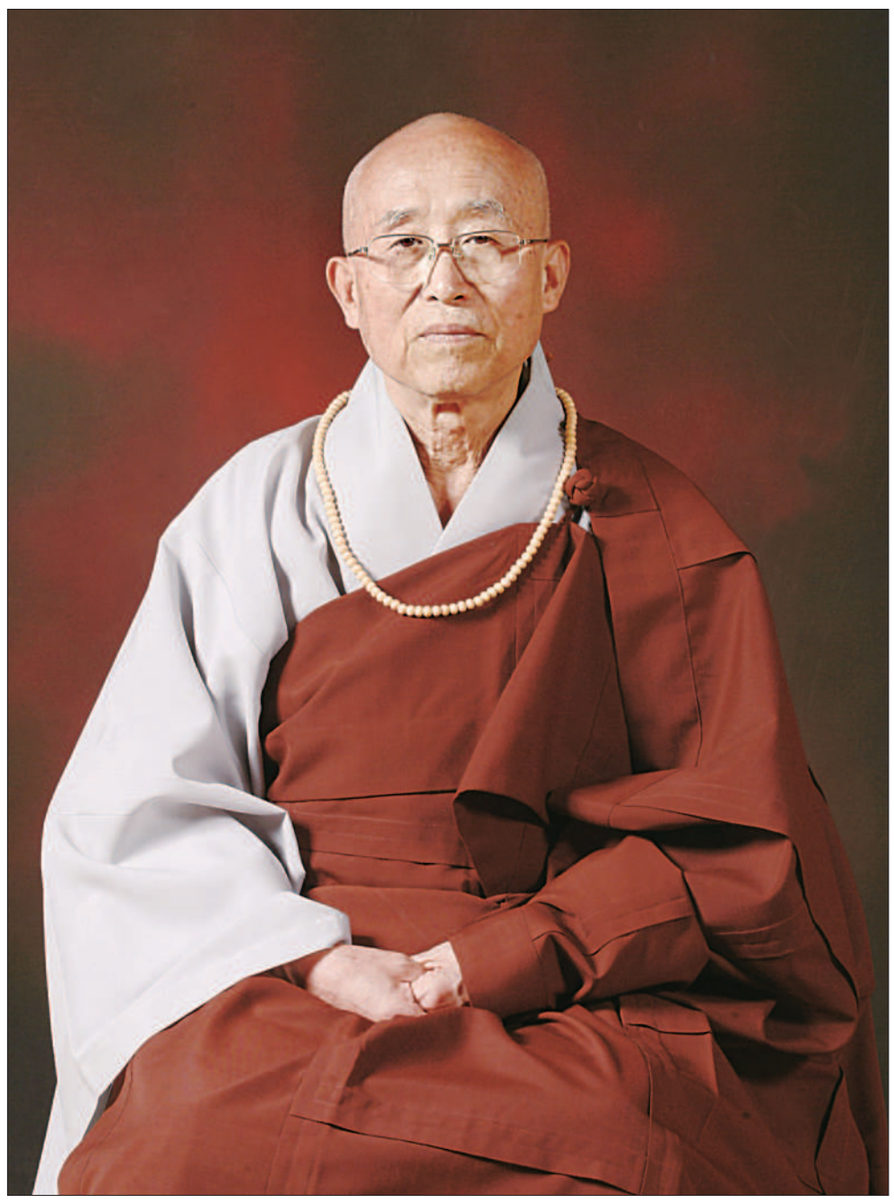
월운 해룡 대강백 주요 약력

1929. 경기 장단에서 태어남
1949. 화방사에서 운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아직 운허 스님을 뵙지는 못함
1952. 범어사에서 자운 화상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57. 해인사 강원 운허 스님 강석에서 대교 졸업
1959. 운허 스님께 입실 건당 및 전강 받음
1959~1963. 통도사 강원 강사 역임
1963. 경남 마산대(현 경남대) 철학과 졸업
1965.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위촉된 이래 83종 經 역출
1976~1994.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1979~1993. 서울 안암동 중앙승가대학 교수
1983~2000. 불경서당 운영 및 당주
1983~1994. 불교전문통신강원 설립 및 강주
1993~2010. 동국역경원장 취임 및 퇴임
1996~2016. 봉선사 능엄학림 강주
2001. 한글대장경(총 318책) 완간 고불식 거행
조계종 종정예하 공로상 수상
한글학회 외솔상 수상
2003.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2005. 대통령 은관문화훈장 수상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 수상
2006. 〈선문염송 · 염송설화〉 번역으로 지훈상 수상
2009. 동방문화대학원대 명예 철학박사
2010. 동국역경원 명예원장 위촉
2014. 생전 일기를 토대로 지난 일을 연도순으로 입력한 회고록 일종 〈자초연기〉 편집
2015. 중앙승가대 · 동국대 명예 철학박사
2022. 〈개정판 능엄경 강화〉 출간
2023. 4월 11일 파주 보광사 수선당 개축 낙성 증명법사
5월 25일 수국사 월초 대화상 ‘삼각산수국사비’ 참관
6월 16일 봉선사 다경실서 원적(세납 95세, 법랍 74년)

[행장]
월운당 해룡 대강백
(1929~2023)

유소년기 사서삼경 · 통감 마쳐
운허 스님 은사 · 화방사서 출가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으로 활동
팔만대장경 한글화사업 이끌어
2001년, 318책 한글대장경 완간

교리 · 역사 · 의례 · 가람수호 강조
임종 때까지 봉선사서 강편 잡아
사찰 관련 법령도 편집해 강의
83종 經 역출하며 대강백 평가
임종게 “헛소리하는 늙은이 월운”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은 1929년 음력 11월 12일 경기도 장단군 율동면 용산리 339번지에서 부친 김숙(金橚)과 모친 이수춘(李壽春) 사이의 3남 5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5세 때부터 19세가 되던 1945년까지 향리 유릉서당(柳陵書堂)에서 사서와 삼경 및 통감을 마치고, 그 해 경남 남해군 화방사(花芳寺) 객실에서 유숙했다.

21세가 되던 1948년 단옷날 운허(耘虛)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법명 해룡(海龍)을 받았다. 화방사에 머물면서 〈선원제전집도서〉를 비롯한 4집을 홀로 읽고 그 절에 있는 여러 경전을 열람했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동안거를 고성군 상리면 문수암의 청담 대종사 회상에서 마치고, 24세가 되던 1952년 4월 범어사에 주석한 은사 운허 대종사와 상면했다. 당시 〈능엄경〉 흑판강의를 종강한 운허 대종사가 경의 요지를 하문(下問)하자 “보살응기(菩薩應機) 시현미오(示現迷悟) 오타음실(誤墮淫陰)”이라 아뢰니, 운허 대종사는 “미면경정(未免逕庭)”이라 평했다.

뜻은 “부처님 제자 아난이 후세보살들의 수준에 맞게 어리석음을 보이시려고, 괜스레 음실에 떨어지는 꼴을 보여주셨다”인데, 운허 대종사는 “그대의 수준은 아직 안방에는 못 들어오고 마당에 겨우 들어섰다”고 하며 더욱 정진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스승 제자의 상면이 끝나고 운허 대종사가 “그대는 나와 함께 경학(經學)을 공부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을 가자” 하니 이 말씀 끝에 “예”라 대답한 인연이 월운 대강백 평생의 사업이 됐다.

그 후 운허 대종사 문하에서 부처님 일대시교(一代時敎)를 열람하고, 영축산 통도사에서 1959년 5월 16일 운허 대종사로부터 게문(偈文) 한 통을 받았는데, 그 게문에서 월운(月雲)이라는 당호가 유래했다.

示 月雲堂海龍丈室

王舍一輪月
淸光古到今
映輝今付你
好護昭雲林

왕사성의 둥근달 밝은 빛이
예나 제나 비추는데,
그 달빛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니
잘 보호하여 구름 낀 어둠을 밝히거라.

己亥 佛誕之翌
幻翁門孫 耘虛 說

이날로 통도사 강석을 운허 대종사로부터 물려받은 이후, 가는 곳마다 후학을 지도하고 1975년부터 임종 때까지 운악산 봉선사에서 강편(講鞭)을 놓지 않았다. 1964년 운허 대종사는 동국역경원을 개원하자, 그때부터 팔만대장경을 한글화하는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에 일관했다. 팔만대장경 약 3분의1 정도의 번역 출간을 마친 1980년 10월 10일 운허 대종사가 열반에 들자 유야무야되던 〈한글대장경〉 불사에 새바람을 불어넣으니, 때는 1993년이었다. 동국역경원장을 맡던 8년째 되던 2001년, 총 318책의 〈한글대장경〉 출간기념 봉불식을 장충체육관에서 올렸다. 그 후에도 일찍이 손에 익힌 컴퓨터 다루는 솜씨로 불경 번역으로 소일하며, 틈틈이 제자들을 교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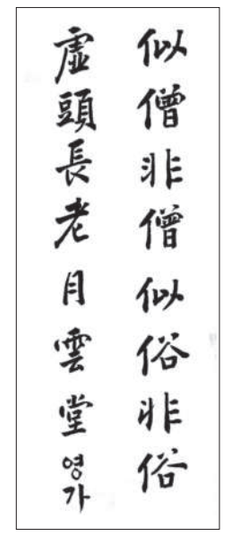
강백께서 평소 강조한 불교 교육 철학은 첫째 교리, 둘째 역사, 셋째 의례, 넷째 가람수호 방면이었다.

첫째, 교리 방면에서 교(敎)로는 〈화엄경청량소〉를 비롯한 강원 이력을 밟게 했고, 선(禪)으로는 〈선문염송〉과 〈경덕전등록〉을 북극성으로 삼았다. 둘째, 역사 방면으로는 역대 〈고승전〉을 비롯해 고려의 〈석가여래행적송〉을 중심으로 삼았다. 셋째, 의례 방면으로는 〈작법귀감〉을 비롯해 손수 지은 〈일용의식수문기〉로 갈래를 잡았다. 넷째, 가람수호 방면으로 저 멀리는 〈백장청규〉를 비롯해 현대의 사찰 관련 각종 법령도 손수 편집해 강의했다.

월운 대강백은 사부 운허 대종사 앞에 현신(現身)한 이래 평소 일기를 썼으니, 이 또한 사부의 일기 쓰고 메모하는 가풍을 쏙 빼닮았다. 86세가 되던 2014년 2월에는 대강백께서 평생 써온 일기장을 토대로 지난 기록을 몸소 연도순으로 입력한 회고록의 일종인 〈자초연기(自抄年紀)〉(A4 총 106쪽)를 편집 완료, 가까운 제자들에게 오탈자를 잡게 하는 것으로 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해 갔다.

그 후에도 조석으로 예불하고 대중과 함께 공양하며, 틈만 나면 〈다경실〉 컴퓨터실에서 고문서를 교정하고 자판으로 입력했다. 몸에 큰 병은 없었지만, 산문 밖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최근 2023년 4월 11일 〈파주 보광사 수구암〉에 한국과 태국 불교 교류 일환으로 태국 왓포사원 지원으로 수선당(修禪堂)이 신축되자 왕림해 증명 공덕을 짓고, 5월 25일에는 은평구 수국사 참배 후 월초(月初) 대화상께서 건립한 〈삼각산수국사비〉 이운(移運)을 참관해 증명하니, 이 걸음이 산문 출타의 마지막이었다.

시적(示寂)하시고 하룻밤이 지나, 한 노 거사님이 쪽지 하나를 건네주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대강백께서는 수십여 년 전 티베트로 성지순례 가신 적이 있었고, 산이 높아 호흡 곤란으로 기절하셨는데 얼마 있다 소생하셨단다. 동행한 거사가 “큰스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라고 위로하니, 스님이 말하기를 “혹시 순례 중 또 기절하면 이렇게 위패 써서 부처님 나라 티베트에서 장사 지내세요”라고 하면서, 쪽지에 한문으로 아래처럼 적었다고 한다.



前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 옮겨 씀.

임종게

似僧非僧似俗非俗
虛頭長老月雲靈駕

중 같지만
중도 아니고
속인 같지만
속인도 아닌
헛소리하는 늙은이
월운 영가.



불광산사 성운대사 입적 후 첫 번째 책!
다시 원화한 인생을 열다

빈곤하게 태어나 평생 정규교육을 못 받았으나 스스로 배우며 인생을 개척해 온 성운대사가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를 인생 여정과 함께 들려준다.

성운대사 지음, 이승준 옮김/사륙배판/208쪽/값 16,000원

열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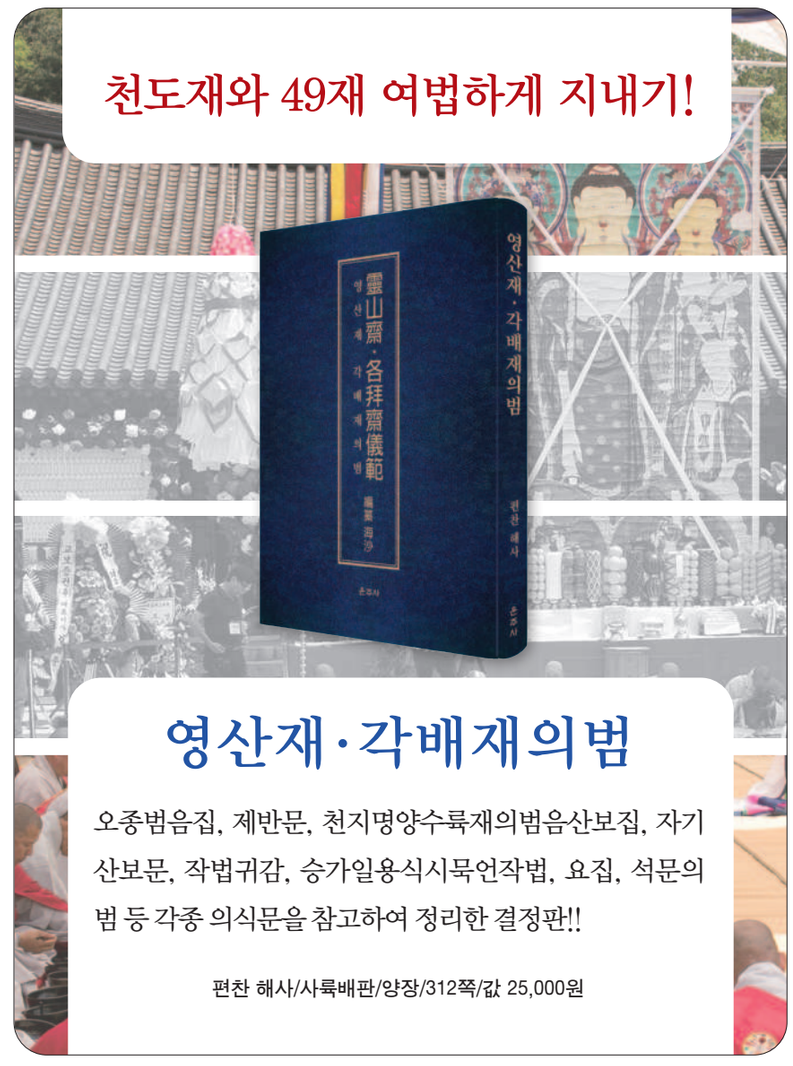
Nibbāna in Theravāda Perspective

상좌부불교에서 본
열반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천도재와 49재 여법하게 지내기!



영산재·각배재의범

오종범음집, 제반문,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자기산보문, 작법귀감,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요집, 석문의범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결정판!!

편찬 해사/사륙배판/양장/312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계율 잘 짊어지면 영원한 진리와 만난다”

다시 읽는 월운 대강백 명강설
(2006년 11월 25일, 봉선사)

6월 16일 원적에 든 월운당 해룡 스님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이자 역경보살로 칭송받았다. 대강백의 법문을 다시 한번 게재한다. 이 법문은 2006년 11월 25일 현대불교신문사와 봉선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강백 법회에서 월운 대강백이 〈능엄경〉을 강설한 것이다. 월운 대강백의 강설 전문은 현대불교신문 홈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다.

정리=신성민 기자


월운 대강백이 2006년 11월 25일 봉선사와 본지가 공동주최한 대강백 법회에서 〈능엄경〉에 대해 강설을 하고 있다.

아난존자라는 덕 높은 분이 어쩌다가 마등가(摩登伽)라는 여자의 주술사(呪術師)에 홀려 들어갔는데, 그는 주술로 남자의 정신을 빼놓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아난존자는 평소 공부한 것이 좀 있었기에 잠시 최면에 걸렸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정신을 차렸지만 부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 그를 데려왔습니다. 부처님 앞에 꿇어앉은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말합니다. “평소 경만 외우고 마음 닦는 공부를 못해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 마음 닦는 공부를 하고자 하오니 실제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합니다. 부처님 말씀 외우는 데는 내로라할 정도였지만 모습이 아주 우습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난존자가 공부하는 법을 일러달라고 청함에 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방여래께서 보리를 이루신 묘사마타(妙奢摩他)와 삼마(三摩)와 선나(禪那)와 최초방편(最初方便)입니다.

〈능엄경〉 10권중, 제1권부터 제4권 중반까지는 사마타의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중에도 제1권은 진(眞)과 망(妄)을 바로 알라는 법문이니,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적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라고 하셨는가. 마치 여관집에 무수한 사람이 드나들어도 주인은 늘 제자리에 꼼짝 않고 있듯이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오가는 마음은 망상이요 사시사철 제자리에 변치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주인이며 참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제2권과 제3권 전체에서는 어디서나 불성(佛性)을 만나 깨달으라 하셨으니 색리교청(色裏膠淸) 해중함미(海中鹹味), 단청 속의 아교풀, 바닷물의 짠맛과 같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대로가 여래장이라고 하시고, 나아가서는 오온(五蘊) 육입(六入)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 칠대(七大)가 원래 여래장(如來藏)묘진여성(妙眞如性)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4권 후반부터 제8권 중반까지는 두 번째 물음 삼마에 답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흔히 수도분이라 부릅니다. 즉 견도분에서 터득한 진리의 세계를 실제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네 토막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기초를 바로 잡으라 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수행의 기조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심인심(審因心) 심업본(審業本)’ 입니다. 심인심이란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라고 하신 내용이요, 심업본이란 그 목표를 성취해나가는 방법이 합당한가를 정확히 살펴 출발하라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요점을 바로 잡으라 입니다. 즉 공부하는 길, 또는 방법을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5권 초부터 제6권 초에 이르기까지 육진 등 25법이 모두 원통에 통하는 문이나 그중에도 깊고 원만하고 통한 길은 이근(耳根)밖에 없다고 소개해 주십니다.

셋째는 제6권 중반부터 내섭(內攝)이니, 삼학과 계율을 소개하셔서 자기의 힘으로 닦아나가는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는 율종의 이론입니다.

넷째는 외섭(外攝)이니, 부처님의 권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피력으로 해탈을 얻는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는 밀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을 불교의 종합교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강조한 것 중 내 힘으로 닦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계율인데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존경받길 바라면서 나쁘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건강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관리 한다고 요란을 떨지만 몸 생긴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유달리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이 계율을 두 어깨에 잘 짊어지고 나가면 영원한 진리와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열반경〉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지 · 봉선사 법회서 〈능엄경〉 강설
“능엄경, 본질적 믿음과 실천 설해”
“밖으로 남에게 자랑하는 불교 말고 佛法 마음서 떠나지 않는지 점검을”

두 번째로 자신을 닦아나가는 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권능을 믿고 수행으로써 그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이것을 능엄주라 합니다. 능엄주를 믿고 외우면서 부처님이 나를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고, 부처님 가피력으로 능엄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은 계율을 잘 닦고, 사마타 삼마 선나 즉 정과 혜를 균등하게 닦고, 그리고 세 번째 능엄주를 외워서 잘 닦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어느 형태든지, 어떤 경계에 가든지 무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어떤 급변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도 경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밖으로 남에게 자랑하는 불교 말고, 하루 한 번씩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불자라는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원점에 서서 나는 왜 불자인가?, 나는 왜 불자이어야 하는가?, 나는 불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부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불입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아니 스물네 시간 부처님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생을 마감할 무렵에 즈음해서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꼭 지키면 이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어 생활 속에 구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계를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이해관계는 나에게 있는 법입니다. 이해관계가 눈앞에 나타나면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망가지는데, 그것을 고치고 나가는 힘이 계율을 지키겠다는 신념입니다. 계를 설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계를 받은 뒤에 계를 잘 지키고, 계 설해 준 사람, 즉 계사를 닮으라는 뜻입니다. 〈능엄경〉의 못다 한 이야기는 계를 받으면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가야할 고향이 분명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생활화되고 의식화되고 체질화되도록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계 받는 일이고, 계를 받은 뒤에는 잠시도 잊지 말고 생활 속에서 꽃을 피우면 분명히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월운 대강백을 그리며

“따라갈 수 없는 천재성 갖춘 선지식”

전강제자 지안 대종사 (통도사 반야암 회주)



월운 큰스님은 찾아뵐 때마다 소탈하고 자상하셨습니다. 당신의 학식이 뛰어나더라도 자기주장을 고집하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늘 솔직한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제자로서 큰스님을 보면서 감탄한 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옛날부터도 경전에 대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해박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천재성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스님께서는 후학들을 가르칠 때마다 “한문경전을 깊이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문으로 일기를 쓰는 것이 한문 실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후학을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스님께서는 종종 안타까움을 내비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치문 · 사집 · 사교 · 대교로 이어지는 전통강원의 과정 속에서 후학들이 옛 스님들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총 318책의 한글대장경을 완간할 수 있었던 것도 뛰어난 한문 실력이 뒷받침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부처님의 본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었기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뛰어난 스님께서도 한글대장경을 완간한 뒤 가끔씩 오역을 발견하시곤 교정해야 한다는 뜻도 전하셨습니다. 역경이라는 행위 자체가 부처님 말씀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도 있어선 안 된다는 신념을 지키신 겁니다. 역경지침만 따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늘 당신의 공부를 챙겨 더 나은 풀이를 고민하셨지요.

이제 스승님을 직접 뵐 순 없지만 수많은 후학이 가르침을 받았으니 스승님의 향훈을 기리며 정진해나갈 것입니다.

나의 스승, 나의 부처님

불경서당 제자 정진원 교수 (튀르키예 에르지예스대학)



스승 월운당 해룡 대강백은 영원한 청년이었던 분이셨습니다. 처음 뵈었던 1994년 ‘불경서당’ 시절, 필자에게는 ‘봉선사 조실’ 도 ‘역경원장’ 도 ‘화엄종주’ 도 아닌 그저 소탈하고 장난기 가득한 위트로 넘치던 서당 훈장님이셨습니다. 그런 스승께서 입적하셨습니다. 세상 나이 아흔다섯, 스님 나이 일흔넷인 2023년 6월 하지 즈음. 여래 십호 마냥 나에게 남아있는 스님의 모습을 담담히 그려봅니다.

대강백은 늘 다경실에 앉아 오래된 스탠드를 켜놓고 공부하시던 ‘학승’ 이셨고, 불경서당 식구들에겐 가난한 불교학자 끼니 걱정을 해주시던 ‘담임 선생님’ 이셨습니다.

또한 구구절절 법문과 명언 가득한 경전을 암송하며 설법하셨던 ‘설법제일 부루나존자’ 이셨으며, 신세대 유행어를 배워 우리들 수업시간에 써보시며 맞는지 눈치를 보셨던 ‘얄개스님’ 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운 대강백은 제게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셨습니다.

운허 · 월운 스님은 고려대장경을 ‘한글대장경’ 으로 번역하는 원력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대강백의 뜻을 이을 우리의 원력과 발원은 무엇일까. 바로 조선대장경의 시작인 〈월인석보〉 역경입니다.

월운 대강백의 유지를 받든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이 지난 2021년부터 봉선사 불교대학에 월인석보 강좌를 열고 필자에게 3년째 소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봉선사 불경서당’ 의 맥은 그렇게 ‘월인석보 대학’ 으로 계승될 것이고, 세계만방에 ‘훈민정음’ 이 훌륭한 것은 세종이 쓴 〈월인천강지곡〉과 세조가 쓴 〈석보상절〉 덕분이라고 고할 것입니다. 운허 스님과 월운 스님을 잇는 교종본찰 봉선사 사부대중의 힘으로 우리 모두 그 수기를 환희봉행할 것입니다.



“청소년 치유하는 교직원으로 거듭나자”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창립 25주년 기념법회

6월 17일, 부산안국선원 법당서
감사패 수여·불자교사 공로 치하
수불 스님 “청소년 나침반 되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저희 교사들이 부처님의 참된 법을 배우고 익혀 부처님의 사자로서 불퇴전의 용기를 가지고, 걸음걸음이 모범이 되어 청소년 불자의 가슴에 보리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김경희)가 6월 17일 부산 안국선원 법당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며 발원문을 통해 지혜와 자비의 스승이 되어 청소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보리심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했다.

기념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독송으로 시작해 발원문 낭독, 내빈소개, 경과보고 순으로 이어졌으며 회장 인사말 및 감사패 증정, 축사가 진행됐다. 감사패는 허은정 자림회 회장, 김시애 반야회 회장, 조은영 선생이 수상했다.

행사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시명스님을 비롯해 김경희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회장, 김화연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회장, 김익수 사무총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국회의원,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과 각 학교 교장 및 교감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축하했다.

수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를 믿는 선생님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더욱 정진하셔야 한다”며 “배우고 익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깨달음 얻어 청소년들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희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법회를 봉행하지 못하고 힘들고 우울한 시간을 견뎌왔다”며 “3년 만에 선(禪)의 도량에서 여러 선생님을 뵙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참석해주신 모든 불자 교사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문을 해주신 수불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청소년들에게 치유를 안겨주는 교직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가 6월 17일 부산 안국선원 법당에서 ‘창립 2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김화연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회장은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해준 이곳 부산에서 불자 교사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다”며 “25년 동안 한결같이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활동해온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선생님들을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는 부산교사불자회를 전신으로 출범했다. 부산교사불자회는 1976년 8월 박정자 교장을 비롯한 부산초등여교사 모임인 반야회를 필두로 각 지회를 조직해 운영되어왔다. 1996년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 이후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가 1998년 7월 18일 창립됐으며, 양원식 회장(前 해동고등학교장)을 초대회장으로 매월 정기법회를 봉행해왔다.

통도사, ‘호국영령’ 넋 위로하다

현충시설 공식지정 이후
호국영령 위령재 두 번째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6월 17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2회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지난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현충시설로 지정됐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위령재를 거행해 한국전쟁 중 산화한 수많은 호국영령과 유족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봉행한 ‘제2회 호국영령 위령재’에서 주지 현덕 스님이 헌다를 하고 있다.

행사는 불공에 이어 법요식이 진행됐다. 법요식은 △개회 △삼귀의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묵념 △반야심경 △경과보고 △헌향 △헌다 △헌화 △봉행사 △추모사 △법어 △추모노래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천도재를 통해 통도사는 호국영령의 영가를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행사에는 주지 현덕 스님, 수좌 명신스님, 기획국장 선혜 스님을 비롯해 안현숙 울산보훈지청 보훈과장, 이정곤 양산부시장, 윤영석 · 김두관 국회의원,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 김승훈 39사단 119보병여단장, 박기수 6.25 참전용사 학도병 1기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위령재에서 지안 대종사는 “부처님은 나라의 은혜, 부모의 은혜, 삼보의 은혜, 중생의 은혜 이렇게 네 가지 은혜를 가르치셨다. 그중 나라의 은혜는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은혜로 국토 보전의 구심점이 되고 애국심의 원천이 된다”며 “호국영령의 정신을 본받아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대승보살의 바라밀다행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시대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호국불교의 정신은 위기극복의 근간이 되어왔다. 나라를 지키고자 희생한 호국영령들과 순국선열, 억울하게 생을 마친 수많은 민초들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발원하는 일은 다시 통도사의 역할로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진 신도회장, 이순희 울산보훈지청장, 나동연 양산시장,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한편, 통도사는 그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육군병원 분원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2020년 1월 17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같은 해 3월 증언과 자료를 취합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역사 고증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0년 12월 17일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분원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았다. 2021년에는 국방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받았으며, 심의 과정을 거쳐 11월 1일 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 지정 통보를 받았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자성악단 ‘무루인(無漏人)’ 창단 공연

찬불가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한 불자 성악가 모임 ‘무루인(無漏人)’의 공연이 펼쳐졌다.

무루인은 6월 16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무루인 창단 연주회’를 개최했다. 무루(無漏)는 번뇌와 망상이 소멸된 상태를 의미하며, 테너 김화정, 바리톤 조창준, 바리톤 추현철이 결성한 찬불가 단체다. 이번 창단 공연은 독창곡으로 만들어진 찬불가의 원곡을 불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잊힌 찬불가 명곡도 다시 소개하는 시간이 됐다.

공연은 1부 찬불애창곡을 독창으로 선보였으며, ‘무소유의 노래’ ‘산사의 저녁’ ‘마음’ ‘낮은 목소리’ 등 12곡을 공연했다. 2부에서는 무루인 남성중창팀이 애창 찬불가를 메들리로 들려주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공연을 위해 진보라 피아니스트와 김정일 기타리스트가 협연해 무대를 더욱 풍요롭게 했다.

김화정 테너는 “그간의 활동에서 서로 합창이나 중창으로 찬불가를 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불자님들에게 창작한 원곡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마다 새로운 찬불가가 나오고 사라지는 것을 본다.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도록 찬불가를 알리고 작곡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남포교사단, 2023년 분야별 연수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단장 박해덕)이 6월 17일 경남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2023년 포교사 역량 강화와 분야별 시상식 및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다.<사진> 연수프로그램은 명상에 관한 특강이 진행돼 현대 포교에 어울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적용 활동 사례를 포교사들에게 안내했다. 특강 후 포교사들은 각 총괄팀별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토론으로 포교에 대한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탰다. 연수에는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박해덕 단장, 성주사 법안 스님, 안정임 부단장, 강의수 부단장, 경남지역단 포교사 150여 명이 동참했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중생의 아픔을 함께하고 보리를 구하는 불자로서 덕목을 알고 지키기를 바란다”며 “소외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자비를 실천하는 포교사로 성장해 포교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해덕 단장은 “초발심을 잊지 않고 포교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해 포교에 임해야한다”며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정법으로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는 포교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미륵암,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사단법인 대한불교 한마음조계종 남해 미륵암(주지 청운)이 6월 19일 남해 삼동면 일대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孝) 경로잔치를 개최했다.<사진>

경로잔치는 지역불자와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100여 명의 어르신을 초청해 점심을 공양하고 관광 등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청운 스님은 “불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위해 경로잔치를 진행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이웃이 건강하고 행복해 지역사회가 밝아져 불심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명승’ 여수 향일암 일원, 보존 최선 다하겠다”

문화재청, 6월 22일 명승 지정 기념 행사

자연유산 가치 높아 명승 지정
연규 스님 “종합정비계획 수립”
문화재청 “지속적 관리” 약속

여수=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신성민 기자



문화재청은 6월 22일 향일암 일출광장에서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문화재청이 여수시와 향일암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하는 모습.

전남 대표 관음성지인 여수 향일암(주지 연규)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6월 22일 향일암 일출광장에서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은 남해 수평선 위로 뜨겁게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해돋이 경관과 하늘과 맞닿은 봉황산(금오산의 모산) 지평선, 수려한 해상경관을 볼 수 있는 자연 조망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거북이(금오산 지형)가 경전(향일암)을 등에 짊어지고 남해 용궁으로 들어가는 지형적 형상과 기암절벽 사이의 울창한 동백나무숲, 불교 전각 등이 서로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된 곳으로 자연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20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가 이뤄졌으며,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명승 지정경과와 보존 · 활용 보고 등이 진행됐다.

여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은 축사를 통해 명승에 걸 맞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연규 스님은 “명승으로 지정된 금오산 향일암 일원은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훌륭한 자연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며 “원효 대사께서 향일암을 창건하신 이후 향일암 사부대중은 금오산과 향일암 일원의 자연을 보존하고, 역사 ·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한 것을 인정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문화유산지구, 전통사찰보존지구에 걸맞는 금오산 향일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후손들에게 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한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축사에서 “향일암은 기암괴석과 절벽 사이마다 다양한 식생과 동백숲이 어우러져 전국적인 일출 명소로 꼽힌다. 그 가치가 높아 백도에 이어 40년 만에 명승으로 지정됐다”면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역민과 함께 보존하고 가꿔 문화와 예술이 피어나는 남해안 거점 도시 여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여수시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자연유산인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음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등 자연유산을 더욱 잘 보존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재청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력하여 여수 향일암 일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 영천사, 지장시왕 탱화 점안법회



6월 22일 경내 극락보전서

익산 영천사가 지장보살 및 지장보살시왕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익산 영천사(주지 혜암)는 6월 22일 극락보전에서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귀왕의 삼존불과 지장시왕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안법회는 증명법사 백산 스님, 화엄종 현공 스님, 덕치 스님, 의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전통방식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됐다.

영천사 주지 혜암스님은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성불을 미룰정도로 중생의 곁에 있는 보살”이라며 “지장기도를 통한 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삼세의 업장에서 벗어나 성불의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장보살과 지장시왕탱화 조성불사에 동참해주신 불자들께 감사드린다” 며 “지징보살 조성의 공덕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민들이 행복한 나날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성한 지장보살 시왕탱화는 가람불교 노광일 불화장의 작품으로 가로 2m40cm, 세로 1m50cm의 규모이다.

익산 영천사는 암석사이에서 석간수가 분출되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곳으로 예로부터 기우제를 지내는 등 마을 주민들의 소원을 기원하는 기도도량이다. 혜암 스님이 부임한 이후 매월 법보시 책자와 생활법문지를 발송하는 등 지역불교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 문화단체장 위한 사찰음식 만찬



증심사 등 6월 21일 체험 행사

전남 광주 지역 문화예술기관을 위한 사찰음식 체험이 열렸다.

지난 6월 21일 자비신행회 나눔홀에서 진행한 이날 행사는 광주지역 문화예술 단체인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관광재단,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의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참여해 사찰음식의 맛과 영양, 그리고 그 의미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사진〉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음식이 밥상에 오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자연친화적인지 책임을 지는 시대이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미안함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오늘 사찰음식은 지역 문화를 이끄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먹거리에 대해 책임성을 갖고 그 무게를 느껴보는 시간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선보인 음식은 치자밥, 아욱국, 꽃 초밥, 메밀빙떡, 수삼샐러드 등 12개의 사찰음식과 식전 오미자차와 다식들이다.

만찬 음식을 마련한 사찰음식 전문가 지원스님(광주 주월동 연화사 주지)은 “사찰음식은 성품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밥상”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선보인 음식에 효능과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조계종 증심사와 자비신행회,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Local Focus

고성 출신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전개

옥천사, 백초월 스님 순국 79주년 추모다례 예정



경남 고성 옥천사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투신한 고성 옥천사 스님들과 고성지역 독립운동 지사들에 대한 항일 행적을 조명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는 ‘(가칭)고성군 및 옥천사 독립운동사 발굴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장단기 선양사업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독립운동 선양 사업 대상자는 백초월 스님을 비롯해 백석기, 이청담, 박문성, 박민오, 이종천, 신화수, 우태선, 한봉진, 변상태 등 옥천사 출신 스님들과 고성 출신 독립지사들이다.

이를 위해 옥천사는 6월 29일 백초월 스님의 출생지인 고성군 영오면 금산부락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백초월 스님의 순국 79주년 추모 다례재를 봉행한다.

또한 오는 10월과 내년 5 · 10월 학술세미나를 열어 옥천사 스님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발굴하며, 내년 6월 29일에는 백초월 스님 순국 8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은 “백초월 스님의 업적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며 후대에 남겨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추모 다례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사, 故김영환 장군 추모재 연다

7월 3일 대적광전서 봉행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가 6.25전쟁당시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수호한 ‘故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재’를 7월 3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한다.

故 김영환 장군(1921~1954 · 사진)은 1951년 8월 지리산 무장공비토벌 작전의 일환으로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상부 명령을 받았으나 팔만대장경을 보호하기 위해 항명했고, 1954년 작전 중 순국했다. 이에 지난 2010년 정부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수호한 공적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 바 있다.

해인사는 “그간 코로나 19로 진행되지 못했던 故 김영환 장군 추모재를 재개하면서 6.25 전쟁 당시 팔만대장경을 지키고자 했던 스님들과 김영환 장군의 수호 정신을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영축문화재단, 제11회 영축문화대상 공모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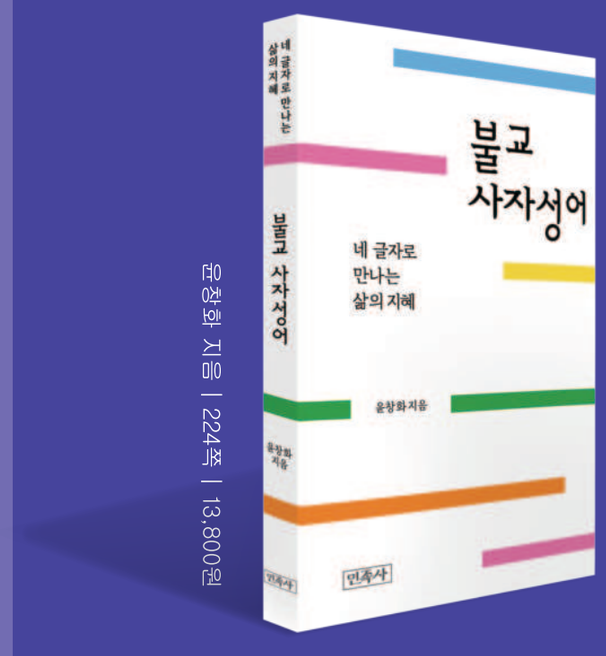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이 ‘제11회 영축문화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영축문화대상은 봉사실천상, 학술문화상, 포교원력상 등 3개 부문을 모집하며, 각 부문 1명을 선정해 총 3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후보자의 국적, 학력, 직업, 종교의 구분이 없으며 해당 공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스님일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스님으로 한정된다. 추천권자는 기업체(단체)대표, 대학 학과장, 재적사찰 주지, 은사 등이며 10월말까지 후보자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메일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심사는 11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뤄지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선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3일 노천당 월하 대종사 추모다례재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성어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노승이 전한 가르침…“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롭다”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향봉 지음
불광출판사
1만7000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마음을 열어 누군가와 말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군불 지피듯이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디딤돌과 버팀목이 그리운 오늘이다. 행복과 자유, 그리고 빛을 향해 떠나는 게 인생의 나그넷길이다. 그러나 빛은 짧고 어둠은 길게 허무의 그림자처럼 누워 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빛과 그림자는 타는 목마름으로 외로움의 터널에 갇혀 헐떡이는 호흡처럼 더러는 흔들리고 더러는 방황하며 철이 든다.”

1980년대 베스트셀러 〈사랑하며 용서하며〉로 필명을 드날렸던 향봉 스님이 우리 앞에 다시금 ‘산골 노승의 글쓰기’를 내놓았다.

향봉 스님은 잊힌 스님이다. 젊은 시절 한때, 세상 무서울 게 없던 시절도 있었다. 불교계 권력의 실세 역할도 해보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뒤늦게 철이 들어’ 마흔 무렵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15년간 인도와 네팔, 티베트, 중국을 떠돌며 구도행을 이어갔다. 이후 돌아와 20년째 익산 미륵산 사자암에 머무르며,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하며 산다. 그렇게 70대 중반의 노승이 됐다.

사자암 20년 주석 중인 ‘산골 노승’
향봉 스님 전하는 ‘사유의 궤적’들
담백하며 맛깔스런 문장에 매료돼
흔치 않은 글맛에 가슴이 따뜻해져

향봉 스님의 글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담백하지만 맛깔스럽다. 유려하지는 않지만 깊은 울림이 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울컥해진다. 유쾌하게 이어지는 문장을 따라가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다가도, 어느새 가슴이 먹먹하고 절절해진다. ‘눈물방울 두어 방울’ 적시지 않고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다.



향봉 스님은… 익산 미륵산 사자암 주지. 상좌도 공양주도 없이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한다. 백양사로 출가했고, 해인사 선방을 거쳐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부사장을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실세’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면에 1973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으로서, 수필집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6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작아지는 아이〉, 〈무엇이 이 외로움을 이기게 하는가〉, 〈일체유심조〉, 〈선문답〉 등 20여 권을 펴냈다. 20년째 사자암에 머무르며 한가로운 노승으로서 평화와 자유 누리며 살고 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흔하지 않은 글맛이다. 오랜만에 눈이 맑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진다. 스님이 겪어온 삶의 역정과 치열한 구도기 속에서, 진리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자유인의 삶’이 드러난다. 산골 노승 향봉 스님은 말한다.

“무엇이든 나누면 기쁘고 덜어내면 가뿐하다.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다.”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함의 여유와 당당함의 결기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진정한 자유인의 경지를 엿볼 수 있다.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은 향봉 스님의 ‘구도기’이자 ‘깨달음의 기록’이다. 1장은 젊은 날의 자화상, 2장은 산골 사자암의 일상, 3장은 치열한 구도행의 흔적, 4장은 확철하게 깨친 진리의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향봉 스님이 이끄는 대로 웃다가 울다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한층 성장한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게 된다.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된다.

“나는 누구이고, 이 세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직 답을 섣불리 말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을 곁에 두고 오래도록 곱씹다 보면 답은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별것 아닌 것들의 소소한 행복이 나를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한다. 산이 쩡쩡 울릴 만큼 바위벽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여전(旅錢) 한 닢 마련 없이도 어디론지 떠나고 싶다.

남은 미역국에 밥 말아 먹으니 세상이 배 안에 담겨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 누군가 법당의 부처님 앞에 사과 한 알을 놓고 가, 그 사과로 후식까지 즐기고 있으니 이만하면 산골 늙은이의 화려한 점심을 마친 셈이다. 75p

어떤 사상과 철학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간다. 그러므로 우리네 삶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빛과 어둠이 뒤엉키며 종교의 신앙마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열 명의 애인이 있어도 채울 수 없고 주머니가 빵빵해도 허기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말 일이다. 218p

주목! 신간 학술서

선 전통 대한 도발적 문제제기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운주사 / 4만5000원

〈새로 보는 선불교〉는 프랑스 출신 불교학자인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 컬럼비아대 교수)의 연구 저작을 정천구 백성욱연구원 이사장이 번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불교는 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佛)을 종지로 내세우며 공안 또는 화두를 통해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선 전통은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선의 특징이고 본질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선 전통은 허구이며 환상이라고 보고, 그런 선 전통은 해체되어야 한다고까지 역설한다.

저자는 선 전통에 관한 기존의 관념을 해체하고 선이 어떻게 하나의 전통으로 형성되는지를 새롭게 검토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취한다.

그는 전통적으로 수행과 깨달음을 강조한 선에서 간과하거나 배제해 왔던 여러 상징(물)들, 즉 유물과 미라, 도상, 의례, 꿈, 성과 여성, 계율의 위반 등에 주목했으며, 선의 주변부에서 활동하며 선 전통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경계적 인물들도 중요하게 다룬다. 이렇게 해서 ‘순수 선’은 이념적으로 구축된 것일 뿐임을, 실제로는 선이 다른 문화적 요소들과 정치 권력, 민간 종교나 토착 신앙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통을 형성한 일종의 ‘혼종’임을 밝힌다.

이 책은 새로운 연구 방법이나 접근 방법을 제시해 선불교를 더 폭넓게 다각도로 보아야 함을 일깨워줌으로써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 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변증법적으로 왕복하면서 하나의 전통을 형성하므로 그 변증법적 긴장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성민 기자

인도사상 4000년 역사 한 권에



인도사상사
존 M. 콜러 지음
허우성 옮김
운주사 / 5만5000원

불교와 동양철학을 탐구해온 저자가 오랜 역사를 지닌 인도철학과 종교, 사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서술한 〈인도사상사〉는 장구한 세월 인도인들의 삶 속에 스민 역사, 문화, 종교, 철학, 영성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뼈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인도사상사〉에서 깊고 광대한 인도의 역사 속에서 4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어져온 인도인들과의 질문과 대답 그리고 추구하는 삶의 지혜와 철학들을 찾아내 이를 정리·분류, 인도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총 17장으로 구성된 〈인도사상사〉는 서론에서 인도에 대한 이미지의 다양성과 변화, 연속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인더스 문명과 리그베다 검토를 시작으로 자아와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서술한다. 이어 새로운 사상운동인 자이나교와 불교의 역사적 성립과정과 사유, 불교 공동체인 상가의 성립에서 인도사상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마지막에는 근대 이후 서구의 등장과 이에 대한 인도의 대응을 서술하며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들 예컨대 람 한 모이, 다야난다, 간디, 오르빈도 등 인물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인도가 심원하고 풍부한 인도사상을 품고 발전시키는 한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낙관하며 맺는다.

인도 전통 내의 위대한 이념을 탐구하는 일은 신나는 지적 모험이면서도 이는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의 사유와 행동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게 하므로 극히 실천적 모험이기도 하다.

임은호 기자

불교와 유교를 아우르다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철학
우익지욱 저·최세창 강설
운주사 / 2만7000원

명말 4대 고승으로 추앙받는 우익지욱 선사.

그의 저서 〈주역선해〉는 그가 스님임에도 단순히 불교적 관점에서 〈주역〉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주역〉과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치 않고 양자를 융합 회통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철학〉은 〈주역선해〉를 ‘우환의식’과 ‘회통 융화’라는 키워드로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주역철학의 핵심인 〈계사전〉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강설을 달아 그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재해석했다.

제1부에는 〈주역선해〉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이 담겼다. 먼저 불교 입장에서 〈주역선해〉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으로서 명나라 말의 혼란상과 아울러 삼교 융화와 융합, 통일의 분위기를 소개하고 저자인 지욱선사의 생애를 서술하고 있다.

제2부는 〈계사전〉에 대한 온전한 번역과 상세한 주석, 그리고 각 원문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강설로 구성됐다.

이 책은 〈주역선해〉가 종래의 호교론이나 불교우위론을 주장하는 역대의 저술들과는 달리 〈주역〉을 중심에 놓고 선해함으로써 〈주역〉과의 ‘회통 내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주역선해〉가 불교나 유교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치 않고 오히려 이를 뛰어넘어 〈주역〉이 보여주는 ‘우환의식’과 불교에서의 ‘보살도’를 회통시키고 융화하는 전범을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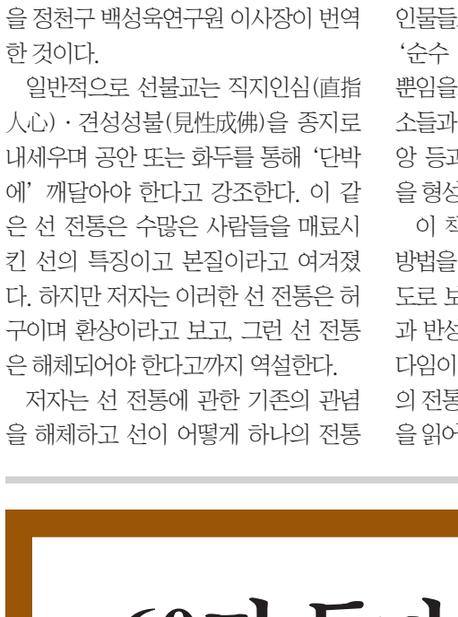
임은호 기자

60만 독자의 가슴을 울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후
40년 만의 베스트셀러!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같은 맛,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스님의 글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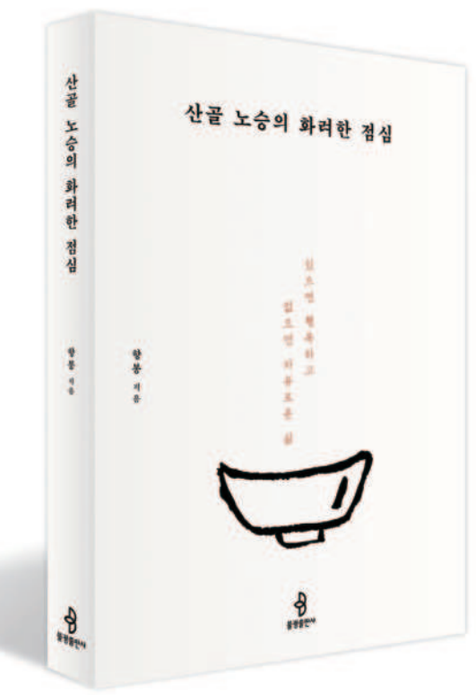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종교분야 베스트셀러 1위!

1980년대 법정 스님, 오현 스님과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며』로
필명을 드날렸던 향봉 스님이 우리 앞에 다시금 ‘산골 노승의 글쓰기’를 내놓았다.
유쾌하게 이어지는 문장을 따라가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다가도 어느새 가슴이 먹먹하고 절절해진다.
‘눈물방울 두어 방울’ 적시지 않고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다.
스님이 겪어온 삶의 역정과 치열한 구도기 속에서 진리와 한몸이 되어 살아가는 ‘자유인의 삶’이 드러난다.



향봉 스님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緣起) 법칙과 무아(無我), 중도 사상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적었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글솜씨는 녹슬지 않았고, 유머도 많다.
- 조선일보 김한수 기자

실타래 풀리듯 문장이 자연스러워 아직도 그 여운이 깊게 남는다. 눈물과 폭소를 오가며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해 하루 만에 완독한 책!
- ★★★★★ 알라딘 독자 아름다운사람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로운 삶
향봉 지음 | 248쪽 | 값 17,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1~6/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자우	사유수
2	요가 디피카(아헹가 요가 시리즈1)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4	자비도량참법	운허역/선나원	운주사
5	요가 수행 디피카(아헹가 요가 시리즈5)	아헹가조니/베반스 다달라스 에이브람스	선요가
6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향봉	불광출판사
7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개정판)	김윤수 지음	한산암
8	초발심자경문	탄허선사 강의	불서보급사
9	허브 마더팅크처:자연으로 치유하는 동종요법 판허브요법	유이 토라코	햇무리
10	자비수참	편집부	부다가야

책세상

종정예하 직접 밝힌 '평생 일꾼'인 이유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
성파 스님 · 김한수 지음
샘터 / 2만원

전통문화 선양해온 정통 수좌
스스로를 '초보'라고 칭하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격려
"인생에 '다했다'는 건 없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오늘 특별한 법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양산 통도사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로써 법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지난해 3월 서울 조계사에서 종단의 신성과 법통을 상징하는 자리에 오르면서 내린 첫 법어의 시작이다. 스님은 어려운 화두나 선사의 어록 대신 찬란한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복원하는 데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처럼 성파 스님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내보인 것은 스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봉암사 태고선원 등에서 26안거를 성만한 정통 수좌이면서도 스님은 늘 전통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2000년 4월 통도사 서운암에 무위선원을 개원한 이래 스님은 선농일치 정신을 선양하고 통도사에 차밭을 재건했으며, 감나무밭을 일구고 야생화를 심었다. 20여 년간 직접 도자기를 굽고 16만 도자대장경을 조성해 장경각에 봉안하기도 했다. 또 천연염색과 새로운 옻칠 기법을 개발하는 등 전통문화 계승에 늘 앞장섰다.

"일이 공부고 공부가 일"이라는 스님의 짧은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스님의 삶과 삶을 대하는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 이 표현 자체가 곧 책 이름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로 탄생했다. 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선일보 김한수 종교전문기자가 성파 스님을 만나 대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설하진 않았지만 스님이 들려주는 40년간의 삶 이야기에서 왜 공부하고 일해야 하는지, 왜 일이 곧 공부이고 공부가 곧 일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담겼다.

스님은 책에서 "나는 출가 이후로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다.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 늘 행복하다"고 말한다. 일이 공부이고 공부가 일인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는 의미에서 책 제목도 성파 스님이 직접 지었다.

"나는 통도사에 내 집을 갖다 놓은 후로 계속 나날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다했다'는 것은 없어요. 지금도 나는 초보라. 지금도 모르는 것뿐이고,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할 뿐입니다. 아직 안 본 것도 많고, 안 들은 것도 많고, 나날이 새로운 것들인데요." –'마음이 무엇인가' 중에서

성파 스님은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에 걸쳐 한 가지 이루기도 어려운 일들을 연달아 개척해왔다. 스님은 스스로 "나는 500살 인생을 산다"고 말한다. 수행에서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 즉 단번에 경지로 뛰어넘는 것처럼 다른 일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다양한 장르에 무모하리만치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던 비결로는 '콩깍지론'을 이야기한다.

꽃이 떨어지면 바로 작은 열매가 달리는 다른 과일과 달리, 콩은 꽃이 떨어지고 달리는 콩깍지 속에 콩알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콩알이 생기고 커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할 때 주춤하거나 겁먹지 말고 우선 계획을 짜놓고 안을 채우라는 말이다.

"무소유를 해야 훌륭한 스님이 된다. 그런 말은 내가 일찍부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정반대라. 나는 욕심이 대적이다. 무소유와는 정반대라. 욕심이 대적이다. 큰 대(大) 자, 도적 적(賊) 자. 큰 도둑놈이라. (…) 나는 이루고자 하는 거라. 소유하고자 하는 거라. 무소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자 하는 거라. 내 이 생이 있는 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가 소유라. 안 그러면 눈 감아버리지, 왜 밥을 먹고 약을 먹나. 그래서 나는 소유가 엄청 나. 남의 것도 내 거라." –'무소유? 나는 욕심이 천하의 대적' 중에서

스님은 '욕심이 대적' '무소유가 아니라 삼라만상이 내 소유'라고 역설적으로 말하지만 스님의 욕심은 정신적인 것이다. 전통문화를 되살리려는 욕심, 국민이 사찰에서 전통문화와 자연을 마음껏 즐기며 안식을 얻기 바라는 욕심이다. 스님이 해온 일은 과거에 사찰을 중심으로 이어졌으나 근대화 이후 사찰에서도, 민간에서도 사라진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출가자로서 도자기, 천연 염색, 옻칠 민화, 된장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외도한다는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스님은 그 일들을 행복하게 수행해왔다.

"종교인들이 보면, 내려다보면서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따라오라는 것도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일한다' 그뿐이라."

스님의 말은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권유로 들린다. 모두가 스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일과 공부를 하나로 여기는 자세로 산다면 행복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스님이 시대에 건네는 화두이자 권유이며 응원이고 격려다.

초기불전 근거한 '반야심경 공부법'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김사철 · 황경환 지음
김영사
1만5800원



▲저자 **황경환**은…불법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불교 연구가이자 사업가이다. 동국대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과를 수료하였고, 현재 동국대 명예철학박사이다. 1977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울산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이며 21세기 불교포럼 공동이사장이다. 저서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 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진언은
부처님 깨달음 과정 전한 一句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 읽고 독송했을 경전 〈반야심경〉. 대승불교의 깊은 진리를 260자도 안 되는 분량으로 요약 정리해 놓았기에 한국 불교의 법회에서는 한문이든 한글이든 〈반야심경〉을 꼭 봉독한다.

그렇기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제아제 바라아제'와 같은 경구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경구가 가진 의미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자와 사업가 출신인 두 명의 재야 불교연구자가 〈반야심경〉 '공부법'에 대하여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김사철과 황경환이 저술한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는 대다수 해설서와 달리,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초기 불전에 근거하여 붓다의 명상 과정에 맞추어 실증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난해한 개념들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존의 〈반야심경〉 해설서가 대개 '공(空)' '반야바라밀다' 등 심오한 개념들에 대한 관념적인 설명에 치우쳐, 불교를 매우 난해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으로 소외시킨 면이 다소 있었던 데 비해, 이 책은 〈반야심경〉의 주제가 다름 아닌 '팔정도의 완성을 통한 지혜의 완성'이라고 단언하며, 붓다의 심오한 가르침을 '팔정도'라고 하는 실천의 영역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붓다가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은 진리는 고 · 집 · 멸 · 도 사성제(四聖諦)로 이 중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 즉 고통으로부터 열반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팔정도라 한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불교 교리의 핵심이자 전부이므로, 대승이든 소승이든, 어떠한 종파라도 그 가르침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단순한 명제가 이 책의 출발점이다.

바른 생활(계), 바른 명상(정), 바른 통찰(혜)을 끊임없이 닦아 팔정도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완성, 즉 반야바라밀다임을 설명한 것이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이며,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초기 경전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게 저자들이 강조하는 지점이다.

그렇기에 〈반야심경〉 말미의 다섯 만트라에 대한 저자들의 해석도 매우 독창적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반야심경〉 마지막의 진언은 붓다의 가르침인 고귀한 여덟 겹의 길(팔정도)'에 대한 실천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라는 것이다.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 스바하(Gategate, pāragate, pārasaṁgate, bodhi, svāh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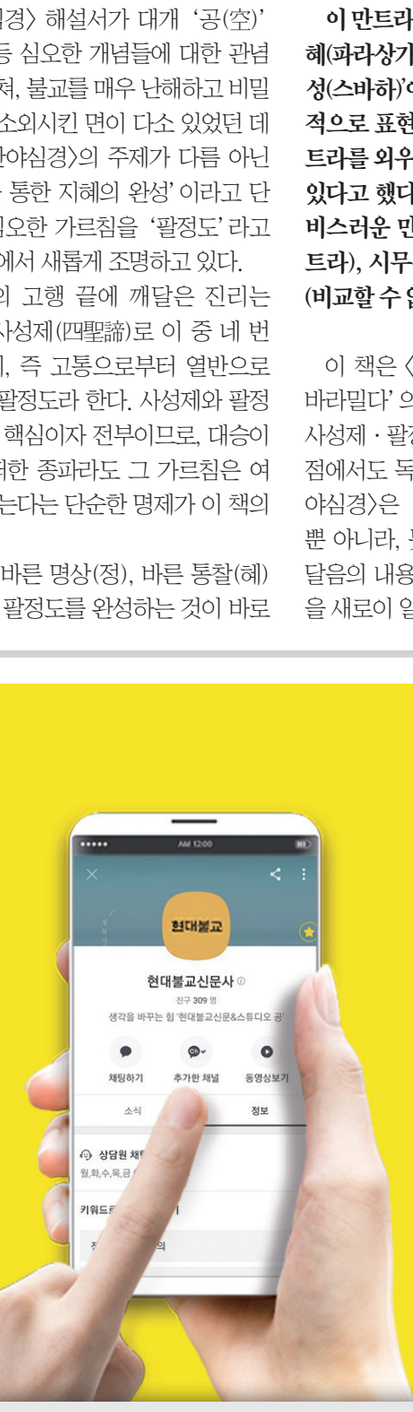
이 만트라는 '계(가테가테) → 정(파라가테) → 혜(파라상가테) → 해탈(보디) → 해탈지견의 완성(스바하)'이라는 불교 수행의 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보살은 누구든 이 만트라를 외우고 실천하면 지혜의 완성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 만트라를 '시대신주(신비스러운 만트라), 시대명주(위대한 밝음의 만트라), 시무상주(위 없는 만트라), 시무등등주(비교할 수 없는 만트라)'라고 찬미한 것이다.

이 책은 〈반야심경〉의 주제인 '공'과 '반야바라밀다'의 의미를 초기 경전의 핵심 교리인 사성제 · 팔정도와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이러한 참신한 시도로, 〈반야심경〉은 '공' 사상의 핵심을 담은 교학서일 뿐 아니라, 붓다의 명상 과정과 명상을 통한 깨달음의 내용을 밝혀 놓은 훌륭한 수행지침서임을 새로이 일깨워주고 있다. 신성민 기자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3 아이슈 무쿠암 행

▶한줄 요약
지안 금어의 제자가 스리나가르에 있다는 소문이 돌고 그 소문 속의 인물이 이석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이 기자 일행은 어렵게 교통편을 구해 스리나가르로 향한다.



“지안 금어 아들이 스리나가르에 있다?”

1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리나가르로 떠나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돌아앉으니 송 서화가가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나는 송 서화가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스리나가르로 출발하자고 했다.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우회해서 걸어서라도 가야지요.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보면….

짐을 꾸리고 있는데 오오스마 기자가 왔다.

-벌써 떠나시게요?

-이석원도 그렇고 먼저 그곳으로라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지안 금어의 제자를 스리나가르에서 보았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확실한 건 아닌데 신문사 출입하는 어떤 이가 그가 아닐까 하더군요.

-어디서 보았다고 하던가요?

-스리나가르 거리에서라는데 어딘가로 바삐 가고 있더랍니다. 아는 체라도 하려고 했는데 금방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혼자라고 하던가요?

미순이라는 공양주의 딸을 생각하며 물었다.

-혼자였다고 하더군요.

그럼 미순이란 여자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어쨌든 그가 지금 스리나가르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스리나가르로 갔다는 말은 맞다. 그를 찾을 수 없고 보면 성물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다.

-우리도 떠나지요?

내가 송 서화가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정말 출발하시게?

오오스마 기자가 내게 물었다.

-네.

-하긴 버스가 없으면 돈을 모아 합승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잖아도 어제 알아보았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려고요.

-저도 가겠습니다.

오오스마 기자는 자신이 함께 있어야 길 안내가 될 것이라며 신문사에서도 허락받았다고 했다. 바라던 바였다. 사실 성물이 있다는 정확한 위치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다. 오오스마 기자는 그곳을 취재한 적이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잘됐다 싶었다. 뒤늦게 심 작가에게서 연락이 왔다. 며칠 더 묵을 줄 알았는데 자신은 동행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숙소의 방세를 계산했다. 뉴델리 생활도 이것으로 끝이었다. 잠시 잠깐 만끽했던 자유로움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꼭 순결을 열망하던 자가 작부의 방을 나설 때의 심정이 이러할까 싶었다.

-사원의 그 엄격하고 절제된 규칙 생활에서 그나마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사원이라니요?

송 서화가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물었다.

-절 말입니다.

내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스님?

그가 말뜻을 알아듣고 하하하고 웃었다.

-머리 기른 스님을 보았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한때요. 한 몇 년 스님 생활했었지요. 본시 스님 묵기가 아니었는지…. 지금도 절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봉은사 말입니다. 그곳에서 방을 하나 내주더군요. 벌써 한 십 년 되어 갑니다.

-그랬군요.

-절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항상 발뒤꿈치를 들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 놔서 말입니다. 인간의 복수심은 그렇게 생긴 거 같아요. 가장 신성해야 할 자리를 한 번씩은 박차고 싶으니 말입니다. 신심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르지만, 이곳 문물을 그런 식으로나마 접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을 얻을 때 좀 더 깨끗하고 넓은 방으로 가자고 했는데 굳이 그럴 것 뭐 있느냐던 그가 생각났다.

-돌아가면 주위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겠습니다.

-그 양반들이야 상상도 못 할 일이지요. 경건함만 묻어나는 분위기에 짓눌리다가 자고 싶으면 자고 거리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잠시나마 타국에서 그러다 보니 옥죄었던 신심이 많이 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묵해 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릭샤는 무리고 택시를 대절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버스를 이용하는 데까지 이용하기로 했다. 우회하여 버스로 스리나가르 근처까지만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리나가르 턱밑에서 택시로 갈 수 있을 것이었다.

델리 중앙역 부근으로 나갔다. 우리가 묵었던 뉴델리 뒷골목보다 중앙역 부근은 더 지저분해 보인다. 신발 고쳐 주는 사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70년대 우리의 시골장에 가면 신발을 땜질해 주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래 우리에게도 저런 세월이 있었지. 아니 80년대까지도 구두를 수선해 신던 우리가 아닌가. 구걸하는 어린아이들, 이빨을 뽑아주는 사람, 길거리 이발사, 옷을 수선하는 사람, 우산 고쳐 주는 사람…. 더러운 옷을 걸친 사람도 있고 깡마른 병자도 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늙은이들….

오오스마 기자는 교통편을 찾느라 마침 곁에 없었는데 송 서화가가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낮게 뇌까렸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스님들은 의처증 환자들인지 모릅니다.

-네?



엉뚱한 말에 내가 화들짝 쳐다보자 그가 웃었다.

-의심병 말입니다. 의심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견성은 바로 눈앞에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웃었다.

-하하하 그렇군요.

-어떤 스님이 선을 통해 화두를 붙들어 의문을 풀었어요. 스승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깨치고 보니 뭐 도가 별것 아니거든요. 우리 생활 자체가 바로 도거든요. 그래 하산을 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몇 년 여편네와 살다 보니 도력이 바닥나 여편네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할 때의 의심병이 도진 거지요.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아내 뒤를 따랐는데 도중에 남정네와 시시덕거리는 겁니다. 그래 화가 나 여편네를 끌고 와 죽이고 말았어요.

-저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편네와 시시덕거리는 남정네는 여편네의 남동생이더랍니다. 수도를 하는 사이 처남이 많이 변했던 겁니다. 오해한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저승으로 가니 염라대왕이 묻더랍니다. ‘이놈 왜 아내를 죽였느냐?’ ‘오햅니다.’ ‘오해? 내가 네놈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염라대왕은 그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오해를 풀기 위해 그는 또 출가해 중질을 했습니다. 더 치열하게 공부했지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해만큼 더러운 것이 없더랍니다. 누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 꼭 맛을 봐야 이해가 되더라는 거지요. 먹어보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정확히 그 맛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제야 부처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겠더랍니다. 그는 세상을 위해 거리로 나갔지요.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제도하다 보니 사람들 자체가 불성이더랍니다. 즉 부처더라는 말이지요. 부처가 그들 안에서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들이 잠시 대승심을 잃었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다시 염라대왕에게 갔지요. 염라대왕이 물었어요. ‘오해를 풀었는가?’ 그러자 그가 염라대왕의 목을 칼로 치면서 말했어요. ‘오해는 그대가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가 말을 끝냈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이곳으로 와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모두 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누가 구해 주나? 그렇게 물어보면 결국 나밖에 없더라는 말이지요. 불법이 무서운 것은 저들을 개념 없이 도울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석원이 말입니다. 왜 스승을 아니 아버지를 죽였느냐고 하니까 미물에게 진리의 풍광을 가르친 죄라고 했다지요? 그 말을 밤새워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들이 스스로 부처가 자신 속에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구할 보살은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석원이란 그 사람, 제대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내 말에 송 서화가의 입가에 웃음이 물렸다.

-본인은 부정한다고 하지만 그가 정말 난타의 환생자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지요.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흔들었다. 나는 새삼스럽게 송 서화가를 쳐다보았다. 어쩌다 고문서를 감정하는 직업을 가졌을까 했는데 스님 생활을 했다고 하니….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라 그저 과묵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했는데 예사로 볼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 같이 지내면서도 별 정이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깨침에 대한 이해력이 정확한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서인지 몰랐다. 차편을 알아보겠다고 간 오오스마 기자의 모습이 보였다.

-다람살라까지 갈 차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갈아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스리나가르에 갈 수만 있다면 가야지요.

2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고개를 들어보니 차는 어느 야산 기슭을 달리고 있다.

-다람살라에 티베트의 법왕이라고 하는 달라이라마가 있다고 하던데요?

송 서화가가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맞습니다. 다람살라에 달라이라마가 건너오면서 티베트의 망명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티베트와 가장 가깝게 여겨지기도 하는 곳이니까 말입니다. 더욱이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가 세워지면서 서방 세계에 티베트의 현실이 알려지게도 되었고 티베트의 불교가 더 널리 알려지게도 되었지요.

-좀 더 가깝게 가는 길도 있다고 하던데…?

송 서화가가 물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좋습니다. 조금 빨리 가려고 꾀를 부리다 보면 낭패당하기는 십상이거든요. 다람살라는 달라이라마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행객이 아주 많습니다. 도중에 차가 고장 나도 다른 차로 재빨리 편승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곳 사람들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 통일성이 없어요. 이 사람의 말이 틀리고 저 사람의 말이 틀립니다.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보면 엉뚱한 곳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도 가보지 않을 길이 많다는 증거이지요.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저 아는 길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송 서화가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 또한 그제야 다람살라로 코스를 잡은 오오스마 기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차는 쉴 사이 없이 달렸다. 멀리 계곡에 피어 있는 들꽃들, 녹색의 숲, 뜨거운 한낮을 식히려는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호수가 보이고 잠시 후 빛기둥이 섰다. 인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호수들. 달 호수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인도인들은 달을 좋아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햇볕이 따갑다.〈계속〉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그레이블랙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⑫ 단오문화 (下)



▶한줄 요약
시시때때로 일어나 마음을 들끓게 하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을 돌아보며,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아가자는 의미가 단옷날 소금에 담겨 있다.

마음 속 화기 잠재우는 단옷날 소금

스님들의 소풍

노스님들이 들려주는 단오문화는 다채롭기 그지없다. 예전에는 단오가 스님들의 소풍날이기도 했다. 설 · 추석을 제외하면 명절을 금하여 '단오'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찰도 있었지만, 대개 출가수행자들도 삶에 기반을 둔 자연 세시(歲時)의 변화를 함께 즐겼다. 근현대로 접어들면서 단오에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아 사찰에 재가 없으니, 이날은 수행자 중심의 명절을 보낼 수 있었던 셈이다.

스님들의 소풍은 곧 산행을 뜻한다. 여름이 시작되는 단옷날 마을에서 씨름 · 그네 등의 놀이를 하듯이, 더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스님들도 산에 오르며 심신을 단련하는 문화가 있었다. 특히 영남지역 사찰의 단오 풍습이 다채로워, 노스님들은 "단옷날엔 무조건 산에 올랐다", "의무적이다시피 쑥을 캐서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회상하였다.

단오 전이면 강원 · 선방 구분 없이 모든 대중이 나와서 쑥을 뜯는 즐거운 울력이 이어졌다. 종일 씻어 삶은 쑥을 멥쌀과 함께 방앗간에서 갈아오면 직접 쑥떡을 만들었다. 오래 찧을수록 쫄깃하게 맛이 좋으니, 순번을 정해서 많은 양을 돌아가며 찧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큰방에 여러 개의 원을 그리며 둘러앉아 손바닥으로 두드려 얇게 빚어 쪄내면, 아무것도 넣지 않은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다.

대중 수에 따라 쑥떡을 공평하게 분배받아 산에 올랐다. 1970년대 해인사 약수암에서는 60여 명의 대중 각자에게 15개 정도씩 쑥떡이 돌아갔는데, 그날은 떡뿐만 아니라 원주스님의 지휘 아래 김밥이나 주먹밥을 싸고 사이다와 오이까지 하나씩 챙길 수 있었다. 그렇게 든든히 걸망에 매고 산행에 나섰으니,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의 더없이 즐거운 소풍이었던 셈이다.

단오는 사월 보름의 하안거 결제가 시작된 지 20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라, 선방마다 쑥떡은 즐거운 절식이 되었다. 어느 선방에서는 함께 만든 쑥떡을 선방 뒤에 줄을 매어 채반마다 가득 올려두곤 하였다. 대중의 뜻에 따라, 각자 나누지 않고 오가며 자유롭게 먹도록 한 것이다. 쑥떡은 약간 꾸덕꾸덕하게 말라도 맛이 있어 이삼일은 두고 먹을 수 있었다.

선방 · 본채 스님들이 단옷날 솥단지를 들고 함께 개울가로 나가기도 했다. 돌을 괴어 아궁이를 만들고 양은솥을 걸어 불을 지핀 뒤, 수제비를 끓이거나 감자전 · 호박전을 구워 먹으며 화기애애한 한나절을 보내는 것이다. 평시 어른 스님들 몰래 개울가에서 나뭇가지로 불을 때어 군것질하던 학인 스님들의 장난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날이었다.

개심사 · 개운사 등에서는 단옷날 뒷산에 그네를 매어 타는가 하면, 봉녕사 학인들은 이날 반마다 화전을 부쳐 어른 스님들의 평에 따라 상을 받기도 했다. 사찰마다 스님들끼리, 또는 신도들과 함께 갖가지 종목으로 활기찬 체육대회를 펼친 역사 또한 깊다. 설이나 해제일에 성불도놀이 · 윷놀이가 스님들의 실내 놀이문화라면, 단오야말로 수행자들의 활달하고 다채로운 여가문화가 전승되었던 명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금으로 화기를 누르다

"이 소금으로 삼재팔난을 물리치고, 마음속 화기(火氣)를 잠재우게 하소서." 단옷날 사찰에서 신도들에게 소금을 나눠주며 외는 스님의 기원이다. 단오에는 소금이 중요한 상징물로 쓰인다. 양기가 강하면 불기운을 머금어 화재와 가뭄이 발생하기 쉬우니, 양기 충천한 단옷날 부족한 음기를 보충하고 화기를 억누르기 위한 처방이 바로 소금이다.

소금을 화재 예방으로 쓰는 풍습은 우리나라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부정과 액을 물리치는 상징성을 지녀, 주로 정화의 의미로 쓰인다. 이와 함께 우리의 경우 소금이 곧 바다를 나타낸다고 보아, 물로써 불을 막는 뜻을 취한 것이다. 이를테면 풍수적으로 화산(火山)에 해당하는 산이 있으면 불이 날 수 있으니, 소금이나 간물단지를 묻어 이를 제어하게 된다.

이러한 '소금 처방'이 마을에서는 주로 공동체의 평안을 바라는 정초 동제(洞祭)를 지낼 때 행해졌다면, 사찰에서는 단옷날의 의식으로 전승되었다. 연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단오의 특성을 중요하게 여겨, 이를 다스리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특히 사찰의 역사를 보면 목조건물의 특성상 화재로 전각이 소실된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막기 위한 절실함이 의례 전승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찰의 단옷날 처방으로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 소금 또는 소금단지를 법당 마당에 묻는 것이다. 특별히 인근에 화산형국의 산이 있거나 화재가 빈번한 역사를 지녔을 경우, 더욱 적극적인 처방이 따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인사에는 해마다 단옷날이면 사찰 경내는 물론, 남산제일봉에 올라 소금을 묻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해인사 단옷날 소금 묻기 / 남산제일봉에 소금을 묻는 모습. ©서종원

화마 침범 막기 위한 간절함에
전각에 소금단지 올린 사찰도
창건설화 관련 용왕재 올리며
한 해 무사 안녕 하기원하기도



통도사 단오용왕재 / 용왕재를 지낸 뒤 소금을 나눠주는 모습.

1876년 퇴암 스님이 해인사에 불이 난 역사를 기록한 〈해인사실화적(海印寺失火蹟)〉에 따르면, 1695년부터 1871년까지 일곱 차례나 큰 화재가 있었다. 따라서 엄중한 방비를 세우는 한편으로, 민간의 풍습을 수용해 소금 묻기 의식이 시작된 것이다. 화마(火魔)로부터 팔만대장경과 성보를 지키고자 본 · 말사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소중한 행사라 하겠다.

이날 이른 아침 불공을 올린 뒤, 경내 곳곳의 홈이 파인 염주석(鹽柱石)마다 소금을 넣고 물을 붓는다. 이어 본 · 말사 스님들은 각자의 자락에서 남산제일봉에 오르고, 한편에서는 신도들이 사찰 외곽인 용탑 · 원당암 · 야간통제소 입구에 소금을 묻기 시작한다. 경내에서 외곽으로, 외곽에서 산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불기운을 꺾는 의식이 이어지는 것이다.

남산제일봉은 해인사가 자리한 가야산과 마주하고 있다. 그 형상이 불꽃처럼 날카로워 화산에 해당하기에 소금으로 화기를 제압하는 풍수비보(風水裨補)를 행하는 것이다. 해발 1천 미터가 넘는 산길을 오르는 것도 불기운을 잠재우는 과정이다. 양의 기운이 충만한 단옷날 수많은 출가수행자가 산을 밟아 오르니 어찌 화마를 누르지 못하겠는가.

정상에 오른 사부대중은, 불공을 올리고 동서남북과 중앙의 오방(五方)에 각각 소금단지를 묻고 물을 붓기 시작한다. 방위마다 파놓은 구덩이에 소금단지를 넣고 물을 부은 다음, 뚜껑과 흙을 차례로 덮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위 사이에도 한지로 싼 소금을 깨워 넣는다.

특히 소금을 땅에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물을 부어 소금물을 만드는 발상이 신선하다. 소금에 물을 붓는 것은 간물(바닷물)을 만드는 것으로, 화재를 막는 민간의 오랜 비책이었다. 물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한량없는 바다를 나타내고자, 간물을 만들어 썼던 옛사람들의 지혜가 놀랍다. 이에 대해 민속학자 허용호는 "단옷날 소금 묻기를 하는 해인사 스님들은 산꼭대기에 바다를 묻는 분들"이라 표현하였다.

화마로부터 가람을 지키는 용

소금이 바다를 상징하는 데 쓰였다면, 용(龍)은 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섬김의 대상이 되어왔다. 용이 바다의 우두머리이자 비를 내리는 능력을 지녔다고 여겨, 용왕제는 풍년을 비는 정초에 주로 행한다. 사찰에서도 대보름날 주민들과 함께 강가 · 바닷가에 나가서 방생을 겸해 용왕제를 올리는 곳이 많다. 대보름 불교 용왕제는 생명을 살리는 자비심과 함께, 화엄성중인 용왕을 섬겨 공동체의 염원을 기원하는 의미가 두루 담겨 있다.

그런데 실제 용왕의 능력이 가장 절실한 시점은 단오이다. "단오에 비 오면 농사 다 짓는다", "오월 장마는 꿔다 해도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모내기를 끝낸 단오 무렵은 비가 간절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옷날 비를 내리고 불기운을 누르기 위한 용의 역할이 부각되어, 법성포 단오용왕제를 비롯해 곳곳에서 단오축제로 용왕제를 겸하는 곳이 많다.

이에 비해 사찰에서 단옷날 용왕을 섬기는 사례는 드문데, 통도사의 경우 이날 소금 올리기와 결합된 용왕재(龍王齋)가 전승되고 있다. 그 내력을 보면, 통도사 대광명전은 1756년에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2년 뒤 중건하면서, 내부 천장 아래 항화마진언(抗火魔眞言)을 적어 화마의 침범을 막기 위한 간절함을 담았다. 이 무렵부터 각 전각에 소금단지를 올리는 의식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 창건설화와 관련된 용왕재를 올리게 된 것이라 한다.

본래 통도사 절터는 큰 연못이었는데, 이곳에 아홉 마리의 약룡(惡龍)이 살면서 비바람을 일으켜 백성을 괴롭혔다. 이에 자장율사가 용을 찾아와 모두 설법으로 교화했는데, 한 마리 용이 그곳에 남아 터를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스님은 연못을 메우고 금강계단을 쌓아 절을 창건하면서, 연못 한 귀퉁이를 남겨 용을 머물게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수호의 아름다운 서약이 담긴 용왕의 거처 구룡지(九龍池)에서, 단옷날 이른 아침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용왕재를 올린다. 불교에서는 가뭄과 장마, 질병과 재해가 있을 때면 법회를 열어, 불보살과 신중을 모시고 국난극복을 모색해온 역사가 깊다. 이는 부처님의 증명 아래, 불법과 공동체를 수호하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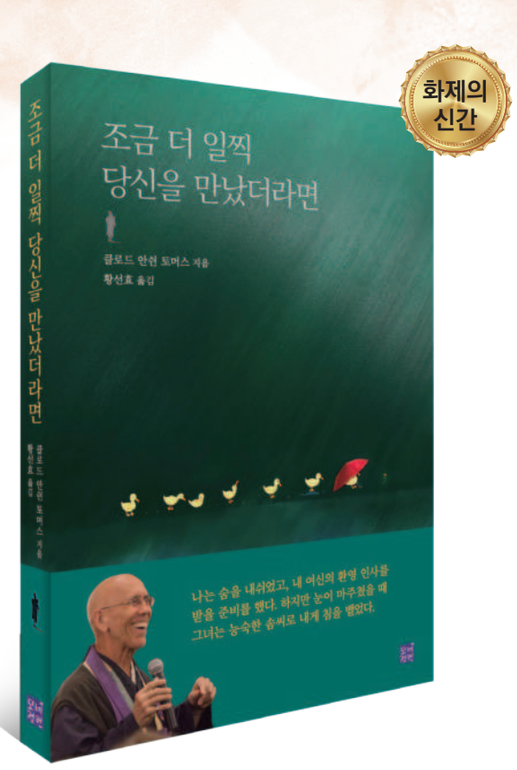
이러한 발원으로 사부대중이 용왕재를 올리고 나면, 대웅전에서부터 공양간까지 전각의 들보 머리에 얹혀있던 60여 개의 소금단지를 모두 새 소금으로 교체하게 된다. 용과 소금은 모두 물로써 불을 이기기 위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스님들은 단옷날 소금 처방이 지닌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며, 의식을 마치고 나면 신도들에게 소금을 나누어준다. 땅속에 묻히고 전각에 얹힌 소금을 물리적인 화재와 재앙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기까지 잠재우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일어나 마음을 들끓게 하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을 돌아보며,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아가자는 의미가 단옷날 소금에 담겨 있다.

'용왕제'와 '소금 묻기'는 마을공동체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이다. 그러나 사찰에서는 사부대중이 함께 삼보를 지키는 종교공동체의 신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튼실한 기반으로 전승되고 있다. 음력을 근간으로 한 전통문화 계승의 교두보로서 불교의 역할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⑫ 사마타의 단계와 풍경 (2)



▶한줄 요약
'아미타3부경'에는 보주의 모습이 언급됐는데 특정 형태에 머물지 않고 부단하게 변화한다고 했다. 이는 나옹선사의 '완주가'에도 잘 설명돼 있다. 그 풍경은 현대의 양자역학과 맞닿는다.

나와 모든 사물은 연결돼 살아간다

사마타 수행과 그것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지난 연재에서 언급했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심-사-희-락'의 초선정으로 가는 과정을 〈관무량수경〉에 기술된 비유와 함께 쉽게 풀이했다. 사마타 수행은 선정 수행 또는 (특정 대상에 집중하기에) 집중 수행으로도 불린다. 사마타 수행을 할 때 펼쳐지는 주요 풍경 2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하자.

'보배 구슬' 보주의 향연

아미타3부경(무량수경 · 아미타경 · 관무량수경)에는 무수한 '보주(보배 구슬)'에 대한 언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보주로 장엄된 땅 · 당(幢) · 누각 · 나무 · 연못 · 동자 · 연화대 등. 중중무진으로 이어지는 묘사 중에 몇 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극락의 땅을 바치고 있는 기둥은 그 면마다 백 가지 보주로 장엄되었고, 알알이 보배 구슬에서는 일천 가지 광명이 빛나고, 한 줄기 광명마다 팔만 사천의 빛줄기가 유리의 땅을 비추어, 마치 억 천의 해가 동시에 뜬 듯, 눈이 부시어 볼 수가 없다."

이외에도 극락나무 꽃송이는 제석천의 보배병과 같은 씨방에서 무수한 보주를 터뜨린다. 극락 누각은 오백 억의 보주로 장엄되었고, 연화대는 오백 억의 미묘한 보배 구슬로 찬란하게 꾸며졌다. 보주에서는 오색 찬연한 빛과 서기(상서로운 기운)가 뿜어져 나온다. 온통 구슬의 향연이다. 미세한 미립자와 같은 구슬들이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간다.

또 우주 공간을 바탕으로 끝도 없이 파도친다. 구슬(또는 보주)의 특징은 결코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부단히 움직인다는 것. 한 시도 쉬지 않고 무상하게 파도친다. 그 변화무쌍한 움직임이 너무나 빨라 의식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 '구슬이 이렇게 파도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만다. 또 구슬에서는 신성한 빛과 상서로운 에너지가 발산된다. 즉, 특정 형태로 머물지 않고 부단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계가 연기(緣起)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고(또는 체득하고) 오도송을 남긴 선사가 있다. 유명한 고려 말기 선지식 나옹 선사(1320~1376)이다.

"신령한 이 구슬, 지극히 영롱하여/ 그 자체는 항하사 세계를 둘러싸 안팎이 비었는데/ 사람마다 푸대 속에 당당히 간직해/ 오며 가며 희롱해도 끝이 없구나/ 혹은 마니보주라 하고 혹은 영주(신령한 구슬)이라 하는데/ 이름과 모양 아무리 많아도 본체는 같다. (중략) 이 마음 구슬 붙잡기 어렵다/ 뚜렷하고 영롱하나 붙잡기 어려움이여/ 모습과 형태 없으면서 형태를 드러내니/ 오고 가는 자취 없어 측량할 수 없다/ 좇아가도 못 따르는데, 느닷없이 찾아온다/ 잠깐 서천에 갔다 순식간에 돌아오고/ 놓으면 허공 되어 품 안에 들어온다/ 거두면 티끌 되어 더 쪼개기 어렵다/ 헤아릴 수 없어라, 찬연한 몸체는 견고하고 단단하다/ 석가모니 그것을 '스스로의 마음 왕(自心王)'이라 부르셨다/ 그 운용은 무궁무진한데 사람들은 부질없이 '스스로의 본체'를 잊고 산다." (필자 번역)

이는 나옹 선사의 '완주가(玩珠歌)'이다. '완주가'라는 제명은 '구슬을 희롱하다' 또는 '구슬을 가지고 놀다'이다. 마치 어린아이의 구슬치기 같은 뉘앙스를 주는 제명인데 그 내용은 깨달음의 풍경을 담고 있다. 제명의 한자 그대로 '구슬을 가지고 논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시가의 내용을 보면 주체가 없고 구슬이 스스로 유희하기에 '유희하는 구슬' 정도로 의역하면 되겠다.

여기서 떠오르는 매우 유사한 제명이 있는데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이다. '유리구슬의 유희'라는 뜻이다. 이는 헤르만 헤세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소설 작품이다. 이 소설은 헤세의 가장 유명한 장편소설이자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그의 문학 최대 걸작으로 평가된다. 음악 천재인 주인공이 피아노를 치자, 음악이라는 소리가 과거가 되고 이미지가 되어 경계를 넘나든다. 시공을 초월해 변화하는 에너지의 모습으로 소설의 첫머리는 장식된다.

'아미타3부경' 언급되는 '보주' 모습
특정 형태 머물지 않고 부단히 변화
나옹선사 '완주가' 훌륭히 보주 설명
그 풍경들 살피면 양자역학과 맞닿아
내 생각, 감정이 우주 전체 뒤덮으니
긍정으로 내 삶과 우주를 채워내어라

헤세는 〈싯다르타〉라는 붓다의 깨달음의 여정을 조명한 소설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특히 말년의) 시와 소설을 보면, 다분히 명상 체험적인 내용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쪼갤 수 없는 미립자 구슬

나옹 선사의 '완주가'는 내용 전체가 유머와 위트,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넘치고 있다.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우주의 비밀. 그 풍경을 엿본 그는 이를 특유의 혜안(慧眼)으로 풀어내고 있다. 특히 '거두면 티끌 되어 더 쪼개기 어렵다(收則微塵難析開)'라는 부분은 요즘 유행하는 양자역학을 떠올리게 한다.

더 이상은 나눌 수 없는 미립자 중의 미립자. 나옹 선사가 묘사한 구슬의 모습은 미립자의 특성과도 매우 닮아 있다.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를 쪼개면 원소가 되고, 원소를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된다. 한 개의 원소 안에는 수천 개의 원자가 존재한다. 원소를 쪼개면 그 안에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을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구름이 있다. 전자구름은 파동(波動 wave)을 말한다. 원자핵 밖에는 전자와 소립자(쿼크라는 경입자)가 있다.

양자역학(量子力學, Quantum mechanics)이란 원자와 이를 이루는 미립자 등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현대물리학의 한 분야이지만, 거시 세계의 바탕을 이루므로 결국 미시와 거시 구분 없이 존재의 본질적인 현상을 다룬다하겠다. 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 단위로 일컬어진다. 광자는 빛의 단일 양자이며, 이에 따라 '광양자'라고도 부른다. 결국, '빛과 파장'이라는 것이 최소 단위로 남는다. 빛의 알갱이들(보주)과 상서로운 파장(瑞氣)의 향연이다. 이것이 모든 존재하는 사물의 실재(實在)이다.



보배 구슬과 장엄된 노사나불. 〈쌍계사 노사나괘불〉의 부분이다. 1799년, 마본에 채색. 경남 하동 쌍계사 소장.

예전, 수행처에서 한 도반이 "붓다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엄청난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을까요"라고 한 적이 있다. 굳이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붓다는 2500년 전에 통찰지로 존재의 실체를 보아버렸다.

'보배 그물'의 장엄, 인드라망

사마타 수행을 할 때 펼쳐지는 또 하나의 주요 특징은 ('보내 구슬' 이외에) '보배 그물'이 있다. 그물이라니? 먼저 아미타 신앙 관련 경전 상의 언급들을 보도록 하자.

"미묘한 진주의 그물이 보배 나무에 두루 덥혔는데, 그 진주 그물은 나무마다 일곱 겹으로 둘러 있다. 그 그물 사이마다 오백 억의 아름다운 꽃 궁전이 있는데 마치 범천의 궁전과 같다." "마니보주로 이루어진 연화대는 팔만의 금강석과 견숙가보와 법마니보와 묘진주의 그물로 장엄되었다." "보배 구슬은 (중략) 변화하여 갖가지 다양한 형상을 이루는데, 혹은 금강대가 되고, 혹은 진주의 그물이 되고, 혹은 여러 가지 꽃구름이 되기도 한다."

'진주의 그물'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물은 인드라망(indrajāla, 因陀羅網)을 말한다. 〈화엄경〉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인다라망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에는 모든 의식은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존재한다고 한다. 존재의 최소 단위 중 하나로 꼽히는 쿼크라는 미립자는 미세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지 오래이다.

인드라(Indra)는 한문으로 제석천으로 번역된다. '제망찰해(帝網刹海)'라는 문구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제석천의 그물(제망, 인드라망)이 중중무진 바다처럼 펼쳐져 있다는 뜻이다. 〈화엄경〉에 따른 인드라망의 진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드라망은 천신들의 왕인 인드라, 즉 제석천이 머무는 궁전에 끝없이 펼쳐진 그물이다. 사방으로 끝없는 이 그물의 그물코마다 보배 구슬이 달려 있다. 어느 한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추고, 다른 모든 구슬들 역시 동시에 다른 모든 구슬들에 비춘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존재한다. 만약 하나의 그물코의 구슬이 빠진다면, 모든 그물코의 구슬이 동시에 모두 빠져버리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맞물린 구조이다. 서로가 서로를 계속 복제하여 비추면서, 비춰지는 단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존재해가는 유기적 구조이다. 즉, 전체가 존재하거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구슬에 비춰진 다른 모든 구슬의 영상이 다시 다른 모든 구슬에 거듭 비춰지며 이러한 관계가 끝없이 중중무진으로 펼쳐진다."

우주라는 공간에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물의 의식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재는 정반대이다. 그러니 결코 외로워할 일은 없겠다. 우리의 의식은 그물 에너지의 장으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 내가 일으키는 한 감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 우주 전체를 뒤덮는 것이다. 불교가 말하는 실상을 알았으니, 이제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면 된다. 부정으로 내 삶과 우주를 뒤덮을 것인가, 아니면 긍정으로 내 삶과 우주를 뒤덮을 것인가.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화엄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이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묘덕사(정해사로 변경)
• 주 지 : 법인 스님
• 주 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고동골길 67-17 (후포리, 묘덕사)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한국불교태고종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서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

이안의 Media In Buddha ⑱ 〈구미호뎐〉 시리즈와 〈천년호〉



▶한줄 요약
이젠 K-콘텐츠로 자리잡은 '구미호'의 이야기는 신상옥 감독의 1969년도 작품 〈천년호〉가 시초다. 신상옥 감독은 이 영화의 모티브를 〈삼국유사〉 기이편 '진성여대왕과 거타지'에서 가져왔다.

K-콘텐츠 '구미호 이야기' 기원은 '삼국유사'



TVN 드라마 〈구미호뎐〉(사진 왼쪽)과 신상옥 감독의 〈천년호〉 포스터(사진 오른쪽).

낮에는 뙤약볕으로, 밤에는 열대야로 땀 식지 않고, 잠 못 들어 뒤척이는 여름철. 대개 전통적으로 이 계절이면 납량특집이라는 이름으로 공포영화가 극장에서고 TV에서고 더위를 식히는 방편이 되곤 했다.

그런데 공공장소든 가정집이든 에어컨이며 냉장고, 선풍기 따위 잘 갖춰진 전자제품이 더위 쫓도록 잘 갖춰져서 그런지 요즘 여름에는 극장가에서 공포영화가 그다지 맥을 못 추고, 여름이 공포영화의 계절이라던 시절을 옛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만들고 있다.

그 대신 드라마 〈구미호뎐 1938〉이 여우귀신 이야기의 계보를 이으며 시청자들에게 우리 문화의 전설과 신화 속에 등장했던 귀신과 요괴들을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각색해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냈다.

전편인 〈구미호뎐〉(2020)은 21세기에 환생해 도시에 정착한 구미호와 구미호의 정체를 밝히려는 방송국 프로듀서인 인간의 판타지 로맨스 서사 안에서 구미호, 불가살이, 어둑시니, 여우누이, 우렁각시 등 토착신과 토종귀신들이 경합하는 액션 멜로드라마로 시청자에게 캐릭터를 성공적으로 각인시켰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여우귀신 이야기에서 대체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요물로 재현되곤 했던 구미호가 남성(이연 역, 이동욱)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젠더적 전환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전환을 반영하는 것이리라.

'전설의 고향'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괴담에서 여성은 희생자로 등장한다. 유교문화권 속에서 가부장적 전통은 계모, 정절, 대 잇기, 가문 등의 억압 형태로 수많은 여성을 희생시켰다. 아무런 죄 없이 희생당한 여성들의 한이 귀신의 형태로 등장하면서 이 불쌍한 귀신들의 한풀이가 괴기담의 주된 소재였다.

서양 판타스틱 영화에서는 공포스런 괴물의 근원이 〈드라큘라〉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처럼 자기 안에 숨어있는 욕망이나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인간 내부의 원초적 폭력성에 있다면 한국식 괴기담에서는 외부의 폭력이 평범하거나 유달리 선한 사람을 귀신으로 만든다. 〈장화홍련전〉(감독 이유섭, 1972)이 그렇고 〈천년호〉(감독 신상옥, 1969)의 여화가 그렇다. 그러므로 서양 판타스틱 영화의 괴물은 퇴치되어야 하며 〈오멘〉, 〈엑소시스트〉에서 보듯 퇴치된 듯해도 끈질기게 되살아나지만, 한국식 괴기담의 귀신은 원한이 풀리면 고이 물러난다. 〈천년호〉의 요괴도 시신을 수습해서 제사를 지내주고 혼을 달래주자 잠잠해진다.

대체로 서양 판타스틱 영화에서 등장하는 '괴물'은 동성애, 유색 인종, 여성, 반기독교, 계급의 코드로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의 견고한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한국식 괴기담에 등장하는 '귀신'은 오히려 기존의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려다 죽임을 당하고, 죽어서도 그 질서를 지키고자 한다. 충신이거나 열녀이거나 효녀였던 이 귀신들은 그러므로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억압의 코드이기도 하다.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나 일탈은 귀신의 형상을 빌려서까지도 억압해야 할 만큼 가부장적 유교문화는 견고한 것이었다.

이제 호주제가 철폐되고, 성문화가 개방적이 되고, 전업주부보다 맞벌이를 해야 대접받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머리 풀고 흐느끼다 한풀이 끝나면 물러가는 귀신의 세계는 더 이상 동시대적이지 않아서일까, 현실의 억압이 예전보다 더 전방위적이 되면서 여귀보다 억울한 원귀들이 더 많아서일까?

〈구미호뎐〉 시리즈에서 21세기의 여우는 이연과 이랑 형제는 더 이상 무섭지도, 불쌍하지도 않은 액션 판타지 로맨스 캐릭터로 변신하는데 성공했고, 이제 사람들은 여우귀신을 요물이라며 꺼려하지 않는다.

여우 요괴를 전승담에서 발견해 공포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든 감독으로는 신상옥 감독의 〈천년호〉가 한국영화사에서는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 진성여왕(김혜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김원랑(신영균)을 유혹하려고 괴한을 보내 원랑의 부인 여화(김지수)를 해치려 하자 아기를 안고 도망치던 여화가 아기가 죽고 겁탈 당할 위기에 호수에 뛰어들었는데 살아나면서 시작되는 〈천년호〉는 로맨스와 공포, 원한과 복수, 팜므파탈과 요괴, 토종 귀신과 비유교적 이념에 대한 불교적 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에로틱 판타지 액션 드라마다. 〈천년호〉는 개봉 당시 제3회 시체스환상공포영화제에서 황금감독상을 받은 뛰어난 작품이기도 하다.

〈구미호뎐 1938〉 전작 이어 인기몰이
시대 변화 맞춰 '액션 멜로' 장르 정착
구미호, 불가살이 등 토속 奇談 녹여내
신상옥의 '천년호'가 구미호 콘텐츠 시작
기원은 〈삼국유사〉 '진성여왕과 거타지'
일연 편찬 〈삼국유사〉, K-콘텐츠 寶庫

호수에서 구해낸 여화를 집으로 데려 온 원랑에게 한 노인이 호수의 천년 묵은 여우에 대해 설명하며 여화에게 여우의 혼이 들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원랑은 믿지 않는다. 깨어난 여화는 여우 귀신에 씌여 낮에는 온전한 정신으로 지내다가 밤이 되면 자신을 죽이려던 괴한들도 처치하고, 궁궐에까지 침입해 여왕을 죽이려 한다. 결국 여왕을 지키려던 원랑이 아내에게 여우의 혼이 씌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스님을 찾아가 여화 안의 요물을 없애 달라고 부탁하면서 왕실 치정 복수극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여우도 죽고, 여화도 죽고, 여왕은 권력을 잃게 되는 〈천년호〉 서사는 그야말로 여성에게 가혹한 유교의 시대가 도래하는 전주곡과도 같은 역사 호러다. 이 천년호 이야기는 〈삼국유사〉 기이 제2편에 실린 '진성여대왕과 거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진성여왕 막내아들 양패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거타지도 궁사로 뽑혀 따라가게 됐는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 점을 치니 섬 안에 신령한 못이 있어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풍랑이 멎는다고 하여, 그 못에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니 못물이 높이 솟아올랐다.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활을 잘 쏘는 사람 하나만 이 섬에 남겨 두고 떠나면 순풍을 얻으리라"고 하자 제비를 뽑으니 거타지가 남게 되었다.

홀로 남은 거타지에게 홀연히 한 노인이 못 가운데서 나와 자기는 서해의 신인데 매일 해 뜰 때마다 하늘에서 한 중이 내려와 다라니를 외며 못을 세 바퀴 돌면 자기와 가족들이 모두 물 위에 둥둥 뜨게 되고, 그 때마다 그 중이 자손들의 간을 하나씩 빼 먹어 지금은 자기 아내와 딸만 남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중을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날 노인의 말대로 거타지가 활을 쏘아 중을 맞히니, 중이 곧 늙은 여우로 변해 땅에 떨어져 죽었고, 노인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용에게 거타지와 사신 일행이 타고 가는 배를 뒤쫓아가 그 배를 호위하여 무사히 당나라에 도착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직접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책 가운데 〈삼국유사〉는 아주 특별한 책이다. 방대한 역사책을, 그것도 자신이 살던 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진 것 뿐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까지 모아 단 한 사람이 책으로 엮어냈다는 것은 그 책에 담긴 이야기들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이다.

보각국사 일연이 고려시대까지 전승되어오던 삼국시대의 여러 역사와 설화를 담아 1281~83년 쓴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사부터 지리 · 문학 · 종교 · 언어 · 민속 · 사상 · 미술 ·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귀한 문화 자원이다.

같은 고려 시대인 1145년, 인종의 명으로 국가 사업으로 편찬된 〈삼국사기〉가 편찬 책임자 김부식을 비롯해 보조 역할을 담당한 관료가 8명, 행정사무를 전담한 지원 인력이 또 2명이나 붙어서 총 11명이 작업한 것과 비교해도 놀랍기 이를데 없다.

관료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곰이 마늘과 쑥만 먹고 마침내 인간이 됐다는 단군신화가 상식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기적을 제외하고 역사기록에 충실하려 한다는 명분 때문에 기록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는 배제한 널리 알려진 신화적, 설화적 이야기를 두루 수록하면서 심지어 내용의 출처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그 출처가 된 책들이 지금은 남아 있지 않기에 그런 기록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삼국유사〉의 업적이 되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던 거타지 이야기에서 토착신과 불교의 경합, 여성도 왕위에 올랐던 신라가 당나라와 교류하며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당대에는 '여대왕'으로 칭송받던 진성여왕을 풍속을 망치는 당대의 '음녀'로 비하하는 시대적 왜곡 등이 반영되어 천년호 이야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각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같은 캐릭터에게 다른 의미와 평가를 부여하며 새로워지고, 그 캐릭터들은 이야기 속에서 윤회를 거듭한다. 이제 여우 귀신은 토착신을 잡아먹는 불교 승려도 아니고,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왕권을 위협하는 요물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여성을 구하고 또 구하려는 순애보의 남성 캐릭터로 바뀌었다. 아마도 일연 스님은 자신이 기록한 이야기들이 이토록 오래오래 이어질 줄 알고 있지 않으셨을까?

〈영화평론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우슬, 황칠, 두충, 가시오가피, 울금, 참당귀, 쇠비름, 독활, 마가목열매, 개다래열매,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불생불멸’ 성품을 증득하라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㉔ 문성(聞性)

〈원문〉 “그때 부처님이 라후라를 시켜 종을 치게 했다. 그리고 아난에게 물었다. 네가 지금 듣느냐, 못 듣느냐? 아난과 대중이 ‘듣습니다’ 고 말했다. 종소리가 쉬어 소리가 없어지자 부처님이 또 물었다. ‘지금은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듣지 못한다고 말했다. 라후라가 또 종을 쳤다. 종이 울리자 부처님이 또 물었다.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또 듣는다고 말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너는 어떤 것을 듣는다 하고, 어떤 것을 듣지 못 한다 하느냐?’ 물었다. 아난이 ‘사뢰되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 듣는다 하고 친지 오래되어 소리가 사라지면 듣지 못한다’ 고 합니다.

여래가 또 라후라를 시켜 종을 치게 하고 아난에게 물었다. ‘지금 소리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아난이 ‘소리가 난다’ 고 말했다. 조금 있다 소리가 사라지자 부처님이 또 물었다. ‘지금 소리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아난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아난아, 소리가 사라져 없어진 것을 네가 듣지 못한다 말하니, 만약 진실로 들음이 없을진대 듣는 성품(聞性)이 없어져서 고목과 같을 것이니 종을 다시 치는 줄 네가 어찌 알겠느냐? 소리가 있고 없는 것은 성진(聲塵)이 있고 없는 것이지 어찌 너의 듣는 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느냐? 들음(聞)이 진실로 없다면 무엇이 없는 줄 알겠느냐?”

〈강설〉 귀가 소리를 들을 때 보통 소리가 나면 듣는다 하고 소리가 안 나면 못 듣는다고 한다. 〈능엄경〉의 이 대목은 소리가 나건 나지 않건 듣는 것(聞性)은 그대로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내용이다. 라후라를 시켜 종을 치게 하고 ‘듣느냐, 못 듣느냐’ 묻고, 뒤에 다시 종을 치게 해 소리가 나는지 나지 않는지를 물어 소리는 났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듣는 것은 소리가 나고 안 나고 상관없이 항상 듣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소리가 나는 것은 성진(聲塵)이다. 성진은 생멸하지만 듣는 성은 생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육근(六根)의 각 근(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눈의 견(見)이나 코의 문(聞: 냄새를 맡는 것)도 성(性)에서 보면 동일하다. 설사 눈이나 귀, 코 등이 없다고 해도 보고 듣고 맡는 성(性)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제 1권에서 말했듯이 이 성이 여래장묘진여성이다. 이 성(性)이 근(根)에 배대(配對)될 때 보는 성(見性), 듣는 성(聞性)이 된다. 이 성은 변화가 없는 것이므로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코가 막혀 감각기관이 고장이 나도 성(性)은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죽어도 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님도 캄캄한 것을 본다고 했듯이 견(見)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문(聞)도 없어지지 않는다. 소리가 나는 것을 듣는다고 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못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진(聲塵)의 있고 없음일 뿐인데 왜 성진(聲塵)의 유무를 가지고 듣고 못 듣는다 하느냐고 부처님이 아난에게 따져 물은 것이다. 동(動) · 정(靜) · 폐(閉) · 새(塞) · 개(開) · 통(通)을 여의고도 듣는 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소리가 나는 것은 동(動)이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정(靜)이다. 폐새와 개통은 막히고 열리는 것이다. 귀가 막힌다든지 코가 막히는 경우가 폐새이고, 막혔단 것이 트이는 경우가 개통이다.

경 본문의 이 대목 뒤에 꿈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다듬이질하는 방망이 소리나 절구 소리를 듣고, 또는 북소리나 종소리를 듣고 다른 소리로 착각하는 예를 든다. 예를 들면 방아찧는 소리를 북소리로 아는 경우다. 비록 잘못 들었지만 잠을 자다가도 꿈을 꾸어 듣는 수가 있다는 예를 든 것이다. 꿈속에서는 동정, 폐새, 개통을 기억하지 못하여 몸은 비록 잠이 들었지만 듣는 성은 혼미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또 머릿속에 아무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듣는 성품은 남아 있으며 설사 사람이 죽어 몸이 없어져 버린다 해도 듣는 성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불성(佛性) 곧 여래장묘진여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듯 불생불멸하는 성품을 증득(證得)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목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텅 빈 고요함만 현전할 뿐…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㉔ 채약법

황정을 통해 꼬리뼈 순화를 이루고 나면 심 · 식 · 의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본성을 인식하는 각성이 투철해지고 깊은 편안함에 머무르게 된다. 편안함을 누리면서 지극하게 황정을 주시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부터 회음부에서 자극이 올라온다. 움찔거리고 저르르하는 자극이 황정으로 올라온다. 양기가 동하면서 황정이 후끈하게 달아오른다.

양기가 동하는 때를 ‘활자시(活子時)’ 라 한다. 생식호르몬이 생성되는 경로가 완전하게 제도되고 꼬리뼈 순화가 이루어지면 활자시가 되어도 욕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욕정이 제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채약을 이루게 되면 나중에 천마(天魔)의 마장(魔障)에 빠지게 된다. 욕정이 사라진 활자시가 되면 지극하게 황정과 회음을 함께 주시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조짐을 기다린다. 이때의 황정은 이글거리는 화로와 같다. 각성은 투철해서 밖으로부터 어떤 경계가 도래해도 관여되지 않는다. 중심은 뿌듯하고 온몸에서는 기운이 넘쳐난다. 본성은 소소영영(昭昭靈靈)하다. 그런 상태를 음미하고 있다 보면 회음부에서부터 쩌르릉하는 자극이 황정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서 황정이 후끈하게 달아오른다. 이 상태가 바로 첫 번째 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생식호르몬이 황정의 네 가지 에너지와 합쳐져서 생체 에너지로 변화된 것이다. 채약이 이루어지면 생명을 이루는 다섯 가지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진다. 꼬리뼈 순화를 통해 성선신경총의 순화를 이루고 채약을 통해 생식호르몬을 제도하면 일체의 욕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갈애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제도된 갈애심으로 나중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게 된다. 그것을 ‘등각’ 이라 한다. 생명이 육체를 갖게 된 것도 결국엔 갈애를 해소하기 위해 취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육체를 갖게 됨으로써 생로병사의 사고(四苦)에 들게 되니 결국엔 생사의 고통도 애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채약을 이룬 사람은 애욕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때문에 능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약이 있고 나서 정도 이상으로 황정이 달아오르면 이때는 반신소주천을 행하면서 갈비뼈 순화를 한다.

채약은 세 번 정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완전하게 다섯 가지 기운이 조화를 이룬다. 세 번의 채약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반신 소주천을 통해 황정의 열기를 다스린다. 그 과정에서 갈비뼈에 내재된 세업(細業)들이 씻어진다. 갈비뼈 순화를 하면서 기운이 안정되면 그 기운을 황정에 안착시키고 심 · 식 · 의 화평함을 지극하게 음미한다. 그 상태에 머물러서 새로운 소식이 오기를 기다린다. 심 · 식 · 의의 화평함을 누리면서 본성으로 황정을 비춰보다 보면 한 물건이 일으키는 변화를 접하게 된다. 밝은성품이 증장되면서 기쁨이 일어나고 한 물건과 태양신경총이 반응하면서 중극에서 은은한 진동이 일어난다. 그 상태가 되면 중극과 황정을 함께 비춰본다. 황정의 한 물건을 중극으로 천천히 밀어올린다. 한 물건이 중극에 안착되면 태양신경총 전체가 후끈하게 달아오른다. 그 열기가 가슴신경을 타고 앞가슴으로 이동해 온다. 앞가슴에서 저르르하는 자극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흉곽 전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뿌득 뿌득 흉곽의 뼈들이 새롭게 조립된다. 흉곽이 전면부로 돌출되고 양쪽 젖꼭지에서 자극감이 일어난다. 이 과정을 통해 가슴신경이 순화되고 혈관이 씻어진다. 그러면서 흉곽이 넓어진다. 가슴신경이 순화되고 나면 적막 같은 고요함에 처해지게 된다. 오로지 텅 빈 고요함만 현전할 뿐 아무런 의도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㉔ 유와 무의 본질

오온이 일으킨 생각엔 ‘사실’ 없어

삼라만상은 짝으로 존재하지만, 오직 스스로는 짝이 없다. 짝이 없다는 것은 인지하는 것도, 인지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는데, 감각 기관으로 짝이 없는 그것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지만 그것이 우스운 일인 줄 모르니 계속 찾는 것이다. 훗날 그 모든 행위는 참으로 우스운 일이 될 거라고 스스로는 그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웃음이 끝이라고 말해준다. 찾는 자는 이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어리둥절하여 먹먹할 것이다. 그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뚝 일어나야 하지만 더 철퍼덕 주저앉아 버린다. 하물며 찾고 있는 그 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더욱 확신해 버린다. 본질이 코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내 버린다. 항상 안타까운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서 놓치는 것이다. 그 코앞의 일을, 무엇을 잡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계속 놓치게 된다.

전환하는 것 같지만 전환하는 것도 아니다. 이 일은 짝이 없는 일이다. 갈팡질팡하는 자의 속셈을 완전히 간파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은 없다.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지 않은 것도, 나타난 것도 나타나지 않은 것도, 모두 무관하다. 이것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나’ 라고 인지하고 있는 그 자에게는 보이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는 도움이 필요 없고, 도움이 필요 없는 오온은 도움을 주라고 아우성이다. 스스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 없는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 없는 오온이 가운데서 아우성치며 훼방을 놓고 있다. 빛은 도움이 필요 없는 그를 비추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치는 오온은 보지 못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안개가 걷히지 않으면 빛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 또한 인연으로 본다. 본질은 변하는 것이 아니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세간의 사람들은 모두 두 종류의 근본적 생각인 유와 무의 관념을 벗어나지 못해, 그것을 근거로 형이상의 본체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추구한다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성은 근본적으로 진리가 아니네. 그들은 모두 상을 보려고 상을 떠나지만 비록 상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

그저 똑같은 일상일 뿐이다. 일상사에 있지만 다른 모양들이 갖는 그런 일상사는 아니다. 단순하다는 것보다 조금 더 단순하다. 간단한 움직임, 간단한 먹거리, 간단한 잠자리 등 간단함이 그의 유일한 활동이다. 그러니 ‘꼭’ 이라는 것이 없다. 쫓기는 것도 없고, 지킬 약속도 없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나약할 수도 있고 게을러 보일 수도 있지만, 그는 아주 성실하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옆에 둘 수 없는 것을 옆에 둘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둔다. 그는 거짓에는 게으르고, 진실에는 성실하다. 이런 것을 이해시키지도, 이해를 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이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게 이끈다. 가르침을 믿게 되면 그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도 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을 따를 필요는 없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따라야 하지만 길을 찾았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

오온이 일으키는 생각에는 사실이 없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일어남이 아니다. 오온의 두려움이 사실을 왜곡하여 스스로에게 전가하는 것이니 속으면 안된다. 속는 것은 죽고 나서 처방전이 나오는 꼴과 같으므로 만약 속았더라도 돌아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저 한번 속지 않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일이니, 후회하지도 말아야 한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흔들린 마음이라고 아는 그 마음이다. 흔들리는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다. 어쩌면 오온이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달콤한 꿀 한방울에 마음을 빼앗겨 자진하여 속은 것이다. 오온의 모양을 ‘나’ 라고 여기고 부른 순간부터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꼴이 되었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명산대찰의 수천만원

의 시설들! 본사 견본과 법당서 소리 비교시 죄송하지만 한결같이 장난감 소리 차이!

▣ 그 이유 : 본 품은 디지털 염불전문시스템으로 특수제작 (기존품들과 부속이 전혀 다름)

▣ 특징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장 기존시설가에 1/3

본 제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오직! 소리만 비교만 해보는 조건으로 전화하시면 반드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에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및 핀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충전식 각종 방생용 전문판매, 시설가격 190~사찰 규모따라 비용 추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41호 | 17 | 전면광고

사람이 사는 것은 한세상뿐이지만,
불경은 무수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을
제도하여 열반의 도를 얻게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 • 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가격협의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 주차가능 • 매가 : 3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받을 수 있읍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포교원(급) 안내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층에 2층, 40평
- 인근 상권 주거 및 재래시장 밀집
- 보증금 700만원, 월세 55만원 (관리비 없음)
- 시설비 : 1,300만원

010-5635-6199

사 찰 안 내

강서구 방화동 상가 3층 32평

- 법당 넓은평 : 방2, 주방1, 화장실 복도 2칸 단독 사용, 창고방1
- 2000/65만원
- 엘리베이터, 주차 無(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음)
- 주변에 대형마트, 음식점, 재래시장 있음 부처님 외 인등, 북 등 전체 보시
- 시설비만 2,000만원(비품 모두 새것) 몸만 오시면 됩니다.바로 기도 수행 할 수 있음

010-6613-2265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홍성군 – 시내 5분거리
- 대지 : 160평
- 텃밭 : 100평
- 시설비 : 2000만원
- 울창한 소나무 숲 위치함
- 문중암자 : 연세 12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가능

010-7942-9015

사 찰 안 내

- 대구 동구 신암동
- 대지 : 80평
- 1층 요사 , 28평, 방6개
- 2층 법당 26평
- 지하공양간 43평 , 방4개
- 조용한곳
- 가액 : 15억

010-3501-5230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보살님과 법사님도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344-6667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읍내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27평
- 대지 200백평, 매매 및 전월세
- 매매 : 3억 1천만원 / 전월세 : 2,000만원에 월 40만원

010-9485-931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호선, 5호선 전철 6분 거리
- 법당 3층 건물에 2층, 40평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70만원 (시설비 절충)
- 스님 사정상 임대함

010-3167-1774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대지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7m 정도) / 부처님 사리(협의)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앞 개울이 있습니다. 앞산 능선이 와불로 되어있습니다.
- 매매가 : 2억 3천만원(절충 가능)

010-2807-0509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약 230평 (요사채, 법당, 공양간 등)
- 가액 : 3억(절충가능)

010-9389-7457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근교 IC에서 3분거리
- 대지 : 23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 석불다수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오억(5억) 절충가능

010-3540-843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윗길 28-17
- 부지 : 500평 (대지 250평)
- 법당 (16평), 종무소 (6평), 창고 (4평), 종무소 2 (18평 콘크리트건물 신축), 요사체 +휴게실+ 창고 (30평)
- 가액 : 3억 8천 만원 (북원주 IC 5분거리 서울 이동시간 적절)

010-8969-5014

사찰 (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대지 155평, 법당 30평, 요사채 50평
- 도심속 1층
- 가액: 9억 (절충가능)

010-6760-8320

사 찰 안 내

-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산 1번지
- 동굴 50m
- 계곡 물 많음
- 소나무 숲

010-4707-24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4727-6065

산신각 불사 안내

- 소재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룡산
- 사찰 :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기도도량 문성암
- 소개 : 덕룡산은 초의선사 출가도량이며, 백제의 고찰 불회사가있다.
- 시주: 설판시주 5천만원
  동참시주 1,000 만원 (5가족)
  동참시주 500 만원 (10가족)

061-337-0711 (문성암)
010-2354-9908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835-1739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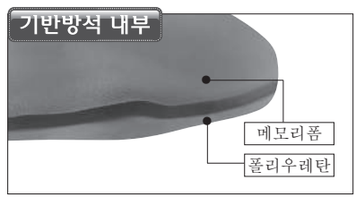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41호 | 18 | 전면광고

명예욕과 탐욕,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화와 출세,
그것은 저녁 무렵의 연기와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자경문》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무료상담

(법률 세무 및 신행상담, 명상법회)
선행, 송기명 법사(010-3686-4807)
정호스님(법무사)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명상법회(보리방편론)
명상지도사 : 김석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선정원 02-733-5525



영남범음범패

통범(구암스님)소리를
채보하여 악보로 수업

- 의식 및 사물장단
- 태평소 · 대금 · 작법무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2길 32-81, 영원사

010-3156-2211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 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성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2078-959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⑪ 사랑



부모 마음, 부처님 마음

저는 요즘 매주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어머님이 계신 곳에 머물며 어머님과 이곳저곳 나들이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순의 어머니, 체력도 약해지시고 움직임도 예전보다 부족하시고, 또 '치매' 증상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머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 이란 말에 웃으시며 저에게 "우리 아들, 나도 사랑한다이"라고 하십니다.

'사랑', 그냥 듣기만 하여도 마음이 즐거워지고 환해지는 말입니다. 우리 불교에는 〈부모은중경〉이 있지요. 이 경전에서는 부모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커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랑 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요, 보살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㉞ 심재휘의 '경주'

내 생의, 내생의 탑을 쌓자

〈生〉 〈來生〉

경주/ 심재휘

가을 경주에게는 불국사로 간다는 버스가 있어서 낙서하듯 몸 하나가 덜컹거려도 긴 이야기가 된다 지나쳐온 정류장들도 기와를 얹은 집 모양을 하고 있다 낯선 길에 내려 찡그린 얼굴을 햇살에 새기면 시월은 몇 층짜리인지 헐리지 않도록 바람 속에 쌓은 돌 그 돌 위에 돌을 쌓으며 좁아져가는 생애가 내 발자국들을 죄다 모아서 석탑 위에 얹어준다 내 이름은 탑이 가리키는 곳으로 올라갈 만하다고

하지만 박모의 하늘에
매일 조금씩 덧칠해온 얼굴 하나가 붉게 떠서
오늘밤에 나는 불국에 이르지 못하고
왕릉 곁의 막걸리집에 국물 자국처럼 앉으면
경주의 밤은 속을 알 수도 없는 탁한 술을 마신다

깊어가는 어둠을 시큼하게라도 맡을 수 있는 곳
평생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입 밖으로 뱉지 못한 말뿐이라는 걸
흠집이 많은 술집의 탁자에게 배운다
그러면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경주
뒤를 돌아보면 경주
누구에게나 늘 그리운 오늘이다

—심재휘 시집, 〈용서를 배울 만한 시간〉, 문학동네, 2018

어느 날 시인은 경주에 갔다. 가을이었다. 불국사에 갔던 모양이다. 불국(佛國)을 찾으러. 극락정토를 찾으러. 그런데 탑이 서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었을 것이다. 두 탑을 보는 순간, 시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아차렸다. "헐리지 않도록 바람 속에 (위태롭게) 쌓은 돌 그 돌 위에 돌을 쌓으며 좁아져가는 (돌탑 혹은 자신의) 생애"를 보며 자신의 "발자국들을 죄다 모아" "석탑 위에 얹어준다". 그리고 시인 자신의 "이름은 탑이 가리키는 곳으로 올라갈 만하다"는 것을 깨우친다.

하지만, 시인은, 이내, 다시 깨우친다. "하지만 박모의 하늘에/ 매일 조금씩 덧칠해온 얼굴 하나가 붉게 떠서/ 오늘밤"에 자신이 "불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이에 차라리 "왕릉 곁의 막걸리집"에 들어가 "국물 자국처럼 앉"아 "경주의 밤"과 함께 "속을 알 수도 없는 탁한 술을 마신다". 그리곤 "깊어가는 어둠을" 막걸리처럼 "시큼하게라도 맡을 수 있는 곳"에서 "평생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 입 밖으로 뱉지 못한 말뿐이라는 걸/ 흠집이 많은 술집의 탁자에게 배운다". 그러자 비로소 "경주"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 그리고 그 경주가 실은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나 늘 그리운 오늘"임을 깨닫는다. 경주는 결국 시인의 애인이자, 친구이자,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도반이자, 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필자도 30여 년 전 그렇게 바람 속에 탑을 쌓은 적 있다. "탑은 꼭, 절[寺]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원에도 있고/ 바닷가에도 있고/ 텅 빈 벌판에도 있고/ 더욱이는/ 우리들의 몸 안에도 있다/ 탑이라고 꼭, 다보탑과 석가탑 같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무탑 같은 것도 있고/ 돌탑이나 철탑이나 피라미드 같은 것도 있고/ 더욱이는/ 에펠탑이나 바벨탑 같은 것도 있다/ 그러나 탑 중에서도 가장 높고, 크고, 아득한 탑은 우리들의 마음탑이다 마음의 첨탑이다/ 정말이지 탑은,/ 무너져 내릴 때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 보라,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중략〉 / 죽는 날까지 다시금 탑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근육이 있기 때문이다/ 피가 있기 때문이다/ 기쁨과 희망의 혈류가 있기 때문이다/ 슬픔과 기쁨 같은 눈금이 있기 때문이다/ 몸 안에,/ 몸 안에,/ 내 몸 안에/ 마음의 첨탑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탑을 쌓는다/ 이슬의,/ 바람의,/ 탑을 쌓는다". 졸시집 〈퍽 환한 하늘〉이라는 시집에 실린 '탑' 이라는 시 전문이다.(심상과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전문을 다 인용했다)

심재휘 시인의 '경주' 와 필자의 '탑' 은 30여 년의 시 · 공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 탑에 대한 생각을 비슷하다.(물론 작품의 우열을 떠나서다.) 사실 지금 필자는 승려지만, 출가하기 이전에도 절집에 많이 다녔다. 그때마다 탑을 보았다. 그 속에는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도 있고 황룡사지와 분황사지 탑도 있고, 화순 운주사 천불천탑과 미륵사지 석탑도 있다. 그 탑들을 생각하며 필자는 30여 년 전에 이 시를 썼고, 그 시 밑에 다음과 같은 시작노트도 써 놓았다. 그리고 글쎄,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탑에 대한 필자의 생각(삶 혹은 고통)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필자가 이번에 불교시 감상으로 심재휘 시인의 '경주' 를 고른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아서, 그리고 심 시인의 시상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서 그 시작노트도 전문을 인용해본다.

"절에 가면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탑이다. 그리고 탑 앞에 서서 탑이 되는 것이다. 탑의 속성은 묘하다. 쌓아 올리는 것이 탑이기도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것도 탑만의 아름다운 속성이다. 탑 앞에 서면 삶의 희로애락이 사라진다. 고집멸도(苦集滅道)가 사라진다. 사라진 자리에 대신 나만의 탑이 들어선다.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매우 아프고 처량하게, 나만의 탑을 처연히 쌓는다. 그리고 바로 무너뜨린다. 내가, 내 삶 자체가 또한 바로 탑이기 때문이다. 내가 고통 속에서도 울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항상 그런 탑이 서 있기 때문이다. 첨탑으로 서 있기 때문이다. 문득, 탑이 묻는다. "아직 살만한가". 문득, 탑이 또, 묻는다. "언제든지 죽을(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그런 마음탑 앞에서 나는 항상 진실할 수밖에 없다. 내 삶, 내 인생, 이슬이어도, 바람이어도 서럽지 않다고. 삶(인생) 전편이 탑을 쌓아올렸다가 다시 무너뜨리는 과정이므로.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삶(인생)의 원형질이므로."

심재휘 시인이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필자의 '탑' 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 하지만 심 시인의 말처럼 그 '탑' 이 또 언제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지는 모르겠다.

심 시인처럼 필자도 이젠 입을 닫아야겠다. 심 시인의 말처럼 "평생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입 밖으로 뱉지 못한 말뿐이"기에. 그러고 보니, 필자는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살았다. 변명과 탓과 핑계가 왜 그리도 많았던지. "부끄럽습니다. 참(懺)하고, 회(悔)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실 진저."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사고로 24시간 대수술에
뇌경색 겹쳐 절망

감각 · 언어 장애에도 병원비 감당 못해 재활치료조차 못 받아
목숨 걸고 탈북했으나 15개월 아들과 가족 생계마저 막막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명상에 답이 있다

❶ 명상하라-뇌가 새로워진다

▶ 한줄 요약
조그만 소리를 듣거나 짧은 생각을 할 때에도 당신의 뇌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마음공부 거듭하면 뇌 구조·기능 변화

삶이 괴롭다는 것은 인류가 지상에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된 일일 것이다. 삶은 왜 괴로운 것일까? 그리고 괴로움은 왜 쉽게 떨치기 어려울까? 필자는 뇌과학을 전공한 심리학자로서, 그 원인을 인류의 진화와 뇌과학의 관점에서 밝혀보겠다.



부정적 감정에 더 민감한 뇌

인류는 뇌에 쾌감을 주기보다는 불쾌감을 회피하는 데에 더 민감하도록 진화돼왔다. 이는 진화의 역사에서 불쾌한 경험이 유쾌한 경험보다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다. 인류의 원시조상은 자신보다 몸집이 더 크고 힘이 더 세며 빠른 포식동물에게 끊임없이 위협받았다. 그래서 언제나 주변을 경계해야 했고 작은 움직임이나 낯선 소리에도 과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도망갈 준비를 해야 했다. 그렇기에 불쾌한 자극에 더 강력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에 더 민감해졌다.

괴로움에 민감한 이런 부정적 편향성(negativity bias)은 오늘날의 삶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우리는 뜨거운 주전자에 한번 손을 데고 나면 주전자를 선뜻 만지려 들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도,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그보다 몇 배의 긍정적인 경험을 되풀이해야 한다. 예컨대 한 번 연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연인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적어도 5번 이상 해야 관계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괴로움 그대로 두면 증폭

마음의 동요를 그대로 두면,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거나 미래로 나아가 실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불안을 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가상의 생각이 신경망을 작동시켜 점점 더 고통의 향연을 벌이는데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증폭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하버드대학 심리학자 매트 킬링스워스(Matt Killingsworth)는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라는 논문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잡지 〈사이언스(Sience)〉에 발표했다.

만약 이 번뇌의 불길을 효과적으로 끄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2개의 신경경로를 통해 괴로움이 전파된다. 첫째 경로는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SNS)'이고, 둘째 경로는 뇌 속 시상하부에서 시작하여 뇌하수체를 지나 부신에 이르는 하나의 축을 이루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ic-pituitary-adremal axis:HPA축)이다.

괴로움, 즉 스트레스가 멈추지 않고 이 두 신경 경로를 거듭하여 자극하면 몸은 서서히 지쳐가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다양한 신체기능이 교란되어 질병을 야기한다. 또한 괴로움이 지속되면 편도체가 쉬지 않고 경고음을 울려대므로 지속적인 불안상태에 빠진다.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몸은 코티솔(cortisol)을 분비해서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티솔을 과다 분비하게 하고, 과다 분비된 코티솔은 해마의 기능을 억제하게 된다. 해마는 기억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이기에 이 기능이 억제되면 새로운 기억형성이 방해받게 된다. 또한 새로운 신경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 뇌피질이 위축된다. 이처럼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부정적인 감정상태가 만연하게 되고, 건망증부터 심하게는 기억과정 전체의 손상이 일어나는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발생시키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괴로움의 확산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명상의 주된 기능이 알아차림과 이완임을 이해한다면, 규칙적인 명상을 통해 알아차림과 이완반응을 통해 괴로움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을 막고 괴로움을 전파하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 괴로움을 끊고자 한다면 흔들리는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멈추는 훈련이 중요하다. 이 훈련이 바로 명상이다.

괴로움 지속되면 편도체 휴식 불가
흔들리는 마음 고정하는 훈련 필요
명상의 일산화질소 분출, 질병 치유
명상이 우울감을 행복감으로 바꿔

마음이 바뀌면 뇌가 바뀐다

명상이 질병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임상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명상과 뇌활동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명상이 뇌활동을 바꾸어 심신장애의 치유 가능성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연구들이다. 여기서 몇 가지 두드러진 사실을 살펴보자.

사마타(Samatha) 수련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에 이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마타형의 명상인 만트라 또는 진언 수행 명상을 하면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를 보인다. 사마타 수련으로 심신의 이완이 깊어지면 뇌 속에 일산화질소라는 기체성 물질이 분출돼 미세한 혈관들이 확장되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그 결과로 심신이 건강해진다. 이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 의대의 조지 스테파노(George B. Stefano) 박사는 일산화질소 분출에 따른 심신의 변화를 이렇게 언급한다.

"일산화질소 분출은 뇌를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신경전달물질 방출을 촉진시켜 긍정적 감정 상태를 야기하며, 혈류의 이동을 도우므로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하고, 에스트로겐(Estrogen)의 효과를 높여 폐경기 우울증과 성적 무력증을 개선하며, 면역기능을 강화한다."

이처럼 명상을 통한 일산화질소 분출은 각종 스트레스 관련 질병 치유에 효과가 높인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명상이 대안이다

명상(meditation)과 의학(medicine)은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둘의 어간은 'medi'로 서로 같다. medi는 라틴어 'mederi'에서 파생된 말로 '치료하다'라는 뜻이다. 명상이 마음으로 괴로움을 치료한다면 의학은 약물(시술)로 괴로움을 치료한다고 볼 수 있겠다.

머터와 랜커(Mather&Lancar)는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우울증, 약물 남용과 알코올 남용이 전체 질환의 31%를 이루고 있는데,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모든 질병 가운데 랭킹 1위가 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예측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현재로서는 이런 심리적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완치할 치료법이 없고, 현재 행해지는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이런 치료는 경제적 부담이 많고 약물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런던대학 카티아 루비아(Katya Rubia) 박사는 경제적 부담이나 부작용이 없는 명상이 대안이 된다고 2009년 학술잡지 〈생물 심리학(Biological Psychology)〉에 발표한 바 있다.

과거 서양의학에서 인간의 뇌발달은 아동기에 완성된다고 봤다. 하지만 정밀한 뇌스캔이 가능해지면서, 현재는 뇌가 죽는 순간까지 변화를 거듭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를 신경가소성(Neural plastic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신경가소성, 특히 뇌의 신경가소성이란 '뇌의 신경회로가 외부의 자극과 경험이나 학습에 따라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변화되거나 재조직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뇌가소성은 환경과 경험에 반응하여 일어나지만, 중요한 점은 변화된 정보자극에 주의를 집중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뇌를 자기공명영상으로 분석하면 음악과 언어적 기능을 담당하는 '브로카'라는 영역이 보통 사람에 비해 월등하게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점자를 익힌 시각장애인들은 집게손가락을 지배하는 뇌 부위가 확장돼 있다. 수학자들의 경우 사고와 추상 및 분석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커졌다. 또한 영국 런던의 택시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택시운전사들의 두뇌에서 해마 부위가 일반인에 비해 더 발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해마는 기억의 저장과 떠올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택시운전사들은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손바닥 보듯이 정확히 기억해야 하기에 이 부위가 발달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랫동안 무언가에 대한 경험, 생각 또는 학습을 거듭하면 뇌의 구조와 기능은 바뀐다. 학습을 거듭할수록 뇌를 구성하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뉴런)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이뤄져 특정 부위의 뇌가 양적으로 팽창한다. 뇌세포도 근육세포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더 크게 성장한다.

그러니 명상이라는 학습과 경험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보통 사람들도 두 달(8주) 이상 명상을 수련할 경우 왼쪽 전전두엽의 기능이 오른쪽에 비해 우세해지고 우울감이 행복감으로 바뀐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조그만 소리를 듣거나 짧은 생각을 할 때에도 당신의 뇌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에도 그 변화는 진행 중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 '평온한 뇌, 행복한 뇌'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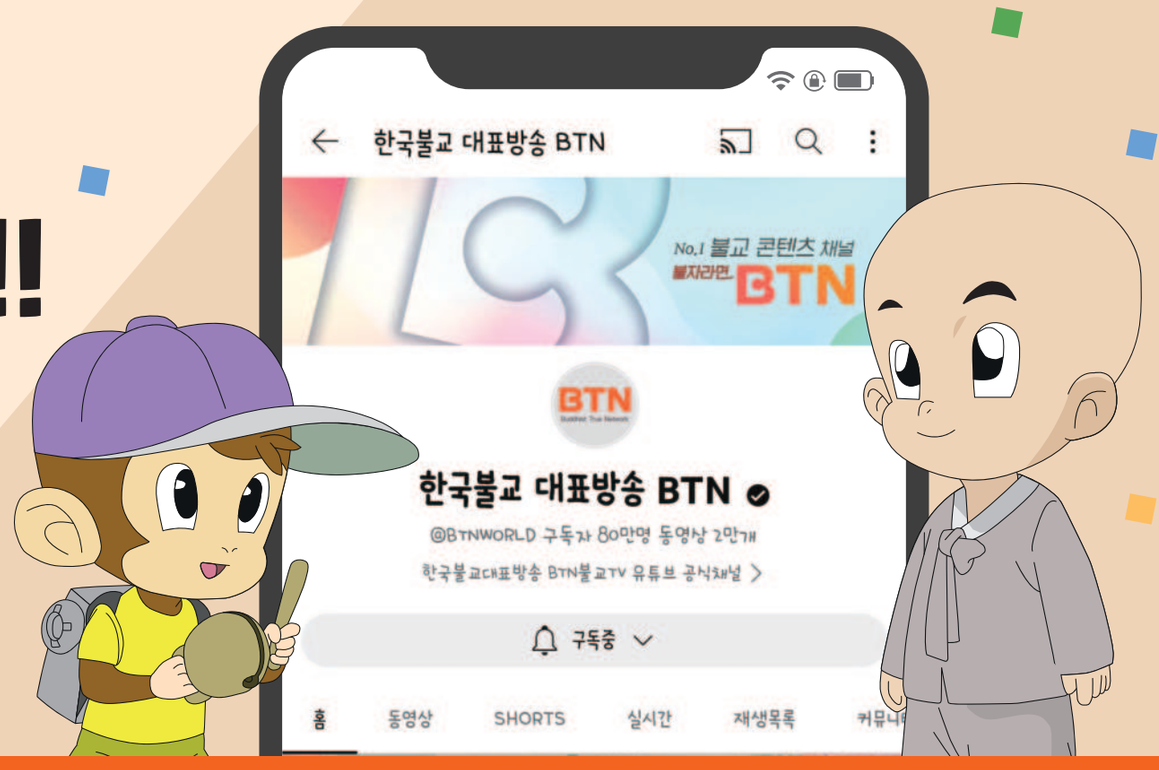


〈장현갑 지음 / 담앤북스 펴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80만 명 돌파!!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BTN불교TV는 앞으로도 불자 여러분과 함께
뉴미디어 포교의 새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41 호 현대불교
2023년 6월 28일(음 5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여러분 마음속에 주장자인 주인공이 엄연히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토론 형식으로 서로 질문 문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가야 옳은지 그것을 제가 먼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생활하는 데는 별의 별 천차만별의 뜻으로써,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 한두 건이 아닌 반면에 우리는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다스리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주어지겠죠. 알고 범하는 것은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짓는 것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다가 한세상을 다해서 떠날 때는 어떤 분들이고 다 가져가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은보화라도 바로 방문 안에서 배웅을 하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대문 안에서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권세가 좋고 친척이 많고 자식 부부지간이 아무리 버릴 수 없는 인연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동구 바깥에서 배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나온 그 자체가 바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처럼 그 업식이 쫓아다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간 그 차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정자 난자, 즉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또한 나의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자기가 선업을 지었다면 선업의 그림자가 거기 포함될 것이요, 악업을 지었다면 바로 악업의 그림자가 거기 따라설 겁니다.

그래서 그 몸뚱이 하나가 태어나는데 그 몸뚱이 속에 악업과 선업이 동시에 들어서 모두 지금 현세의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복통이 나게끔 마음이 생기고, 착잡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지로 애고가 생기고 유전성이 생기고 또는 업보성이 생기고, 세균성이 생기고 윤회성이 생기고, 이 모두가 자기가 살아온 대가입니다. 그것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것을 한국에서는, 이 불가에서는 바로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숙명통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숙명통에, 과거로부터 가지고 나온 내 몸뚱이 속에 실려 있는 그 그림자, 그 의식들, 그 모습들이 다 내가 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타의에서 오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타의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돌려야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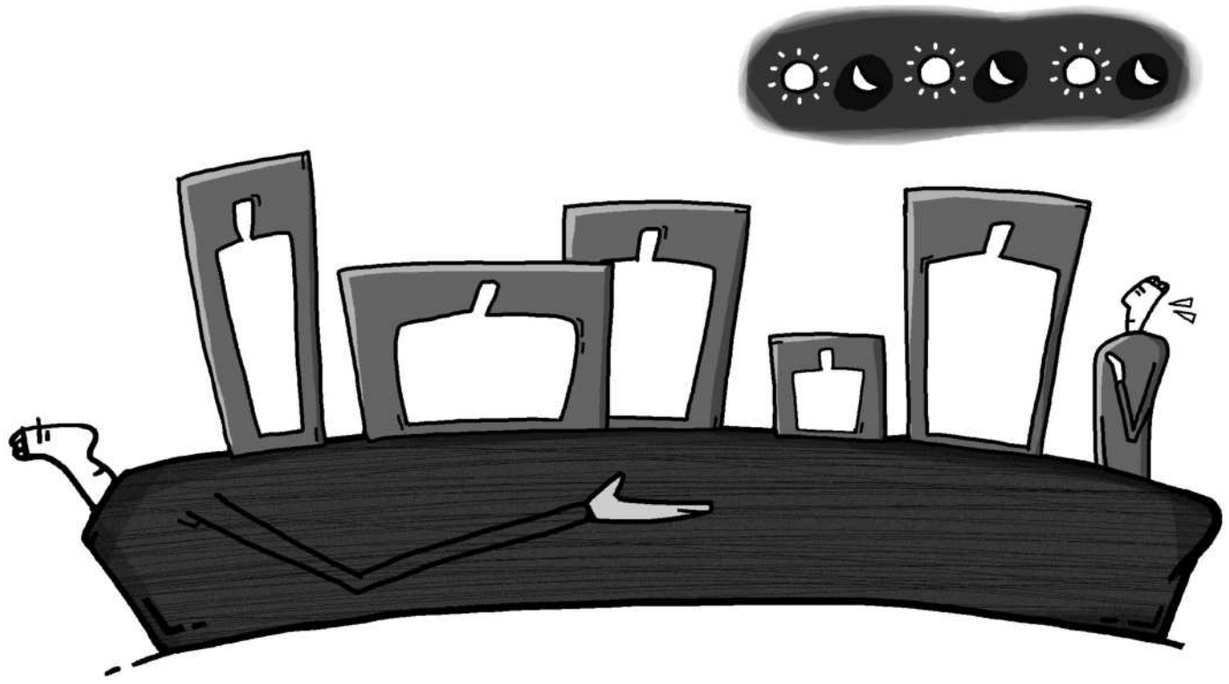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나 언짢은 것이나, 좋은 것이라면 바로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감사하게 놓고 일임하고, 또 잘 안 되는 것은 그 모든 과거로부터 그림자처럼 그 컴퓨터에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다시 거기다 입력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인공에다 다시 맡겨 놓는 것이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맡겨 놓고 '당신만이 잘 이끌어 줄 수 있어. 당신만이 모든 거를 다 간파할 수 있어. 어떠한 애고든지 어떠한 병고든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고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지켜보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참선입니다. 무조건 틀고 앉았다고 그래서 참선이 아닙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모든 일체, 앉으나 서나 또는 자나 깨나 일하나 어떠한 거든지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속에서 빚어지는 그 가지가지 천차만별의 생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과거로부터 나오는 거를 모두 현실에 나오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바깥으로 끄달리고 바깥으로 신을 찾고 바깥으로 부처님을 찾고 바깥으로 칠성, 관세음 모두 찾는다면 그거는 절대로 잘못 가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못났든 잘났든 자기 빼놓고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것이고 자기로부터 생활이 있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인연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로 인해서 모두 벌어진 것을, 자기로 인해서 나오는 것을 자기로 인해서 또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몸뚱이가 여러분인 줄 알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뚱이는 나의 집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고, 관리인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말하자면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물질인 이 몸뚱이는. 그러나 그 의식들과 이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떠한 애고가 있더라도 애고가 거기서 나온 거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온 것이니까 다시금 입력을 그 자리에다 한다면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지면서 현실의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것이 무조건 무너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개선해서 내가 발전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자유스럽게 걸어갈 때에 비로소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몸뚱이 안에 과거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 지금 현실에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을 거고 현실은 공해서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작용을 합니다. 인간의 두뇌도 바른쪽 왼쪽 조금도 쉬지 않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쪽 왼쪽 그 핵심에서 바로 사대로 통신을 합니다. 사대로 통신을 해서 다들 그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놓는다면 그런 작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나다' 그러고 '나뿐이지, 뭐.' 그러고서 내 속에 있는, 작용하는 그 의식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내가 이만하면 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내 마음이 그러니 이 속에서들도 그렇게 '너가 너라면 나도 나다.' 하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몸에 파워도 올 수 있고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파워를 낼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한 몸뚱이가 기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계 50%와 물질계 50%가 서로 상응하면서 서로 상대적 원리로써 이것이 같이 화합해서 작용하는 도리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림하는 데도 회사에 나가든지 어딜 나가든지 인연의 법칙으로써 인연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또는 제자도 있고, 모두 이러한 인연들이 한데 합쳤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게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한 모든 인연들이 성립이 되지 않았더라면 공부할 수 있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을 하나 이렇게 켠다 하더라도, 촛불을 하나 켠다 하더라도 초의 인연, 심지의 인연 또는 만드는 사람의 인연, 보는 사람의 인연, 켜는 사람의 인연 모두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연의 법칙이 아니라면 우리가 개발이나 과학이나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과학하고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생활이 그대로 과학이자 그냥 그대로 여여한 자유인이 살 수 있는 여여한 생활입니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넓지 못하고 옹졸해서, 즉 말하자면 아주 가깝게 우리가 한 식구를 본다면 한 식구만 보이지만 넓게 본다면 인생도 네 자식 내 자식, 내 부모 네 부모 따로 찾을 게 없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한번 죽어서 다시금 또 딴 집에 가서 태어나고 딴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연방연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구름이 모였다가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이럭하다 보니까 넓게 생각을 한다면 네 구름 내 구름 찾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 22면으로 계속



내 탓으로 돌려서 잘못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네 부모가 따로 없고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자식이 따로 없고 내 자식이 따로 없더라. 네 생명이 따로 없고 내 생명이 따로 없고 모두가 둘이 아니더라. 이 모든 자리도 네 자리 내 자리가 둘이 아니요, 동서가 둘이 아니요,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크고 작음이 둘이 아니요, 모든 일체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다. 천지 인 삼대, 삼심이 다 일심이니 그 일심이 바로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지만 이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 그랬으니 여러분도 바로 지수화풍 네 가지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을 용도에 따라서 충만히 끌어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바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발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지수화풍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요소가 또 대두돼 있고, 맘대로 끌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오신통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천이통, 이것은 무전통신기를 말합니다. 듣지 않는 데서 들을 수 있는 거를, 모든 데서 말입니다. 또 마음의 눈으로 전체를 보는 거를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신족통을 지금 용어로 팩시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면 되겠죠? 타심통을 탐지기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남의 마음을 아주 상세히 아는 걸 말합니다. 숙명통은 과거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로부터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보는 것도 도가 아니요, 듣는 것도 도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을 이렇게 끌어다가 놓고 보는 거와 같은 거니까요. 한쪽만 보는 게 아닙니다. 천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것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도 도가 아니요, 아무리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속을 아주 빤하게 다 일거일동 안다고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과거로부터 어떻게 나온 거를 아주 손살피 알아도 이것은 도가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섯 가지를 볼 때에 우리의 이 몸뚱이, 통 속이라고 합니다, 통 속. 우리 몸뚱이를 통 속이라고 그럽니다, 몸뚱이 안. 만약에 몸뚱이 안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면 통 안에서 내 몸뚱이를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고, 바로 이 우주의 모든 섭류를 자유롭게 굴릴 수가 없다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이 모든 마음을 탁, 그 다섯 가지에 속박되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속박되지 말고 벗어나야만이, 즉 말하자면 누진, 지금 시쳇말로 레이더망이라고 그래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그건 물질이기 때문에 아니 되는 거지마는 말입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전부 책정하고 통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누진에서, 이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서 누진으로, 누진의 작용으로, 즉 말하자면 양면의 작용으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이것이 누진이라고 합니다. 누진에서는 맘대로 들고 나고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자재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아까 얘기했죠?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 그런 것들을요. 그러한 모든 그 핵심의 에너지 여건을 주기도 하고 내가 용도에 따라서 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말한다면 이 물 한 그릇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목마르면 자기도 마실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아무리 봤어도 갖다가 먹을 수 없다면, 쓸 수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기만 해도 도가 아니요, 듣고 자유스럽게 그것을 작용을 못 한다면 들으나마나죠? 보나마나 들으나마나, 가고 오나마나 모두가 헛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내 몸뚱이 속에, 이 정신력에 다 있으니까 눈이 간 데 귀가 가고, 귀가 간 데 냄새가 가고 결정이 가고 부딪침이 가고, 모두 이렇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회 의식에 있었던 반야심경에도 바로 '둘이 아니어서 고정됨이 없어서 없다' 고 그랬죠? 그 모두가 내가 아무리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목마른 생각이 있고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를 알면 아무 말 없이 물 한 그릇 푹 떠서 탁 주고 탁 자기 먹고 '아! 이만하면 목마른 것을 시원하게 축였구나. 이만하면 목마른 갈증이 없을 것을….' 하면 그뿐이지 거기 뭐가 이론이 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에 묶여 있는 것이 오신통이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소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지금 대변이 마려워서 죽겠는데 대변 마려운 생각뿐이지 거기에 간접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그 순간에는 말입니다. 들어가서 똥을 팍 싸 놓고 봐야 그때 인제 뭐든 생각나고 그러지, 그 외에는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왜?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다, 어떠한 거든지 거기에다, 자가발전소에다 대기만 하면 다 그냥 타 버리니까. 나쁜 것도 타 버리고 좋은 것은 승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보세요. 용광로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으니까 자동적으로 쇠가 생산돼서 나가죠? 넣는 사람, 작업하는 사람이 작업만 잘한다면 생산돼서 나가는 거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올 것이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올 것인데 구태여 왜 걱정을 하고 지냅니까? 이 세상에 한번 나서 캠핑을 왔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만 알면 잘 다스려서 부드럽게 잘 행동하지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증오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한 가정에서 한 철 나다 간다 하더라도 부질없이 싸움이나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니, 한 철 나러 왔다가 웬 싸움입니까? 그리고 한 철 나러 왔다가 다 놀면 소꿉장난 놀다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와 같은 건데 그거 왜들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라도, 자식과 부모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괴로운 것은 거기다 맡기고 서로를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준다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상통해서 서로 한방에 불이 들어오듯 그렇게 에너지에 불이 당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안하니 좋고 화목하니 좋고, 일이 성립이 잘되니 좋고 애고가 없어지니 좋고, 유전성이 없어지니 좋고 이거는 모든 일거일동이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여튼 강하고, 그저 말도 다스리지 않고 속상하는 대로 탁탁 내뱉으면 뱉는 대로 이 속에서도 그대로 내뱉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속의 그 의식들이 그대로 따르니까요. 그리고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자꾸자꾸, 이거는 내 안에 들어 있으니까 내 안에만 들어 있다고 생각 마세요. 세균성도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나가서 끌고 들어오는 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집을 비워 두면 자손들이 친구들하고 막 들어와서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이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이 집안에 주인이 없다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집안에 주인이 없다면 그냥 뭇 의식들을 끌고 들어와서 막 난장을 벌이고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집도 주인이 없이 아마 일 년이고 이태고 십 년이고 그냥 놔둬 보십시오. 거미줄이 슬고 썩어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장자인 주인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그 기둥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는 형상을 믿을 수도 없고,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름을 믿을 것도 못 되고 허공을 믿을 것도 못 됩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너무 역겹지 않습니까? 쳇바퀴에서 좀 훨훨 벗어나고 싶진 않습니까? 중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이건 중만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진리가 다 그러합니다.

한 핵심에, 블랙홀이라고 하는 한 핵심에 과학도 의학도 모두 다 여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 가설이 돼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에너지를 이 핵심 속에서 다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굴리고 돌아갈 때에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려니 알아야 끌어 쓰죠. 아, 숟가락을 갖다 주고 먹어라 해도 못 먹는데, "숟가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떠먹을 게 보여야 떠먹죠." 요러는 걸요. 하하하.

아, 전력이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불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전력이 있다는 것은 믿죠? 그렇게 믿듯이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도 반드시 있다는 그 믿음을, 신념을 가지세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하루라도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도 없고 빛깔도 없고 쥘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대의적인, 즉 이름입니다.

주인공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그 용도를 가지고, 또는 대권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또 출현할지 그것은 또 그다음 일이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주인공은 틀림없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얍삽한지 남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걸로 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떡하면 좋은 거를 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 섭류가 한데 동시에, 우주법계가 한데 합치는 마음입니다. 그저 남에게 그냥 준다고 해서 이것이 공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략)

이 모두가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해 나갈 수 있다면 남을 원망 안 합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남을 원망 안 합니다. 왜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탓이니까,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딪침이 있고 말 상대가 있고 인연이 돼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이 나중엔,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내 탓으로 돌려서 잘못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탓으로 돌리니까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러 오고 외려 더 친절해졌다는 사람들이 하고많습니다. 이 건건이 살아나가는 데에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게 돌아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 가정도 그렇고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왜 하느냐 하면 모든 게 그 살림살이에서, 모두 그 마음에서 빚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들이고 내고 하고 가는 이 자체가 바로 내 주인공이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예 몽땅 줘서 생각을 해 버리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송장이죠?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죠? 육신이 없다면 무효죠?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작용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주인공의 원리란 말입니다.



지금 대변이 마려워서 죽겠는데 대변 마려운 생각뿐이지
거기에 간접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그 순간에 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6월 28일 국외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현불논단 |

자기 통제능력을 키워라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온 · 오프라인 넘나드는 초연결사회
가치창출 · 혁신 이뤄져 장점 부각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특징 때문에
이면엔 디스토피아 회의론도 있어

국민 97%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단톡방, 편리하지만 때론 불편해
초연결사회로 인해 느끼는 피로감
인드라망 새겨 디지털 자기관리를

2008년 시장조사기업 가트너(Gartner)는 네트워크, 센서, 데이터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사람, 사물, 공간을 잇는 망이 빨라지고 촘촘해진 새로운 사회 변화를 설명하면서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실로 인류는 지금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고, 사물과 사물, 기기와 사물 같은 무생물 객체끼리도 연결망을 바탕으로 정보를 생성,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에 진입하였다. 새로운 가치창출과 혁신이 가능해지면서 만물과 공간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고, 인간은 무한 연결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초연결 사회는 단지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컴퓨터로 소통하던 이전의 정보화 사회와 달리 초연결 사회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본격적으로 융합한다. 인간 사회의 초연결 상황은 개인에게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와 공동체에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재앙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최근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살인 사건이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하였다. 피해자를 방문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준비과정이 순전히 온라인으로 이뤄졌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하는 초연결 시대가 아니었더라면 CCTV 증거확보를 통한 검거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미래사회가 초연결로 인해 한순간에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회의론자들의 경고에 다시금 주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7%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전체가 카카오톡이라는 소위 국민 메신저 서비스로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셈이다.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의 단톡방 기능을 소통 · 대화 기능에 이어 두 번째 이용 사유로 밝히고 있지만, 단톡방으로 연결된 상태에 대한 불편한 인식도 드러내고 있다.

메신저와 같은 초연결 기술은 세상의 어느 곳, 어떤 정보에도 거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무한 연결의 시대를 열었지만, 원하지 않는 정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 속박의 시대를 동시에 가져왔다. 직장인 열 명 중 여덟 명은 업무 외 시간에 울리는 메시지 신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다른 이용자들도 다양한 사적, 공적 대화방에서 연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단체 대화방을 떠날 때 제시하던 '단톡방 탈퇴' 안내 문구를 없앤 카카오는 출시 1개월 만에 200만 여 명이 이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밝혔다. '조용한' 단톡방 탈출 행렬은 초연결사회가 초래한 연결의 피로감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는 혼란의 21세기 초연결 사회를 평온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초연결 삶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초연결이 가져오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 사물 할 것 없이 모든 객체가 상호작용하는 초연결 사회의 연결망은 불교의 법망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일체가 법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만물만생이 상대적 의존관계 속에서 돌아가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인과로 이어진다는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인과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불교의 원리는 초연결 사회가 개개인의 책임과 윤리의식에 기반을 둔 디지털 자기관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개인과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초연결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기 통제능력을 키워가야 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포도주와 불교

6월에는 햇빛이 갓 열린 포도송이마다 매섭게 침을 쏘아댄다.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서 만난 포도나무들은 그 난폭한 빛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해안 절벽에 뿌리내린 것도 아슬아슬한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맹렬하게 쏟아붓는 햇빛을 어찌 견딜 것인가. 그만 앉은뱅이가 된 포도나무. 하지만 해가 진 후 카페에서 마시는 포도주 맛이란.

시인들은 포도주를 식물의 피라고 노래한다. 포도주는 포도나무의 붉은 피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를 동물성 포도주라고 했다. 포도주가 다른 식물로 만든 술보다 인간의 체질에 맞기 때문일까. 잘 빚어진 포도주는 습하고 차가운 몸은 데워주고, 덥고 건조한 몸의 열은 내려준다. 그래서 예전에는 포도주를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포도주는 인간의 몸을 유익하게 해주어 생명의 원천인 붉은 피처럼 생각했나 보다. 아무튼 인간은 포도주를 모든 술 중에서 으뜸으로 여겨 높은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좋은 포도주를 구입하고자 한다.

포도주는 포도 열매라는 질료 안에서 자기 스스로 발효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했는지도 모른다. 포도알의 불순물만 제거하고 그릇 속에 넣어 밀봉하면 어디에서나 발효한다. 발효할 때는 탄산가스가 나와 끓어오르기 때문에 모든 균은 죽어 순수하고 감미로운 포도주가 생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주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변치 않고 제 맛과 향기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림 · 최주현

포도 열매가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발효의 과정, 이것이 우리 중생(衆生)의 삶이 아닐까? 인간의 발효는 거짓된 나를 벗고 참 나로 변화하여 나아가는 것이리라. 포도가 발효될 때 탄산가스가 나오듯, 인간이 발효할 때는 탐진치(貪瞋癡)가 드러난다. 교만, 집착, 허영의 에고 덩어리가 떠오른다. 나라고 믿었던 내 존재마저도 인연의 조건에 따라 생성되고 소멸되는 거짓 나임이 밝혀진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발효이다.

발효하는 비결은 오직 밀봉뿐이다. 밀봉이란 지금까지 세상만을 바라봤던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나는 무엇인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썩어질 생명이 썩지 않을 생명이 되도록 끈질기게 공부하는 것이다. 밀봉의 비밀은 몰입에 있다.

밀봉하여 발효되면 무색투명한 포도주가 된다. 포도 알맹이가 으깨어져 포도주가 생성되듯, 내 마음도 오욕을 씻어내면 본래의 불성(佛性)을 드러내리라.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불법(佛法)이 목마른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생명의 감로주가 아닌가.

〈작가〉

社 說

월운당 해룡 대강백 원적에 부쳐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당 해룡 대강백이 지난 6월 16일 오후 10시 36분 원적에 들었다. 월운 스님은 이 시대를 대표한 대강백이자 화엄종주였고, 한글 대장경 불사에 앞장서 불자들이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역경보살' 이었다. 또한, 1973년 전국 최초로 어린이 숲속학교를 개설해 어린이 포교에 앞장섰던 부루나존자의 후예이기도 했다.

이 같은 대강백의 원력은 교계 안팎에서 후학들의 존경을 받았다. 월운 대강백은 2001년 한글대장경 완간에 따른 조계종 종정예하의 공로상을 시작으로 △한글학회 외솔상(2001) △조계종 포교대상(2003) △대통령 은관문화훈장(2005)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2005)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해인승가상 대상(2014) 등을 수상했다.

남기신 임종게인 '사승비승사속비속 허두장로월운영가(似僧非僧似俗非俗 虛頭長老月雲靈駕, 중 같지만 중도 아니고/ 속인 같지만 속인도 아닌/ 헛소리하는 늙은이/ 월운 영가)' 도 대강백의 면면을 잘 느끼게 해준다. 이는 수십 년 전 티베트 순례 당시 "순례 중 기절하면 부처님 나라에서 장사 지내달라"라면서 작성한 게송이다.

6월 21일 엄수된 월운 대강백의 영결 · 다비식에는 폭우 예보에도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운집해 대강백을 추모했고, 봉선사에 이르는 길목 곳곳마다 봉선사 신도단체와 지자체장, 지역불교계, 마을 주민 등의 추모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대강백을 그리는 대중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월운 대강백은 종단의 3대 목표인 교육, 포교, 역경불사에 평생을 바친 선지식이었다. 이제 후학들은 대강백의 유지를 이어 한국불교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홍준표 시장, 불교계 면담 나서야

대구시가 대구시립합창단 공연을 앞두고 종교편향적 음악 리스트 논란이 일자 4월 27일 '종교화합자문위원회' 폐지 의사를 밝힌 지 두 달이 지났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자문위가 자문을 넘어 구속력 있는 의결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자문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시립합창단의 기독교 편향 공연 사태를 계기로 종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문위를 설치해 시행한지 1년 반도 되지 않은 셈이다.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를 침해했다는 홍 시장의 발언이 단순히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대로 다종교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종교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지 의문이다.

자문위는 그동안 노골적인 종교편향 공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공공영역에서 진행되는 합창단의 선교행위를 막고 종교간 화합을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대구시립합창단의 종교편향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고, 대구시가 조례를 개정해 자문위 역할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자문위 활동을 '사전검열' 이라고 폄하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먼저 조례를 손보는 것이 순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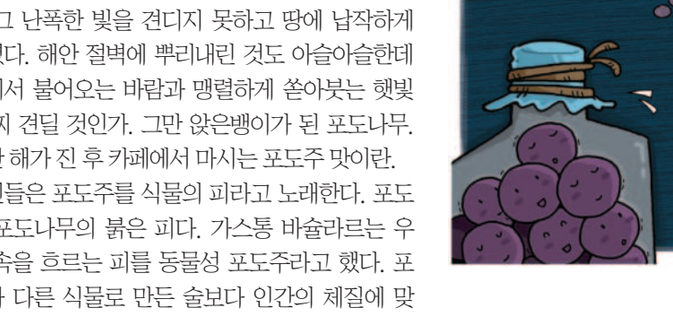
불교계는 대구광역시의회 방문에 이어 김종한 행정부시장과 만나 홍준표 시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홍 시장이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면 불교계의 면담 요청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극단적인 결정은 극단적인 결과를 낳는다. 지금은 자문위가 왜 탄생했고, 무슨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면 천막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불교계에 홍 시장이 응답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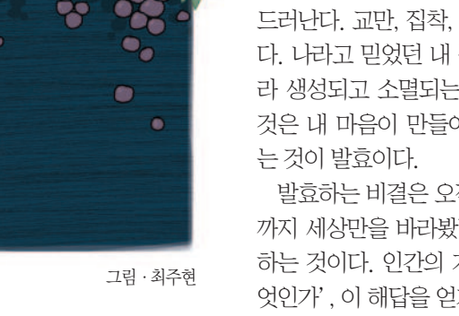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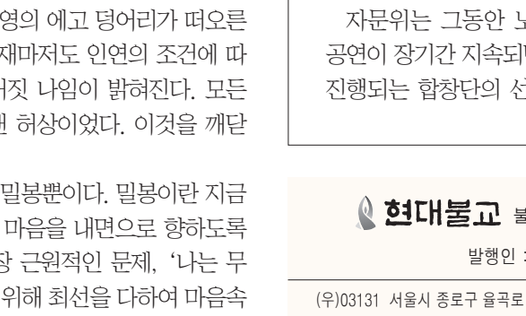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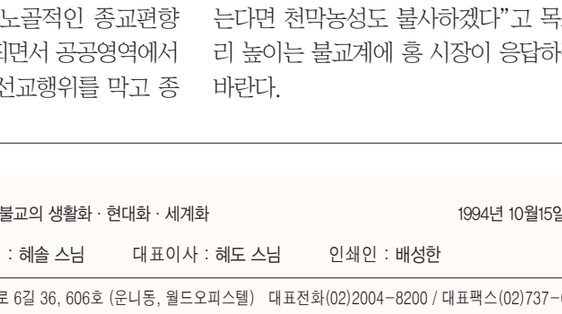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운 무료급식밥차 전국순회 공양 행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극빈지역 물품 전달식

▶자전거 → 300대 ▶의약품 → 25,306점
▶컵라면 → 30,000개 통계:308,624,500원(한화)

◆ 일시 : 2020. 03. 26. (오후 3시)
◆ 장소 : 베트남 대사관
◆ 후원 : 용봉월드재단 / 전국무료급식지원본부



코로나19 극복기원

스리랑카 구호품(1억 7천만원 상당) 전달식

행사일시 : 2021.09. 10. 오전 10시

◆ 주최 : 무료급식소 지원본부 ◆ 후원 : 세계불교교황청 ◆ 장소 : 원평포교당

무료급식을 화두로 이행(利行)하며 행화하는 선지식

급식본부 이사장 원명 관성 대종사는 30년 넘는 세월을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 노숙인 ·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따뜻한 밥상을 제공하여 참다운 보시의 공덕을 실천하면서 해외 극빈지역에도 자전거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 마련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이티(자가용도) 밥차는 차량에 주방시설을 갖춘 이동식 급식소입니다. 찬사를 보내며 동참으로 응원합니다.

불교2567년(2023년) 06월 28일

세계불교교황청 청장 석능인 대승통



〈서울 삼각산 도선사 지도법사 1982년〉

이웃과 함께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급식행자 원명 관성(이일도) 합장

월 3천원 정기후원 릴레이 캠페인

정부지원없이 운영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182-0050-61 • 예금주:무료급식소지원본부
• 국민 91800085069

※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세제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2)6396-2103, 010-7537-2103

※ 이 기사는 세계불교교황청 협찬입니다.